현대불교 구독료 자동이체하세요



02-737-0090

▶자동이체 하면 좋은 점
- 전화 한 통화로 해결됩니다.
-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이 덜어집니다.
- 통장에 납부내역이 자동기록됩니다.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8월 7일 수요일 (주간) 제 381 호

신개발품 전자칼라인등 佛心院 - 완전상 · 경제성 · 편리성 서울조계사 入口 '상문종합' 1층 ☎ 02)725-0250(代)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이름뿐인 경승

대한불교경승단(단장 도영)이 7월 19일부터 한달여에 걸쳐 경찰청과 지방청을 포함해 전국 200여 경찰서를 대상으로 경승현황 파악에 나섰다.

경승의 유무와 활동 상황은 물론 경승실 설치 유무, 경찰불교회 구성 및 활동현황, 주요 임원현황 등이 조사대상이다. 경승단은 이번 조사를 통해 경찰포교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사시작 20여일 동안 집계한 70여 경찰서 상황을 보면, 정기적인 활동이 전무한 곳이 절반을 넘는다. 이름만 걸어놓을 뿐 활동은 하지 않는 경승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과 경찰에 대한 선교를 강화하고 있는 개신교 등 타종교와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경승단칙에는 '경승은 경찰 및 가족, 부상자 및 유가족, 유치인 등에 대한 포교활동을 펼쳐야 한다' 고 경승의 역할을 규정짓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아니더라도 경승이라면 경찰불자들의 신행을 돕고, 경찰불교회의 법회를 지원해야 한다.

조사결과에서 본듯이 경승들의 활동이 저조함에 따라 포교현장에서는 볼만 쉬인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모 지방경찰청의 경우 6백명이 넘는 직원 중 경찰불교회원은 30여명에 지나지 않을 만큼 경찰포교가 미약한데도, 이곳 경승들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남지역에서 활동하는 한 경승은 "솔직히 이름만 걸어놓고 명예와 민원 해결 등 잇속만 챙기는 경승들도 있다"며 "중앙에서 조직적으로 관리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포교의지가 없는 경승 본인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찰에 대한 포교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경승의 적극적인 활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포교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한마디로 인식부족과 무관심 때문이다. 임명된 경승의 활동 여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지만, 이를 독려하고 지원하는 시스템 없이는 미봉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조계종 등 각 종단의 관심과 경승단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박봉영(취재 1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법문 서비스**

1. 정기적으로 경전 내용이나 스님의 법문 등을 제공 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원한다 ② 원치 않는다
2. 원한다면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① 이 메일 ② 핸드폰 문자서비스 ③ 우편물
④ 전화 서비스 ⑤ 소형 책자 ⑥ 기타

설문 참여: 8월 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2호 15면에 실습니다.

불교계 정보화 "잘 안돼 있다" 46.2%

컴퓨터 사용사찰 1,722곳 42% … "구입계획 없다" 2,215곳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결과 관련특집 11 · 12 · 13 · 14면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 5002곳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은 절반(49.9%)으로 조사됐다.

5,002곳 가운데 4,135곳에 해당하는 사찰의 컴퓨터 사용율은 41.7%인 1,722곳으로 절반에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 사찰 2,435곳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2,215곳이 향후 구입의사가 없다고 답했다. 그 주된 원인은 사용미숙(44%)과 비용에 대한 부담(26%)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1,203명의 사찰 주지스님과 종무원, 단체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및 면접조사에서는 46.2%인 530명이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 '별로 잘되어 있지 않다' 고 답했고 37.5%(430명)는 '보통' 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반면 응답자의 70%이상이 불교계의 정보화가 업무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으며 89.1%(1,072명)은 포교와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대응 등을 위해 시급히 불교계에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네트워크의 형태는 불교전체는 아우르는 거시적인 규모로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6.5%로 절반을 넘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조계종 종무원이 협력해 지난 4월 한 달간 실시한 '불교정보화실태조사' 에 의해 밝혀졌다. 이는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발전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화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또 인프라의 구축과 콘텐츠의 지속적인 개발, 보급을 통한 불교 디지털화 불사도 더 이상 '강 건너 불' 일 수 없음을 시사한다.



불교계 최초로 대규모 설문을 통해 정보화 현주소를 파악한 주최측은 조사결과를 '불교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562쪽 분량)' 로 발간, 각 종단과 주요 단체 및 기관에 배포했다. 보고서에는 교계 22개 단체가 공동명의로 발표한 '불교정보화 분야 활성을 위한 건의문' 과 '불교정보화 사업 추진 방향과 비전' '전국사찰 초고속인터넷 사용실태' 등 관련 자료도 실려 있다.

한편, 불교계의 정보화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공익사업의 추진 등을 수행해 나갈 (가칭)불교정보화협의회가 발족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를 주최한 불교계 언론3사와 조계종 총무원의 발의에 따라 현재 14개 종단과 단체의 실무자들이 모임(운영위원장 서동석)을 갖고 있으며 올 가을 정식 단체로 발족할 계획이다.

협의회 실무자 모임은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 활성화를 위해 교육, 인프라 구축, 콘텐츠의 개발 보급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인식아래 관련연구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했다.

임연태 · 김두식 기자



"마음부처님 찾아요" 여름방학을 맞아 전국사찰과 단체에서 캠프, 수련대회, 불교학교 등을 개최,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맑은 심성을 되찾아 주고 있다. 사진은 본사가 7월 30~8월 1일 법주사와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개최한 부다띠아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좌선을 하고 있는 모습. (관련기사 9면) 사진=고영배기자

불교계, 북한산지키기 법률 대응

7월 26일 법원결정 반발, 항소 · 집행정지 신청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결정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일부중지' 결정에 반발, 불교계가 법원에 항소와 함께 집행정지를 연이어 신청했다.

조계종 회룡사가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판결에 불복, 7월 29일 "철마선원 등은 회룡사가 건립하거나 운영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할 권리나 의무가 없다. 재판부가 채무자 선정을 잘못했다"며 의정부지원에 항소했다.

이어 관음종 미가사 등은 "항소의 판결 선고까지 철마선원 철거 집행을 중지해 달라"며 1일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 단행' 가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덕천사 등 북한산 19개 사찰도 1일 "회룡사와 홍법사 이외 구간에 대해서도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금지해 달라"며 북부지원에 항고를 신청했다.

한편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등 4대 종교 환경단체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공동대표 수경)는 1일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을 중지하고 대안노선을 검토 하라고 촉구했다.

강유신 기자 snahmok@buddhapia.com

법륜스님, 막사이사이賞 수상

선정위, "남북한 화해 · 탈북자 지원 공로"

법륜스님(좋은벗들 이사장)이 7월 29일 '아시아의 노벨상' 으로 불리는 라몬 막사이사이상 평화 국제이해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막사이사이상 선정위는 "스님이 불교의 가르침을 토대로 정토회를 설립해 탐욕, 빈곤 및 환경파괴 등 근대사회 전반에 걸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활동을 해왔다"며 "정치적 정파에 개의치 않고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희생된 생명들에 대한 그의 염정적인 관심과 남북 화해에 대한 희망적 호소, 탈북자지원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선정 이유로 밝혔다. ☞법륜스님 인터뷰 3면

법륜스님의 막사이사이상 수상에 대해 불교계는 물론 민주당 한나라당도 7월 30일 "법륜스님 수상 경하" "법륜스님 수상 환영" 등의 논평을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오늘의 종교 디딤돌 · 걸림돌상' 제정

종교 NGO네트워크

참여불교재가연대 비롯 천주교, 개신교 종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종교NGO네트워크(공동대표 박광서, 김동한 박순희)가 올 9월과 12월에 종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과 역행한 사람을 뽑아 '오늘의 종교 디딤돌상' 과 '오늘의 종교 걸림돌상' 을 발표한다.

'오늘의 종교 디딤돌상과 걸림돌상' 은 고단 재정의 특명성 확보, 권위적 성직주의 타파, 가부장적이고 반생명적 종교문화 척결, 교단개혁 대안모색 등을 위해 마련됐다.

강유신 기자

불교정보화 분야 활성을 위한 건의문

불교가 우리민족 역사와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절대 진리를 바탕으로 사상과 문화의 풍창계를 순환시켜 왔기 때문입니다. '나 외 너' 가 둘이 아닌 진리의 관점에서 포용과 화해의 도리를 삶의 현장에 접목시켜 온 불교의 가르침이 장구한 역사를 통해 민족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불교는 어떤 시절 인연 속에서도 늘 귀의하여 안도 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으로 자리해 왔던 것입니다.

때문에 불교는 오늘날의 정보화 사회를 맞아서도 시대 흐름을 따라잡고 한 발 앞서 나가 삶의 보편적 진리에 입각한 가치의 중심을 잡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분명 기기와 기술의 발달이 삶의 풍속도를 급변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 쪽에서는 문화와 사고의 격차가 심화되어 각종 범죄와 비리를 양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치유할 수 있는 대안은 과연 어느 곳에서 찾을 것인가? 땅에 넘어진 사람이 땅을 짚고 일어나야 하듯, 정보화 사회의 병집은 앞선 정보화 기반과 차원 높은 콘텐츠의 활용을 통해 풀어야 한다는 것이 불교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불교계의 현실은 아직 의욕을 따라잡지 못한 실정입니다. 2002년 4월 한 달 간 실시한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에 응답한 불교계 5000여 사찰과 단체 가운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곳은 절반에 해당하는 2497곳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찰과 단체들의 91%에 해당하는 곳이 향후 컴퓨터를 구입해 쓰고자 하는 의지마저 갖지 않은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사용할 줄 모르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찰 가운데서 인터넷을 활용하는 곳은 74.6%인 1843곳으로 나타났는데 전체 불교계 사찰과 단체의 37% 선에 머무는 수치입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조사한 전국 초고속인터넷 이용율과 대비 한 결과에도 부합되고 있습니다. 즉, 초고속인터넷은 2002년 말 전망치로 인구 기준 50%가, 가구 기준으로는 70%가 사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반해 사찰의 이용율은 15%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2002년 5월 KT 자체 조사 자료)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볼 때, 불교계의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실태는 정보화 사회의 표면적 회려함에 비해 상당히 미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교계가 정보화 사회를 거부하거나 방관, 외면했던 것은 아닙니다. 각 종단과 단체별로 사무자동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노력을 부단히 해 왔으며 각종 사이트의 운영과 정보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정보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일련의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간의 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가 시키고 불교계 전반을 포용하는 정보화 기반 조성을 공고히 하기 위해 결성된 불교정보화협의회는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를 통해 불교계의 정보화 현황과 구조적 모순 그리고 향후 정보화 사회에 동참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한 결과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본 협의회는 불교계 정보화가 민족 문화 발전의 한 축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들을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각종 정보화 사업을 통해 우리 민족의 역사 문화에 용해된 불교의 자양분이 새로운 가치로 창조돼야 합니다.

불교계 각 종단과 단체들은 정보화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만 아직 여건과 환경이 성숙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찰의 50%가량은 컴퓨터조차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구입 의지도 거의 없습니다. 바로 컴퓨터 사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때라서 공익적인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사찰과 스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컴퓨터 교육시스템의 운영이 절실합니다. 그와 함께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여 지역문화의 거점이 되고 민족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한국의 모든 사찰에 컴퓨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고 각종 콘텐츠를 개발 활용토록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이 같은 정보화의 저변을 튼튼히 하는 제반 사업들은 불교계 내부의 강한 의지와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담보되지 않으면 구현되기 어렵습니다.

둘째,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등에서 불교계가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대 국가 정보화 사업 가운데 정보격차 해소 사업의 경우 불교는 상당부분 소외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방 사찰은 그 지역의 문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충분한 여건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기반시설 조차 구축 되지 않아 인터넷에 접근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각 지역 사찰들이 품고 있는 역사 문화 환경 교육적 중요성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까지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인 'e-KOREA VISION 2006' 사업 등에 전국의 불교 사찰과 문화재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불교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화 인프라 구축이 없이는 불교문화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에 참여한 사찰 단체의 대부분(56%)이 불교계 전체를 연결하는 거시적이고 대승적인 네트워크의 구축이 절실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불교의 정보화 인프라는 종단과 단체 등을 초월해 불교전체를 아우를 때 종교를 뛰어 넘는 문화, 환경, 교육적 시너지를 배가할 수 있다는 의견이 광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불교계에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련의 노력이 있었으나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때문에 불교정보화네트워크의 다양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불교계의 주체적 움직임에 정부는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넷째, 불교계의 정보화 사업은 점진적 발전 단계를 거쳐 추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합니다.

불교정보화 협의회는 불교정보화의 보다 적극적인 운영주체로 자리 매김하고자 합니다. 정보화 사업의 개별적 연구와 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 연구와 공익적 사업의 추진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체계적인 기반 시설의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보급,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등 불교계 스스로 극복해야 할 과제와 종단과 정부가 나서서 선도해야 할 사업들을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여 점진적인 발전 구도를 지향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통해 불교계와 정부가 정보화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의 깊을 얼어 가야 할 것입니다.

불교계의 정보화는 우리 문화 부흥의 원경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 아래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가 진행 되었던 만큼 각종 발전 방안의 모색과 그를 통한 주요 사업들의 추진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실태조사의 연밀한 분석을 통해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차원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데 일조 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 건의 내용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길 기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7월

(가칭)불교정보화 협의회

대한불교조계종, 한국불교태고종, 대한불교천태종, 대한불교관음종, 대한불교열반종, 불교총지종, 고려대장경연구소, 청소년교화연합회, 생명나눔실천회, 여성불교연합회, 대한불교진흥원,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수덕사, 봉선사, 신흥사, 불국사, 범어사, 선운사, 월정사, 쌍계사 (이상 무순)

사 설

막사이사이상 수상 의미

올해 막사이사이상 '평화 및 국제이해 부문'에 '좋은벗들' 이사장 법륜스님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법륜 스님의 이번 수상은 '개인의 영광'을 훌쩍 뛰어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종교 본연의 자세와 구실에 대한 중요한 몇 가지를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선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수년간 남북화해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한 모든 민간단체에 주는 상"이라고 밝힌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그 동안 법륜 스님은 '조건 없는 베풂'이라는 불교의 덕목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타종교와의 연대를 원만히 이루어냈다.

둘째, 종교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념과 '거리 두기'가 필수적임을 보여 주었다. 법륜 스님이 중추적 역할을 한 '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을 시작한 96년은 '햇볕 정책'과 같은 발상이 어려운 때였다. 사회적 분위기나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을 일시에 바꿔놓을 듯한 거창한 구호나 '~주의'를 수 없이 봐왔다. 하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한 때의 진실이었거나 현실적 힘의 우위에 바탕을 둔 허상이었음을 비싼 대가를 치르고 깨달아야 했다. 종교는 어떠한 경우에나 정치권력이나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그 본연의 구실을 다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도 이번 수상의 중요한 의미다.

셋째, 스님이든 목사든 신부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가가 아니라 '수행(성직)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법륜 스님은 '자신의 평정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상을 사양하려 했다고 한다. 또 '승려로서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도 했다. 종교의 종교다움은, 수행(성직)자의 수행(성직)자다움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일깨우는 참으로 스님다운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경승제도 활성화 하자

현대는 다원종교시대다. 많은 종교들이 교리와 교세를 자랑한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강조되는 만큼 종교 스스로 대중들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해야만 한다.

불교가 현대사회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무관심하거나 관성적인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를 드러낸 것이 최근 경승단이 200여 경찰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승활동현황 조사다.

70여 경찰서에서 파악된 내용만 보더라도 경승의 임명과 활동이 얼마나 비조직적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예 경승조직이 없거나 있더라도 법회도 열지 않는, 이름뿐인 곳이 대부분이었으며, 그나마 활동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했다. 대략 10% 정도가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었다. 이런 계산이라면 전국적으로 경찰불교회가 조직되어 있는 60~70여 곳 역시 경승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으리라 볼 수 있다. 충격이다 못해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이다.

경승단과 조계종 포교원은 차제에 철저한 현황조사와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각 교구본사와 협력해 전국경찰서에서 경승이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경승은, 경목이 독점한 것을 싸우면서 얻은 제도다.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종단 전체의 수치다. 출가의 목적이 전법과 중생제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하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0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수행관 미입방자 구족계 수계자격 박탈

조계종 교육원 예비승 교육·계율 강화

강원 학년별 평가제 도입 추진

조계종 교육원이 예비승(사미·사미니) 교육 및 계율 강화에 나섰다.

교육원(원장 무비)은 7월29일 제57차 교육원 회의와 전국 강원 학장회의를 잇달아 열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에 재학 중인 예비승들의 수행관 미입방에 따른 제재 방안을 확정하고, 강원의 학년별 평가제 도입을 추진키로 하는 등 종단기본교육기관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교육원이 이같은 방침을 들고 나온 것은 올해 들어 강원, 중앙승가대, 동국대 등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승들의 면학풍토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최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예비승 간에 폭력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수행관 입방을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예비승들의 수행관 미입방률이 각각 34%와 21%에 이르는 등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우선 내년부터 수행관 미입방 예승들에 대해 4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및 구족계 수계자격을 박탈하는 한편, 수행관 청규를 제·개정키로 했다. 또 계율에 바탕을 둔 학업이 불가능한 일반대학 출신 출가자의 동국대 편입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으며, 9월말까지 실시되는 '사미(니)의제 특별감찰'에서 적발된 예비승에 대해서는 비구계 수계자격을 1년간 유보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교육원은 학년별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선 관계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교육원은 지금까지 재학학인 30인 이상 강원에서만 실시해오던 '명사초청 순회특강'을 학인 20인 이상 강원으로 낮췄으며, 오는 10월2~4일 직지사에서 열기로 한 '강사·중강 연수회'도 교육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키로 했다.

또한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구족계를 수지한 자'로 돼 있는 강원 부교수(중강)의 자격요건을 '전문교육기관(학림, 불교대학원, 율원)을 졸업한 자'로 변경하는 등 교육자 자격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포교사 전문연수

포교원, 영천 은해사서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오는 24~25일 영천 은해사에서 포교사 전문연수를 실시한다.

청년, 경찰, 직장직능, 신행단체, 지역, 환경분야에 활동하는 포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연수는 각 분야 포교의 다양한 접근 방법을 이해하고, 포교법을 습득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재경 기자

천태종 하안거 결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제83회 하안거 기도를 3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한달간 총본산 구인사에서 봉행한다.

3일 밤 10시 설법보전 5층 법당에서 결제식을 시작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번 하안거에는 5만여 천태종 신도가 동참할 전망이다.

이경숙 기자

'주5일제' 대비 사찰운영법 모색

불교아카데미, 경영자 워크숍·가족프로그램 안내자과정 개최

재가연대 부설 불교아카데미가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가족프로그램 및 신행프로그램과 사찰 전략 등 새로운 사찰운영 방법 마련에 나선다.

불교아카데미(원장 임동주)는 '주5일제 대비 경영자워크숍'과 '가족프로그램 전문 안내자 양성과정' 등을 개최키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사찰 주지 및 신행단체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17일 북악파크호텔에서 열리는 '주5일제 대비 경영자 워크숍'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가져올 여가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영리·비영리단체의 주5일 근무제 대비동향 △마인드 맵 워크숍을 활용한 가족프로그램 개발 전략 △우리사찰의 주5일 근무 대비 전략수립과 실행 등에 대해 김정원 명지대 여가정보학과 교수, 임동주 정신문화연구원 편수출판실장, 정웅기 불교아카데미 사무국장 등이 강연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9~11일 서울 국제청소년센터 드림텔에서 열리는 '가족프로그램 전문안내자 양성과정'에서는 △주5일 근무제 대비 사찰의 전략 △가족단위 신행 프로그램 개발 기술 △가족신행을 위한 레크리에이션 △환경생태프로그램 진행 기술 등에 대해 김남선 참교육연구소장, 조용헌 원광대 교수, 김재일 사찰생태연구소 회장, 이성훈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국장이 강의한다.

불교아카데미 임동주 원장은 "최근 개신교와 천주교에서는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 주일 예배를 금요일 예배로 전환하고 전원교회와 카페교회 등을 만들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강좌를 통해 종교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02)745-7799

강유신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한국불교발전 초석될 터

교화직 대상자 15주 교육

진각종 총금강회, 10월3일 6개교구서 동시 체육대회

진각종(통리원장 효암)은 예비교화자의 수행과 교화실무능력 함양을 위한 교화발령 대상자 교육을 7월 29일부터 시작, 11월 10일까지 15주 동안 서울 총인원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화대상자 교육은 매일 새벽 계명정진과 함께 △진각교전 연구 △설법안 발표 △사경 △염송법(염송의 의미, 자세 등) △스피치교육 △심인당 관리법 △불사집전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한편 진각종 총금강회(회장 백진호)는 7월26일 통리원 회의실에서 대의원회의를 열고 '회당 대종사 탄생 100주년 기념 신교도 한마음 체육대회'를 10월 3일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대전, 포항, 경주 등 6개 교구에서 동시에 개최키로 했다.

한명우 기자

태고종 12일 원로회의 개최

5일 봉원사서 임시종회…종단발전책 논의

태고종 제85회 임시중앙종회(의장 운곡)가 5일 오전 11시부터 이틀간의 회기 일정으로 신촌 봉원사에서 개최된다.

이번 종회에서는 △종법 제 개정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각급 기관장 인준 등 주요 현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이번 종회에서는 운산 총무원장 취임 이후 지난 6개월간 태고종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개혁불사를 과감히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종단발전책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태고종은 상원격인 원로회의가 구성됨에 따라 12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경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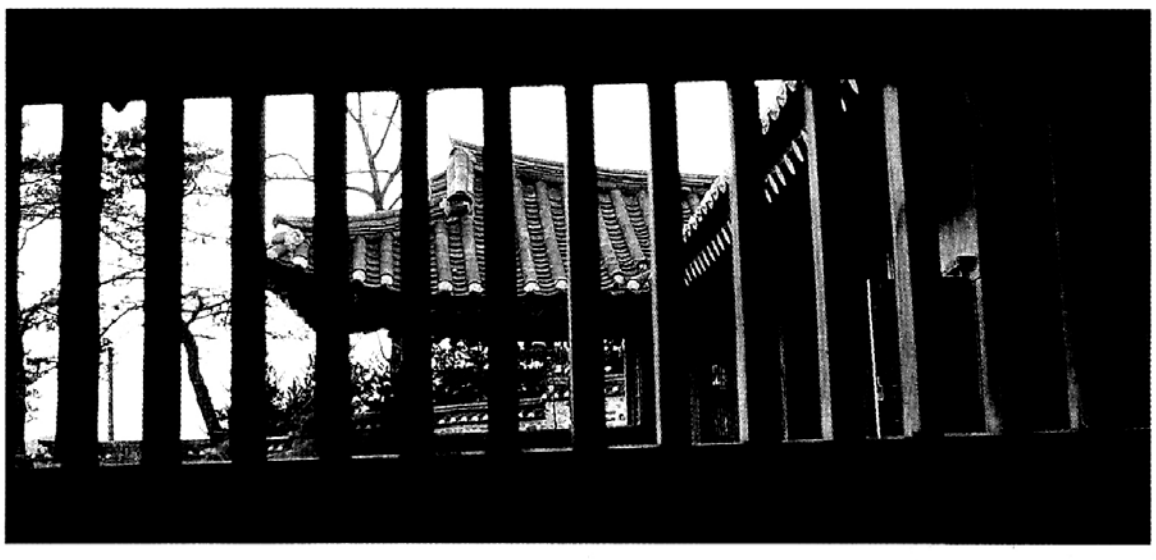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남을 꾸짖을 마음으로 나를 꾸짖고 나를 용서하듯 남을 용서하라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경봉 큰스님, 70여 년간의 성찰과 깨달음의 일기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경봉 큰스님의 일기. 화두, 시와 어울린 아름다운 사진은 숱한 번민, 부질없는 욕심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안겨준다.

스님의 일기에는 제방(諸方)의 눈푸른 납자(衲子), 선지식들과 주고받은 법담과 감회들이 격외(格外)의 시로써 장마다 빛을 발하고 있다. _법정

조문객이 10만이 넘고 장례행렬이 2km나 이어진 불교계의 전설 경봉 스님의 일기는 수행자답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다짐이 많다. _조선일보

80여 편의 시, 20여 개의 화두, 주고받은 법담, 자연친화적인 90여 컷의 사진과 함께 빛을 발하는 명구들…… 내밀하고 그윽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_스포츠서울



경봉큰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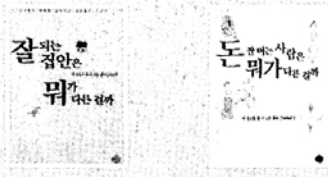
15세에 출가, 평생 불도사에서 선풍(禪風)을 드날렸다. 1953년부터 극락암에 조실(祖室)로 주석하면서 이곳은 전국의 선승(禪僧)들이 동경하는 수행장소로 미흡했다. 1973년 1월 여든을 넘긴 나이에 매월 첫 번째 일요일 정기법회를 시작했고 매번 수천의 불자(佛子)들이 그의 사자후(獅子吼)에 귀를 기울였다. 올해로 입적 20주년을 맞이하였다

화분 하나, 액자 하나로 가족의 운명을바꿀 수 있다?

잘 되는 집안은 뭐가 다른 걸까

남자의 성공을 부르는 기 인테리어
신혼을 위한 기 인테리어
질병을 물리치는 기 인테리어
아름답고 날씬해지는 기 인테리어

이성준 지음 | 올컬러 | 12,000원



돈이 모이는 집,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금전운이 좋아하는 집은 이런 집
이런 옷차림이 부자로 만들어준다
이런 장식소품이 금전운을 부른다
이런 가구배치가 돈을 부른다

이성준 지음 | 올컬러 | 13,000원

TEL 953-0304 FAX 953-0306

비구니 스님들의 30년 숙원사업이었던 전국비구니회관의 완공에 발맞춰, 서울 강남 도심에서 수행과 교육에 전념하는 '비구니 결사(結社)'가 시작된다.

전국비구니회(회장 광우스님)는 비구니회관에 상주하며 2년간 결사에 들어갈 40~55세의 비구니 20여명을 오는 9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회관 완공계기 2년간 비구니結社

전국 비구니회 동참 비구니 모집 … "수행력 있는 차세대 지도자 양성"

포교 · 복지 · 문화사업 담당 여성봉사자도



◇한국 비구니 승단이 비구니회관 완공과 2004년 사키야디타 국제불교여성대회를 계기로 여성불교의 발전을 다짐하고 나섰다. 사진은 5월 4일 거행된 비구니회관 봉불식.

광우스님은 "비구니회관을 거점으로 비구니 스님들이 지금까지 종단내에서 역량을 발휘했던 것 이상으로 교육, 포교, 복지, 문화사업이 새로운 역할을 창출해 낼 것"이라며 "종단 발전과 불교 홍포의 사명감과 능력과 서원을 가진 참신한 스님을 찾는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선발된 비구니 스님들이 비구니회관의 상주대중으로서 수행, 교육, 포교, 복지, 문화, 기도, 국제포교 등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로서 역할할 수 있도록 참선, 기도 등의 실참과 선어록 및 어학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비구니회의 이번 결사는 비구니회관이 우여곡절끝에 어렵게 완공된만큼, 비구니계의 단합된 역량을 모아 회관을 원만히 운영하고 수행력있는 차세대 비구니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국제불교여성협회와 함께 전국비구니회가 개최하는 2004년 서울 사키야디타 국제불교여성대회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한 실무능력을 갖추는 부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결사는 여성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여성 불자들의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모색하는 의미도 갖는다. 20여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포교, 복지, 문화사업에 나설 60~80명의 여성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 여성불교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본각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여성불교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출재가 여성들이 하나가 돼 수행과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며, "비구니회관의 문화 및 복지 포교의 기능을 강화하고, 2004년 사키야디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여성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후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속화된 기복, 미신 불교를 타파하고 타락한 형식불교를 척결하며 정법, 수행불교를 주창했던 보조지눌 스님의 정혜결사(定慧結社) 정신을 이어 '비구니 결사'가 이 시대의 새로운 불교혁신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비구니 결사에 동참할 스님들은 12~17일까지 수행이력서 1부(이력, 경력, 수행이력 기재)를 제출하고, 19일 오후2시 서울 강남구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에서 면접을 받으면 된다. 2 차 모집은 9월 9~14일. (02)733-5467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비용 우회路보다 1조 34억 더 든다"

한국생태경제硏, 등산 · 공기정화 등 사용 · 보존가치 훨씬 커



북한산 우회도로가 관통도로보다 공사비용이 7천억원이 더 든다는 시공자측 주장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이 나왔다. 관통도로가 우회도로보다 사회 · 환경적 비용이 1조 34억원 정도 더 든다는 것이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회장 조승헌 박사 · 사진)가 7월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구간과,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우회노선에 대해 환경가치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을 한 결과, 북한산 관통도로가 우회도로보다 1조 34억 더 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산 사용가치(등산과 공기정화 등 산의 이용가치) 3601억원에다 보존가치(직접 사용하지는 않지만 보존됨에 따른 간접적인 가치) 1조 2444억원을 합한 것에 우회도로 추가공사비 6011억을 뺀 금액이다.

연구회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한 뒤 소비자의 환경에 대한 교환가치를 설문에 의해 도출한 다음 화폐가치로 나타낸 것)을 이용, 1999년을 기준으로 북한산 보존가치는 1인당 1년에 16,198원, 사용가치는 11,439원을 토대로 이를 2002년 가치로 환산한 뒤, 20년 동안 인구 증가율, 경제성장률, 북한산 입장객 수, 조정계수를 곱해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또한 우회도로가 관통도로에 비해 식생파괴면적이 1.8배 크다는 주장에 대해 "우회도로 건설에 따라 소실되는 야산파괴 면적과 관통도로 건설에 따라 소실되는 터널 내 면적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관통도로에 따른 환경피해가 과소 추정되었으며, 수락산과 불암산의 환경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에 따른 추가 사회적 비용 또한 최소값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회도로를 건설할 경우 비용이 이중으로 든다는 지적에 대해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사무처장은 "교계와 지역단체가 반발하고 있는 북한산 · 수락산 · 불암산 구간은 아직 공사 진행이 미비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여 대안노선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생태경제연구회(www.ksee.re.kr)는 30여명의 각계 각층의 전문가가 모여 결성한 비영리 사설연구단체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교역자 스님들 '문수법공양회' 결성

후학들에게 경전 · 불교서적 무료 보시

조계종 승가교육의 중책을 맡고 있는 스님들이 강원 등 후학들과 불자들에게 경전과 불교서적을 무료로 보시하는 모임 결성을 추진하고 있다.

'문수법공양회'라는 이름의 이 모임은 지난 5월 교육원장 무비스님이 "후학들을 위해 뜻있는 일을 하자"고 제의하고, 무관(계단위원) 혜남(통도사 강주) 지오(해인사 강주) 혜능(해인사 율원장) 지현(송광사 율원장) 능허(교육원 불학연구소장) 스님 등이 흔쾌히 동참의사를 밝히면서 구체화됐다.

문수법공양회는 지금까지 전국 강원에 무비스님이 현토(懸吐)한 네 권짜리 〈화엄경〉 80질 보급했으며, 경전을 비롯해 불교 입문서 및 학술서 등도 강원과 일반불자들에게 보시할 계획이다. 경전보시에 필요한 재원은 전액 자체적으로 마련한다.

이 모임은 현재 준비단계에 있다.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7명 외에 회원이 더 늘어나 구체적인 사업을 펼 수 있을 때 결성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봐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쉽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봐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봐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기아문제 인도적으로 풀어야"

막사이사이상(평화 · 국제 이해부문) 수상 법륜 스님



"이 상은 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남북화해와 인도적 지원을 한 모든 민간단체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륜 스님('좋은벗들' 이사장 · 사진)은 "출가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히 수상 소감을 밝혔다.

스님의 대북지원은 1996년 여름 북한과 중국과의 국경지대에서 기아상태에 있는 북한 어린이들은 직접 보면서 시작됐다.

"당시 북한 주민들이 굶어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직접 가 볼 수 없었던 것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쉬웠던 것은 그때 백만톤의 쌀이 지원됐더라면 수많은 인명이 아사하는 상태까지는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후 스님은 (사)좋은벗들 회원들과 함께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동북지방에서 식량을 구하러 국경을 넘어온 수많은 북한난민을 도왔다. '북한식량난 실태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알려 대북인도적 지원의 확대를 호소했고, '북한난민실태 및 인권조사보고서'를 만들어 국제사회에 난민 구호를 호소했다.

"현재 중국에는 북한으로 돌아가지도 중국에 머물지도 못하는 탈북자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남한과 북한, 중국과 유엔이 현실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해법을 내 놓아야 합니다. 민간단체의 지원만으론 구조적인 해결이 어려워요."

스님은 최근 서해교전과 관련 남북관계가 소원해 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도 감추지 못했다. "먼저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나면 공멸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또 북한이 도발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아 문제는 인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스님은 인도 국제 워크캠프, 태국 국경지역의 미얀마 난민을 구

중국 체류 탈북자 인권사각지대에

남북한 · 中 · UN 현실적 해법 강구를

호, 몽골 한파 지역의 구호, 이디오피아 가뭄 피해 자원활동 등 세계 곳곳에서 구호 활동을 펴고 있다. 스님은 항상 자신의 변화와 사회의 변화를 함께 해나가려고 하고 있다. 개인의 깨달음은 사회의 깨달음과 나눌 수 없다고 보는 수행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름은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고집하는 개인이나 집단, 종교 등으로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는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을 받는 것을 계기로 이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륜스님은 부상으로 받게 되는 5만 달러도 전액 대북지원 사업에 쓸 계획이다.

문경= 남동우 기자

막사이사이상 이란

'공공' 등 6개 부문…8월 31일 시상식

1957년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막사이사이 필리핀 前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막사이사이상은 아시아인 중 정과나 이해 관계를 떠나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수여된다. 상은 공공봉사 부문, 국제 화합 부문 등 5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또 상장과 메달, 5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함께 전달된다. 수상식은 매년 막사이사이 前 대통령의 생일인 8월 31일 마닐라에서 개최된다.

2002년 제2회 일연 삼국유사 문화제



제 목	사업 내용	일 시	장 소
일연상사 다례제	1. 다례제 육법공양 – 일연성사 숭모회 2. 추모의 노래 – 은해사 합창단	2002년 8월 16일 (11 : 00) [음력 7월 8일]	군위군 고로면 인각사 경내
일연학 학술 세미나	1. 인연 삼국유사 학술세미나 2. 연구논문집 발행	2002년 8월 14일 (13 : 00 ~ 17:00)	군위군청 대강당
청소년 백일장	1. 백일장 개최 (시, 산문) – 전국 초 · 중 · 고등학생	2002년 7월 14일 (11 : 00 ~ 16 : 00) 시 상 – 2002년 8월 16일 (11 : 00)	군위군 고로면 인각사 경내
시 낭송회	1. 시 낭송회 (낭송 시인 명단 추후 선정) 2. 국악공연 및 사물놀이 (오상고등학교 특별공연 외)	2002년 8월 15일 (14 : 00) 일연찬가 시비 제막식	군위군 고로면 인각사 경내

■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 10교구본사 은해사 ■ 주 관 : 인각사 · 일연학연구원
■ 협 찬 : 한국토지공사 · KT(한국통신) · 대한주택공사 · (주)대동에너지 · (주)엠씨엠텍 · (주)한세키토랜드 · (주)아이에스유코
■ 후 원 : 문화관광부 · 국무총리실 청소년 보호위원회 · 경상북도 · 경상북도교육청 · 군위군 대구KBS · 대구MBC · 영남일보 · 대구불교방송 · 청백다례원 · 갓바위 · 선본사 · (주)화진
■ 문 의 : 경상북도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612
TEL 054)383–1161 / Fax 054)383–3758 / www.ingaksa.org

일 주 문



청송 영천암서 법문

정일 선학원 이사장은 15일 청송 영천암에서 '미혼모 보호시설 건립 발원' 칠석법회에 초청돼 법문한다.



괌 KAL기 참사 천도재

혜성 서울 도선사 회주는 97년 대한항공기 추락사고 5주기 천도재 봉행을 위해 6일 괌으로 출국했다.



구룡사 천불전 착공법회

원행 치악산 구룡사 주지는 7월 26일 구룡사 천불전 신축 착공법회를 봉행했다. 회향식은 올 11월.



중국서 '달마전' 개최

동성 마산 봉국사 주지는 5~11일 중국 서안시 섬서미술관에서 50여 점의 선화 작품을 선보이는 '달마전'을 갖는다.



고양시에 달마선원 개원

법타 스님은 7월 27일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888-13 성보빌딩 4층에 태고종 달마선원을 개원했다. (031)973-0100



판소리 '수궁가' 공연

안숙선 국립창극단 예술감독은 9일 저녁 9시 서울 국립국장 하늘극장에서 '안숙선의 수궁가'를 공연한다. (02)2274-3507

광주 불교사암연합회장 벽상스님 백양사서 영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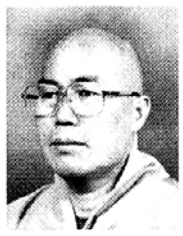


7월 25일 입적한 광주불교사암연합회장 벽상스님(광주 천룡사 주지)의 영결식이 7월 27일 장성 백양사에서 열렸다(사진). 세수 62세 법랍 40세로 입적한 벽상스님은 1962년 서옹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이래 담양 보리암 주지, 목포 정광정혜원 주지, 광주 천룡사 주지, 광주경승지단장, 광주사암연합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 불교문화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40여년 동안 대중포교활동에 전념해 왔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2차대전 강제징용 희생자 넋 위로"

현해탄서 선상수륙대재 봉행 남정 스님



2차 대전 때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던 한국인 전몰 희생자들을 위한 수륙대재가 현해탄 바다 위에서 치러진다.

차례 일본을 드나들었다. 스님은 특히 2차 대전 당시 사망한, 연고 없는 한인전몰희생자들의 유골이 안치돼 있는 도쿄 우천사에 들렀을 때를 잊지 못한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차원에서 유골 반환 운동도 벌이고 있지만 이들의 넋이라도 먼저 위로해 줘야겠다고 생각해 종단 차원의 선상 수륙대재가 성사된 것"이라고 말했다.

도쿄 우천사에는 2차 대전 당시 일제에 의해 강제 징용됐던 한인 전몰희생자 유골 1,136기가 안치돼 있으며 이 중에는 북한 출신 희생자 유골 431기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정 스님은 "수륙대재라 하면서도 대부분 물가에서 지내지 물에 들어가서 지내는 경우는 없는 것 같다"며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해마다 봉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1)592-8891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해마다

9월 28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현해탄 수륙대재 및 일본 성지 순례를 떠나는 대한불교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사진) 스님은 "선망부모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꽃다운 나이로 무참히 희생된 넋들을 위로하기 위한 수륙대재를 현해탄 선상에서 봉행하겠다"고 말했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기도 한 남정 스님은 한일 불교 교류를 위해 여러

"영상포교로 지역불교 활성화"

'불교TV 부산방송' 대표 정암 스님



"불교TV의 인지도와 위상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각오로 수지타산보다는 지역불교의 활성화와 영상포교에 주력할 것입니다."

1일 불교TV 부산방송 대표로 임명된 정암(기장 해동용궁사 주지 · 사진)스님은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불구, 대표직을 수락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14일 부산 초량동 해봉빌딩 6층에서 사무실 개소식 및 취임법회를 갖는 정암스님이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불교TV 부산방송의 인지도 높이기. 이를 위해 스님은 7월 25일 불교TV 부산방송 운전불자회를 창립하고 회원 190명을 '움직이는 홍보인력'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불교TV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불교TV의 존재를 알리고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스님은 교통이 편리한 초량동 사옥 공간을 이용, 문화센터나 법회 등 불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이다.

스님은 매월 음력 3일 큰스님 초청법회, 음력 7일 성지순례, 매주 화요일 불교교양대학 개최를 비롯 다도 강좌, 합창단 등을 운영하며 문화를 통한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암스님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동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방송(www.kbi-tv.com)와의 공조로 부산불교계 소식을 충실히 담아 전하는 등 영상 포교와 정보 전달의 1번지가 되겠다"고 말했다.

부산= 천미희 기자

14일 사무실 개소 및 취임식

"간병 신심 · 사명감 없인 힘든 일"

자비 간병인교육대 설립 정환 스님

"주위 스님이나 신도들이 병마와 싸우는 것을 보면, 안타까와 그냥 두고만 볼 수 없었습니다."

불교대구교육원 빌딩 내에 자비간병인교육대학을 설립, 5일 60여 명의 수강생이 참여한 가운데 1기 전문 간병인 양성교육에 들어간 정환스님(칠곡 송향사 주지 · 사진)은 "불교대구교육원에서 간병인센터를 운영하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간병교육의 중요성을 절감, 자비 간병인교육대학을 설



은 보건학, 중풍치매 환자 관리, 임종환자 간호 등 간병이론 외에 불교교리, 참선, 다도 등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도 중점을 둔 이론교육과 지역의 대학병원 및 준종합병원에서의 실습으로 진행된다.

불교적 소양을 가진 간병인 양성교육에 작은 원력이지만 더욱 진력해 나갈 것이라는 정환스님은 9월중에는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 10월에는 2기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라며 간병에 관심있는 불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053)255-7573

대구= 박원구 기자

직장인들 위해 야간강좌도 개설

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학원에서 보건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교편을 잡았으며, 불국사에서 불교간병인회를 조직해 초대회장을 지내기도 한 스님은 "간병은 생명을 직접 다루는 일이라 신심과 사명감 없이는 힘들다"며 "내 몸, 내 식구를 돌본다는 생각으로 신심과 전문성을 갖춘 간병인 배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2개월 과정의 불교전문간병교육

"기도하며 학교완성에 총력"

印 천민촌 기술중학교 건설 봉사 정상민 씨



"귀국하는 저를 위해 5만원도 안 되는 월급을 쪼개 선물을 사주던 인도인들을 잊을 수 없어요."

지난 28일까지 1년 동안 인도 둥게스와리 불가촉 천민들을 위해 JTS가 추진중인 '기술중학교' 건설을 지휘했던 정상민(25 · 국민대 중문학과 · 사진) 씨. 정 씨에게 1년 동안의 자원봉사 활동은 "아무 것도 모른 채 시작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과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됐다"고 한다.

정씨에게 인도에 대한 첫 인상은 "한끼 식사도 못하는 천민이 수두룩하고 밤만 되면 살인 강도가 들끓는 곳"이었다. 그런 곳에서 기술중학교 건설 책임을 맡아 게으름 피우기 일쑤인 인도인들을 감독하며, 부르는 게 가격인 암시장에서 건축자재를 구입하다 보니 어느새 인도에 대한 미운 정 고운 정이 깊어 갔다.

올 1월 인도 JTS의 건설사업을 총책임졌던 설성봉 씨가 사망한 사건은 정 씨를 비롯한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정 씨는 부처님께 기도하며 설 씨가 남기고 간 기술중학교를 완성시키기 위해 정성을 쏟았다.

7월 28일 한국에 돌아왔지만 "학교 공부에 신경 써라, 이제는 현실적으로 살 때"라는 등 주변의 걱정 때문에 오히려 즐겁지가 않다는 정 씨. 정 씨는 편안한 한국 땅보다 내년 1월 기술중학교가 개교하는 둥게스와리로 돌아가 인도인들을 위해 일하고 싶을 뿐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세상보는 안목 · 자신감 키운 계기



생명나눔실천회 사무실 이전법회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서울 종로구 청진동 삼영빌딩 401호로 사무실을 옮기고 7월 29일 이전개소법회를 가졌다. 이날 법회에는 보선(대둔사 주지), 일면(봉선사 주지)스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법장스님은 "병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생명 나누는 일에 더욱 노력해 아름다운 미래를 꽃피우자"고 말했다.



일승불교대학 1기 강좌 개강

대한불교일승종 일승불교대학(학장 혜정)은 1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일 구리시 상봉사에서 개교식을 갖고 제1기 강좌를 개강했다. 일승종 사회부장 봉덕, 교육부장 각명, 총무 정수 스님 등이 강사를 맡고 있는 일승불교대학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의식, 작법, 태평소 등의 강의를 진행한다.



포교사단 실상사서 여름수련회

조계종 포교사단(단장 김대중)은 7월 21~24일, 25~28일 포교사들의 여름 수련을 지리산 실상사에서 1, 2차에 나누어 실시했다. 포교사들은 실상사 주지 도법스님(포교와 사회활동),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사찰과 생태환경), 백남석 법사(포교사의 역할)의 강의를 듣고 생태농업 현장체험도 가졌다.



진여원 호국영령추모비 제막

조계종 직할 포교당 진여원(원장 남 보타월)은 7월 29일 중앙승가대 교수 홍선스님, 진여원 주지 주인스님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 화명 신도시내 제3근린공원에서 호국영령추모비 제막식을 가졌다. 인간문화재 김해수씨가 제작한 호국영령 추모비에는 양현식의 시 '유월 늘 깨는 강물'이 새겨졌다.

포교현장의 법사양성(3년과정)

2002년도 법사과정 경전연구원 신입생 모집

1. 교과목 및 교수

과목	요일	개설경전	교수	비고(개설과목)
불교학과 (극락장엄경) (화엄경)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극락장엄경(아미타경 무량수경)	최봉수 교수	극락장엄경 (1)(2)(3) · 법화경(1)(2)(3) · 금강경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신화엄경론(이통현장자)	한정섭 법사	신화엄경론(1)(2)(3) · 화엄경 약찬게, 법성게 · 화엄십지품
최봉수 교수의 근본불교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아함경(12연기설)	최봉수 교수	아함경 · 반야경 · 법화경 · 화엄십지품
송찬우 교수의 대승경전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능엄경(1)	송찬우 교수	능엄경(1)(2)(3) · 금강경 · 유마경(1)(2)
인도-티벳어학과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오후 7시	산스크리트어	최종남 교수	산스크리트문법, 팔리어문법, 티벳어문법, 법화경강독, 잡아함강독, 보리도차제론강독

2. 모집방법 및 전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① 불교대학(정규) 이수자 ② 불교교양대학(2년) 이수자 ③ 과목별 이수 희망자	① 입학원서 1통 ④ 불교교양대학졸업증 1통 ② 주민등록등본 1통 ⑤ 자기소개서 1통 ③ 반명함판 사진 3매	2002년 7월 20일~ 2002년 9월 9일(월) [서류전형]	• 매주 월 · 화요일 오후 7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7시

3. 개강일시 ● 불교학과 : 2002년 9월 9일(월) 오후 7시 ● 대승경전학과 : 2002년 9월 10일(화) 오후 2시 ● 근본불교학과 : 2002년 9월 12일(목) 오후 4시 ● 산스크리트학과 : 2002년 9월 13일(금) 오후 2시

4. 입학금 일십만원

5. 졸업자격 3년 과정의 부처님 법음이 가득찬 경전(매주 2강좌)을 이수한 분에게 연구원 졸업장을 수여함.

6. 원서문의 교부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 02)732-1206~8 / FAX 02)732-1207 인터넷 홈페이지 www.dongsanbud.net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전문연구원

직장인을 위한 동산불교대학(2년과정)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교육과 직장인을 위한 2년 과정을 개설!

■ 모집기간 : 연 2회(매년 2월, 8월)

■ 불교학과 : 200명(정규,주간,통신반)

불교한문학과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교수진 · 심재동 교수(동국대), 한정섭 법사 · 송찬우 교수(승가대), 무진장 스님, 김병조 교수

불교미술학과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교수진 · 윤열수 교수(문화재전문위원), · 김익홍 교수(전 동국대교수)

우리 춤학과 (매주 화요일 오후 4시)

지도교수 이애주(서울대 교수) (중요 무형문화제 제 27호, 승무예능 보유자)

1. 개강일시

2002년 9월 10일(화): 우리춤학과
2002년 9월 11일(수): 불교미술학과
2002년 9월 12일(목): 불교한문학과

2. 원서접수 및 문의 본 대학 사무국 : 02)732-1206~8

불교 교육 전문 도량 동산불교대학

2002년도 도시생활 포교를 위한(1년과정)

한글의식교육원 신입생 모집

1. 지도법사 및 교과내용

지도법사 : 권지홍 법사, 문종순 법사, 양성도 법사

한글불교의식 I (전반기)	한글불교의식 II (후반기)
◇아침,저녁으로 행하는 예경의식 ◇사시 또는 형편에 따라 행하는 헌공의식 ◇정기적으로 행하는 법회의식 ◇송주……장엄염불	◇백일, 돌, 생일의식과 결혼의식 ◇장례의식(1)……일반의식 ◇장례의식(2)……임종, 매장, 화장의식 ◇재공의식 및 영혼천도를 위한 천도의식

2.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및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 정규반 50명 (1년) • 연구반 30명 (1년) • 야간반 30명 (1년)	• 한글불교 의식 희망자 • 포교당 운영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 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장	• 2002년 9월 7일까지 (토요일)	• 매주 토요일(정규반) 오후 1:00~3:00 • 매주 수요일 오후7시(야간반)

※(연구반은 정규반 이수자에 한 함)

3. 개강일시 2002년 9월7일(토) 오후1시(정규반) 11일(수)오후7시(야간반)

4. 입 학 금 일십만원

5. 원서교부 및 접수 본 연구원 사무국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TEL 02)732-1206 / FAX 732-1207

6. 특 전 수료자는 동산의식법사 수여

불교 의식 교육 도량 동산불교의식교육원

한일병원 법우회 창립3돌 법회

한일병원 법우회(회장 이영숙)는 7월 31일 병원 대강당에서 창립 3주년 기념법회를 열었다. 법사로 초청된 도관스님(화계사 국제선원장)은 법문을 통해 "바른 믿음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병원 불자연합회와 전력인불자연합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우회는 99년 7월 창립해 3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의료봉사 등 자비인술을 펼쳐오고 있다.



동아대병원 연불회 구인사 순례

부산 동아대병원교직원 연불회(회장 박옥규)는 7월 28일 단양 구인사를 순례했다. 순례에 동참한 90여 회원과 가족들은 구인사 종무소로부터 기념엽주를 받았다. 이어 단양8경에 속하는 온달동굴과 도담삼봉에 들러 더위를 식혔다. 연불회는 매월 한차례 성지를 순례, 회원들의 신심을 다지고 있다.



건교부 불자회 기초교리 강좌

건설교통부 불자회(회장 송도근)는 7월 23일 과천 보광사에서 기초교리 강좌를 열었다. 이날 강좌는 '계율관과 불교역사'를 주제로, 교양대학 등에서 오랫동안 공부해 온 송도근 회장의 강의로 진행됐다. 건교부 불자회는 회원배가 운동을 벌여 회원확대에 나서는 한편 신입회원 담당부서를 새로 만들어 체계적으로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달빛속 은은한 부처님 모습 보고 또 봐도 너무 좋아요"

한전 반야회 경주 남산서 '달빛기행'

"각도 따라 달라지는 석불모습에 감동" 문화재 설명듣고 피리연주도 감상

7월 20~21일 경주 남산에서 열린 '달빛기행'에 초등학교 4학년인 딸과 함께 참가한 정문영(한국수력원자력 성과관리팀) 씨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냉골 마애여래입상을 보고 마치 부처님이 사바세계에 화현한 듯한 느낌에 환희심이 들었다. 수많은 사찰을 다니면서 많은 부처님을 보았지만 색다른 감동이었다. "감로수와 같은 법문을 들은 것 같아 소중한 기억으로 오래 간직하고 싶다"는 것이 '달빛기행'을 마친 정 씨와 딸의 이구동성.

'번뇌와 망상을 버리고 예토를 정토로 일구는 불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널려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불교유적이 산재한 남산에서 은은한 달빛 아래 계송이 울려 퍼졌다. 목이 없는 냉골 석조여래좌상 앞에서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채 인간들의 욕심을 참회하기도 했다.

한전 반야회(회장 이인규)는 회원들과 방학을 맞은 자녀 10여명, 타종교인 6명 등 30여명이 참가한 경주 남산 문화유적 답사 '달빛기행'을 다녀왔다. 삼릉골이라 불리는 냉골을 따라 정상까지 오르는 코스였다.

불국사 답사안내 모임인 구품연지회의 안내로 이뤄진 이날 기행은 5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달빛에서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선각육존불의 오묘함은 선조들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라는 문화해설가 권영현 씨의 자세한 설명과 태평소, 피리 연주는 참가자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다.

한국전력 인터넷게시판에 올려진 홍보문을 보고 참가했다는 이현동(남동발전 경영관리팀) 씨. 같은 직장에 근무하면서도 바쁜 업무로 인해 친분을 나눌 일이 없었던 그에게 달빛기행은 모처럼 마음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됐다. 불교에 대한 관심을 믿음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늘 아쉬워하는 이 씨에게 이날은 도반으로서의 정을 돈독히 쌓는 날이 되었다. 이현동 씨는 "은은한 달빛을 머금은 야외의 부처님을 보는 순간, 달빛 속에 부처님이 담겨있는 것 같아 눈을 비비기도 했다"고 털어놓았다.

'달빛기행'은 청소년과 타종교인에게도 불교를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도록 딱딱한 느낌의 성지순례를 대체한 프로그램. 일정도 직원 자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학기간에 맞춰 잡았다. 반야회는 겨울방학에는 석굴암 일출 프로그램도 계획하고 있다.

반야회 이순형 구도부장은 "달빛기행을 틀에 박힌 성지순례를 대신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다른 직장불교회들도 의례적인 성지순례에서 벗어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도한다면 회원들의 더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한전 반야회는 7월20~21일 경주 남산을 답사하는 '달빛기행'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선각육존불 앞에서 불꽃을 밝힌 채 서원을 올리고 있다.

법회등 종교행사 적극 후원

성북경찰서 성불회 '서포터' 김병철 서장

성북경찰서 불자모임 성불회(회장 민철기) 법회가 열린 7월 24일 오후 7시 개운사 법당. 김병철(46 · 사진) 성북경찰서장을 비롯한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법회에 참석했다. "마음을 순화시키고 부하 직원들과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는 종교행사에 참석해야 한다"는 김 서장의 권유 때문.

전직원 대상 스님초청 특강 계획

'경찰청 문화재 지킴이' 결성 주도

김 서장은 성불회 법회가 열리는 날에는 다른 일정을 잡지 않는다. 성불회 회원이 아니면서도 법회에 참석하는 나름대로의 이유는 "관심이 있어서"다. 이같은 김 서장의 열성적인 참여와 후원은 성불회 불자들의 활동에 큰 힘이 되고 있다. 김 서장은 경승실장 정수스님에게 간부들과 성불회 불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찰체험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놓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신 · 심성교육을 위한 스님 초청 강연도 계획하고 있다.

경찰청 진흥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에는 '문화재지킴이'를 결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미국 연방수사국, 인터폴 등과 협조, 해외로 유출된 불교문화재의 매매가 이뤄지지 못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경찰에 몸담기 전 김 서장은 경주 주사암에서 공부를 했다. 예불에는 꼭 참석했고, 반야심경과 천수경을 외우기도 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절에서 공부했을 때"라고 말하는 김 서장은 주사암에 있던 혜법스님에게서 '무'자 화두를 받아 지금도 틈날 때마다 화두를 든다.



김 서장은 불교관련 서적도 자주 읽는다. 스님이나 사찰 이야기를 읽다보면 마음이 청정해지기 때문이다. "공직자로서 원칙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김병철 서장은 퇴직 후에는 본격적으로 마음수행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경남불교관련 정보 이곳에

공무원불자련, 홈페이지 개설 포교 나서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공창석)가 최근 홈페이지(www.gngb.or.kr)를 개통하고 사이버 포교에 나섰다. 지난 6월 19일 임시 개설한 뒤 2개월의 시험 운영 후 내용을 보완, 완전 개통한 것.

홈페이지에는 단체 소개는 물론 경남지역 사찰정보, 사이버 법문, 기본교리, 현대 고승열전, 게시판 등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게시판에는 도청불자회와 시 · 군 불자회 마당 등 법회 소식과 행사 알림난을 두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공창석 회장은 "같은 지역에 있으면서도 실질적인 교류가 어려운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를 나누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제작했다"면서 "직장에서 있을 수 있는 작은 일도 함께 공유하는 공간으로 꾸며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지역 공무원불자 매월 1회 연합법회 갖기로

정부3청사 반야회와 충남도청 불자회,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는 1일 둔산 풍백제불교회관에서 합동법회를 개최하고 매월 한차례 연합법회를 갖기로 했다. 대전시청과 5개 구청 불자회로 구성된 대전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곽무영)와 충남도청, 대전청사 반야회원 100여명이 참석해 연합회 확대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한편 "지혜를 완성하는 요체를 말씀하신 경"을 주제로 이평래 충남대 교수의 반야심경 강좌도 열렸다.

지역회간 유대강화 운불련 운영회의

한국운전기사불자연합회(회장 김주본)는 7월 25일 부산 동명불원에서 제2차 운영회의를 열고 지역회간 유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2개 지회 중 광주, 대구, 안양, 제주 등 18개 지회가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1인 1불자 만들기운동 전개, 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지역회간 교류 강화, 법회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우리 모임에선

국회직원신도회 창립20돌 법회

국회정각회직원신도회(회장 김종환)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28일 국회내 정각선원에서 무여스님(봉화 축서사)을 초청해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전직 임원단과 퇴직한 회원들도 초청, 선후배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소보원 법우회 길상사서 법회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우회(회장 신동구)는 18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법회를 갖는다. 이날 법회에서는 길상사 회주 법정스님의 법문을 들을 예정이다. 지난 4월 창립한 법우회는 20여명의 회원중 대부분이 초심자인 점을 감안, 매월 정기법회를 열어 불교의 이해를 돕고 있다.

행자부 불자회 대각사 108배 정진

행정자치부 불자회(회장 신기윤)는 2일 서울 종로 대각사에서 108참회 등 특별정진법회를 열었다. 대각사 주지 흥교스님이 법문한 이날 법회에는 김중양 공무원불자연합회 고문을 비롯해 감사원과 국무조정실 불자회 등 50여명이 동참했다.

삼화불교대 학생 모집

1.모집학과 및 안내 ■각과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개호복지사과	2년	■주간30명 ■통신80명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5매	· 각 종단 승려 포교사 · 30세이상 이력서 전형 가능
불교학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통신80명		
	4년	■통신80명		
불교미술(문화재)과	2년	■주간30명 ■야간30명		
	4년	■주간30명 ■야간30명		
포교사과정	2년	■야간30명		

2.학교연혁

1989.7. 삭원설립공고
1990. 삼화불교대 불교학부, 유아교육부 개설
조계종 포교사 137명 자격 취득
1991.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수
조계종 포교사 148명 자격 취득
1992. 제1회 졸업생배출(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 취득)
1993. 불교미술과 ·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조계종 포교사 142명 자격 취득
1994.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132명
조계사 포교사 183명 자격 취득
1995.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분교 체결 — 중국어과 개설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6.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7.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8.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1999.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0.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 조계종포교사 자격취득
2001. 1. 개호복지사과 개설
2001. 9. 중국 한의대 본과 34명 합격
2002. 2. 제11회 졸업생 배출
2002. 9. 중국 한의대 본과 50명 합격(예정)

3.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과정 입학가능
· 개호복지사과 2급 자격취득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한의대) 본과 입학가능

4.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2002년 8월 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우편당일 소인 유효)

5.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02)511-2026-7 FAX.02)511-2028
인터넷 홈페이지 : www.samhwade.com
E-mail : samhwadea@hanmail.net
· 일본동경분교 : TEL. 047-376-1321, 132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 화 불 교 대**

한 의 과 대 학

1 남경중의약대학

9월 본과(학사) ■석사 · 박사 약간명 모집

학 과	학제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고등학교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건강진단서(영문) ◇대학 졸업자(전공불문) ◇최종학교 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통(영문) ◇입학신청서 1통(소정양식) ◇여권용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학사 졸업자 한함	

2 학교 소개

▶ 중국 최고 국립한의과대학 ▶ 한국한의사 시험 2005년3월예정(국회법통과)
▶ WHO 국제전통의학 협력센타
▶ 부속병원 3, 제약공장, 교육병원 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가능
▶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EDU.CN

3 원서교부 및 전형방법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2002년 8월 23일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4 문의처

· 중국 남경중의약대학 석사과정 졸업자는 중의사고시 시험가능 1년인턴
주소:中國 南京 漢中路 282 南京中醫藥大學
전 화:25-6798167 팩스 : 25-6798168
· 한국상담 안내처 : 삼화불교대
전화 : 02-511-2026~7 팩스: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samhwade.com

◈ 교육부 학력인정 ◈
고등학교과정 학생모집

여러 사정상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하신 분 연령 관계 없음

■각 학년 편입생 약간명 모집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고등학교 과정 각학년 편입가능	3년	주간·야간
중학교 과정	3년	주간·야간

■ 졸업 후 각 대학에 입학 가능함. 정규 고등학교와 교육제도 같음

■ 특전 :
성적우수자 조기졸업 가능
2002. 8. 23

■ 문의처
135-887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TEL : 02) 511-1080
FAX : 02) 511-2028

대한불교조계종 삼화학원 **삼화불교대**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8월-용맹정진의 달
· 해태심의 극복
· 날마다 발심하기
· 정진의 방편
· 쉼없는 수행

해태심의 극복



◇여름수련회에서 참선정진으로 일상에 찌든 몸과 마음을 추스리는 불자들. 사진은 해인사 수련회.

지친 몸과 마음 추스르기
여름 수련회 최고방편

무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지쳤다. 한해의 반을 훌쩍 넘은 이맘 때 쯤 이면, 새해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하나둘씩 꼬리를 감추기 쉽다.

생활 속에서 열심히 수행 정진하며 불자로서의 참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했던 이들이라면 지금 자신의 자리를 되돌아보자 시작이 반이요, 초발심이 곧 깨달음이라 하지만, 나머지 반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발심조차도 의미를 잃는다.

부처님은 〈법구경-방일품〉에서 '방일을 스스로 금하고/능히 물리쳐 어질게 된 이는/이미 지혜의 누각에 올랐으니/위태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다'고 하였다. 다시 한번 뜻을 세우고, 나태해진 일상을 추스르자. 게으른 마음은 흐트러진 생활습관에서 부터 비롯된다. 순간순간에 집중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며 자기 자신을 조금 더 엄격하게 대하자. 뼈를 깎는 고통과 노력 없이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달마선사에 이어 중국 선불교의 제2조가 된 혜가선사는 눈 내리는 날 달마를 찾아가 법을 구했다. 혜가선사는 "천하에 붉은 눈이 내릴 때 제자로 삼아 주겠다"는 달마선사의 한마디에 조금의 주저도 없이 자신의 왼쪽 팔을 잘라 흰 눈을 붉게 물들였고, 선불교의 법을 이었다. 깨달음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팔을 자른 혜가선사의 용맹심을 본받아 자신을 곧추 세우고, 거듭 정진해야 할 때다.

올해도 전국 150여 사찰에서 수많은 불자들이 화두를 붙들고 정진 하고 있다. 몸과 마음을 쉬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수련회야 말로 더위로 일상에 찌든 현대인들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는 최고의 방편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이라도 가까운 사찰 수련회를 찾아 일상의 게으름을 떨쳐내자. 해태심(懈怠心)은 바로 끊임없는 정진으로만 극복할 수 있다.내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정진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땀 흘려 정진하는 이들에게 여름은 짧다. 우리의 몸과 마음, 삶의 본성을 찾고 바로 보기 위해 부처님 말씀 따라 정진 또 정진하자.

"게을리 지내지 말라. 나도 게을리 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탈을 이루었다. 한없는 좋은 일은 게으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법에 의지하여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열반경〉

이은자 기자

신행 캘린더

8월 7일 (수)

■세계연꽃전시회=세계의 연꽃을 감상할 수 있는 세계연꽃전시회가 25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서울종합촬영소 내 운당(雲堂)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50여 종의 연꽃을 감상하고 연꽃을 재료로 만든 연반(蓮飯), 연자죽(蓮子粥), 연엽주(蓮葉酒) 등의 음식도 맛볼 수 있다.(02)3443-2513

■'마음 · 붓길의 자유로움展'=해인사가 김양수 화백을 초청, '마음 · 붓길의 자유로움' 주제의 전시회를 마련했다.

해인사 구광루에서 20일까지 열릴 예정. 질박한 수묵화의 절제미와 여백미를 함께 느낄 수 있는 좋은 기회.(02)487-7759

8월 9일 (금)

■용진신행회 '성지순례'=오대산 적멸보궁 상원사와, 월정사, 남대(南臺) 지장암을 찾아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있는 오대산 상원사는 조계종 초대 종정 방한암 선사의 선풍을 느낄 수 있는 곳.

용진신행회는 오전 6시 30분 을지로 5가에서 출발, 상원사에서 사시마지를 봉행하고 지장암과 월정사를 참배한다. 참가비는 2만원.(02)2279-1191

8월 10일 (토)

■대원사 '여름명상음악캠프'=한여름밤 서늘한 산사에서 맞는 명상음악의 향연.

보성 대원사가 9월 5일까지 매주 주말마다 명상음악가들의 공연을 마련했다. 10일에는 광주 재즈오케스트라 유상호씨가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채광자, 태베트인 명상음악가 나왕케촉, 김범수씨 등의 명상음악 공연도 계속된다. 참가비는 2만원.(061)852-1755

8월 13일 (화)

■불교TV '유식삼십송 강의 수련회'=고대 인도 불교학자 세친(世親)의 유식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불교TV는 온양 보문사로 금강선원 주지 혜거스님을 초청, 유식학을 배우는 불교강의 수련회를 마련했다. 혜거스님은 올 3월부터 시작한 불교TV 강연에서 못 다한 유식학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줄 계획이다. 참가비는 6만원. 오후 2시까지 보문사로 모이면 된다.(02)3270-3366

8월 14일 (수)

■EBS '관세음보살 주제 강연'=미국 유니온 신학대학 현경 교수가 오전 10시 EBS 21세기 여성특강 프로에 출연, '지혜와 자비의 치유사 관세음보살'을 주제로 강연한다.

현경 교수는 현대 여성들이 관세음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가에 대해 강연할 계획이다.(02)526-2000

■본동종합복지관 '아동문화기행'=본동종합복지관은 매달 어린이들과 함께 떠나는 문화기행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달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을 견학하고 서울랜드 야외수영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낼 예정이다.

참가비는 매월 1만원. 출발은 오전 9시 30분 복지관 앞.(02)817-8052

■인각사 '일연문화제'=일연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했던 장소인 군위 인각사가 스님을 기리는 '일연문화제'를 14~16일 3일 동안 개최한다.

14일 학술세미나, 15일 태평무 무형문화재 홍진희 씨와 살풀이 무형문화재 오미자 씨의 공연, 염무웅 교수의 시강연 및 시낭송회, 16일 제713주기 일연스님 다례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054)383-1161

우리 절 우리 신도

"힘들수록 서로 돕자" 봉사철학

부산 미룡사 자비원 장일선 후원회장



〈몇년전부터 후원을 해오고 있는 성우원을 방문,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 원생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일선보살(가운데).

"어려운 이웃 내 가족처럼" 자비실천 생활화
회원 230명 후원금 내 구치소·요양원 방문

부산의 재래시장인 자유시장에는 상인들에게 '당당하게' 돈을 걷는 사람이 있다. 크고 작은 가게의 주인부터 풀빵을 파는 사람까지 그 사람이 '떴다' 하면 두말없이 주머니돈을 털어낸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더욱 당당하게 돈을 내라고 하는 주인공은 장일선(47 선덕화) 미룡사 자비원 후원회 회장. 장 회장이 걷으러 다니는 돈은 자비원 후원금이지만 돈을 내는 사람들은 '어디에 쓸 것인지'를 전혀 묻지 않는다. 다만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에 맞춰 돈을 모아 장 회장에게 건넬 뿐이다. 사람들은 그만큼 장 회장을 믿는다.

85년 미룡사와 인연이 된 장 회장이 자비원 후원회장을 맡은 것은 86년. 그러니까 정확히 16년을 한결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가 도움을 주었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오랫동안 보아왔기에 장회장이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안다.

"어려운 사람이 힘든 형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울 형편이 되면 돈을 내라고 합니다." '힘든 때일수록 서로 돕자'는 것이 장 회장의 봉사철학이다.

처음 자비원 일을 맡을 때만 해도 불교계에서 봉사나 복지 사업을 하는 곳은 드물었다. 장 회장 역시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해오다 소외된 곳에 도움을 주고자 설립된 자비원의 취지를 알고는 마음을 돌렸다.

'불교도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반가운 마음으로 무작정 일을 시작했다는 장 회장은 우선 후원회 활성화부터 서둘렀다. 자비의 종소리 모금을 계기로 매월 2천원의 희비를 내는 후원회원을 모집했고, 이제는 월 희비 1만원을 내는 회원이 230여 명이나 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런 든든한 후원자들을 바탕으로 자비원은 구치소, 교도소 교화, 마산결핵요양원 후원, 외국인 노동자와 명절같이 보내기, 독거노인 후원, 장학금 지급, 새생명광명회 후원, 중국 연변 언론인 초청 한국 연수 등의 사업을 전개해왔다.

후원회의 봉사는 비단 재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장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장기 및 시신 기증을 서약했을 정도로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다. 덕분에 육화신행회, 육바라밀회, 염불신행회 등 미룡사의 다른 신행 단체들도 자비원 후원회 일이라면 적극 나서고 있다.

장 회장은 단 한사람이라도 깨닫지 못한 중생이 있으면 성불하지 않겠다고 발원한 불보살의 서원을 늘 되새긴다. 자유시장에 생업을 갖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돈버는 일은 부업이고 본업은 봉사"라고 할 정도로 단 한사람이라도 어려운 이들이 있는 한 이 일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각오다. 조방연등회, 불교방송나눔회, 재리시장 상가회 등의 봉사에 내는 후원금이 만만치 않지만 '부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절반 이상을 내놓을 정도로 장 회장의 이웃 사랑은 남다르다.

자비원 총무로 10여년 장 회장과 함께 일해 온 최순옥 보살은 "남 어려운 거 못보고 있어요. 그냥 지나가지 못하니 여태껏 해왔지, 아니면 힘들어서 진작에 그만두었을 거예요"라고 말한다.

대학생인 두 딸 지혜, 지영이도 든든한 후원자이자, 몸으로 뛰는 봉사자들이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지영이와 함께 본격적인 복지사업을 펼치겠다는 원을 세운 장 회장은 가까운 시일내 사회복지학을 공부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았다.

"부처님법 만난 것이 고맙고, 또 부처님법을 실천할 수 있어 고맙다"는 장 회장. 한 생 태어나지 않는 셈 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각오를 매일 다진다.

부산=천미희 기자

추천의 말

정각스님 미룡사 주지



장 회장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이 마산결핵요양원에서 결핵환자들에게 밥도 해주고, 함께 밥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주던 모습입니다. 전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는 아랑곳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장 회장은 자리이타의 정신이 살아있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보살입니다.

특히 불교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봉사활동의 기쁨과 보람을 전하는 봉사를 통한 포교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신심이 돈독하고 사명감이 투철한 장 회장은 자신보다는 그늘진 이웃을 위하는 실천이 생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덕분에 형편이 어려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자비원 복지사업도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불철주야 힘쓰고 있는 장 회장에게 이 자리를 빌어 고마움을 전합니다.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

제2회 명예 (박사) 학위 취득 연수

세계불교 중심지이며 불교의 극락이라 불리는 미얀마 아우미따지 대학원에서 제1회 박사 학위를 취득하신 분들의 요청에 의해 다시 한번 연수교육을 실시 하게 되었습니다.

❖ 교육과목 – 백침술(100%확실하게 살빼는 속효 법)
정통사주학, 관상학, 독성법,
비방단침술, 특수기공도통법
❖ 지원자격 – 학력, 나이 관계없음(선착순 25명)
❖ 제출서류 – 등본2통, 사진5장, 여권, 비자, 지원서1통
❖ 접수기간 – 양력 7월 15일 ~ 8월 26일까지.
(일정은 앞당겨 질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양력 9월 1일 ~ 6일 까지(5박6일)



전화 031)867-4131 , 011-214-4135 , 018-370-4133

MYANMAR, YANGON

yangon office : 5b 3b floor, kamayut, townshlp 2ayarthlrl rd,

아우미따지 불교성도대학 한국분원 사무국

설정스님 초청 "달마관심론", "선경어" 특강

수덕사 발심회에서는 설정스님을 모시고 "달마관심론", "선경어"를 보고자 합니다. 선원에서, 때로는 소임지에서 바쁜 나날을 지내며 정진의 마음을 잡고 지내다보면 옛 선사스님들의 어록을 보아도 글과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발심회에서는 지난 수년간 설정스님을 모시고 선 어록을 보아온 바, 이제 좋은 인연이 익어져 "달마관심론"과 "선경어"를 들을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제방의 뜻있는 모든 스님들에게도 이 귀한 인연을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하시기를 권합니다.

강의동참안내

◘ 일 시 : 불기 2546(2002)년 8월 23일 ~ 27일(음 7월 15일 ~ 19일)
(입방접수 23일 오후 7시, 입재 24일 오전 7시, 강의 24일 오전 9시)
◘ 장 소 : 덕숭총림 수덕사 황하정루
◘ 수강료 : 3만원, 교재비포함
◘ 준비물 : 가사, 필기도구 및 개인용품
◘ 문의처 : 041)634-6777, 041)632-8917(용봉사)

■주 관 : 수덕사 발심회 ■후 원 : 대한불교 조계종 덕숭총림 수덕사



불교대학을 찾아서

⑨ 영남불교대학



◇매주 월요일 오후 2~4시에 열리는 법화경 사경모임. 정신 집중력과 선근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92년 전세로 출발 10년만에 7층 학사 마련
졸업생 5만여명…매학기 신입생 3천명
포교사 합격률 78%선, '종합포교의 장' 서원

영남불교대학(학장 우학, 관음사 주지)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최고' 내지 '최대'라는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는 힘들다.

92년 5월, 3천만 원짜리 전세 건물에서 출발한 영남불교대학은 불과 10년만에 7층 건물로 거듭났다. 졸업생만 5만여명이 넘어섰고, 매학기 3천여명 이상의 신입생이 몰리는 전국 최대규모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신심있는 불자, 지적인 불자, 행동하는 불자, 포교하는 불자가 되자'는 네가지 신행목표를 이루기 위해 출발한 영남불교대학은 '신, 해, 행, 증(信解行證)'으로 표현되는 부처님 정법을 교육과 신행활동으로 풀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영남불교대학의 교육은 1년과정의 기초반과 2년, 4년과정의 경전반 외에도 통신과 인터넷 특수과정으로 이뤄져 있다. 정규과정의 기초반에서는 불교학개론, 예불, 반야심경 등의 기본적인 불교교리 및 예법에 대해 가르치며, 경전반에서는 천수경, 금강경, 법화경 등 불교경전을 교육한다. 특수과정은 불교를 배우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정규과정과 같은 교육내용을 제공한다. 특히 인터넷 과정은 네티즌 불자들의 많은 관심을 얻고 있으며, 가입자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영남불교대의 강좌가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최근 불교교양대학을 많이 찾고 있는 30~40대 고학력 불자들의 요구에 부응, 우수한 강사진으로 수준높은 교육내용을 제공한 것이 수강생들의 입을 통해 널리 전해지면서부터다. 실제로 대부분의 교육은 가능한 학장인 우학스님이 직접 강의했으며 그외 자광스님(김룡사 주지), 심중스님(부산 자비사 주지) 등 교수급 강사진으로 구성돼 강의가 진행됐다.

또 교리공부 뿐만 아니라 무의탁 노인돕기, 병원봉사단 활동, 상담전화 운영 등 10여가지가 넘는 봉사프로그램을 마련해 신행공간의 기능도 하고 있다. 교육과 수행을 병행, 재학생 대부분이 1가지 이상의 봉사모임에 가입돼 있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2001년 졸업생들의 포교사 고시 합격률이 78%에 육박, 전국 최고를 기록해 교육의 질 또한 최고수준임을 증명하면서 영남불교대학은 명실상부한 지역을 대표하는 불교교양대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런 성공이 있기까지는 직접 교재 및 교육과정을 만들며 신도교육의 한길을 걸은 학장 우학스님의 원력이 남달랐을 뿐 아니라, 사찰 재정을 신도들에게 공개하는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불자들도 마음놓고 동참할 수 있었던 분위기 제공이 한몫했다.

인기 불서인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의 저자로 더 잘 알려진 영남불교대학장 우학스님은 "다음 불사의 목표는 유치원과 양로원을 포함하는 종합복지관을 세워 모든 세대가 한곳에서 배움을 회향할 수 있는 종합포교의 장을 만드는 것"이라며 청사진을 밝혔다. (053)474-8228

대구=박원구 기자

상담제일 보살 불기닦기 팀장
26기 김자비심 보살



"신행상담을 하면서 열심히 배운 불교교리를 응용하고 있어 기뻐요."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영남불교대학 26기 김자비심(51) 보살은 영남불교대학 부설 상담실에서 매주 목요일 정성껏 상담 자원봉사를 하는 일명 '상담 제일 보살'이다.

매주 법화경 사경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김 보살은 불기닦기 모임의 팀장도 맡아 힘든 일은 도맡아 하고 있다.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아내 간병·생활고…고달픈 삶 81세 할아버지

늘어나는 약값 한숨만

할머니 20년째 중풍 · 두아들 행불
길거리 고물수집 하루하루 힘든 생활

7월 26일,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자칭 '가정주부'라는 할아버지와 '심통장이' 할머니가 티격태격 살고 있다. 성북구청 맞은편으로 나 있는 '고운 길'. 한적하기 그지없는 그 길을 돌아서면 첫 번째가 이들 팔순 노부부의 집. 고물상 집게 차가 쏟아내는 굉음이 슬레트 지붕의 단층집을 휘감는다. 왼쪽은 고물상 공장, 오른쪽은 재활용 용품 집하장. 일어 선 채 주차(?)된 여러 대의 리어카. 얼핏 보아 '집'이 아닌 '창고'처럼 보인다.

윤영오 할아버지(81)가 방바닥을 훔쳤을 걸레를 들고 문을 빼꼼히 열고 나와서야, '사람 사는 집'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골'이 잔뜩 난 민영옥 할머니. 신발 두 짝이 또 바뀌어 신겨졌다. 민 할머니 '핀잔'에 윤영오 할아버지가 머쓱하게 웃고 있다.

"여기서 산 지 30년도 훌쩍 넘었어"라며 말을 건네는 윤 할아버지. 자연스레 시선이 민영옥(78) 할머니에게 옮겨진다. 할머니, 말이 없다. 아니 말을 못하고 있다. 20년 째 앓고 있는 '뇌병변 장애', 일종의 중풍이다. 말도 못하고, 말귀를 잘 알아듣지 못하니, 묻는 말에 연신 민 할머니는 손사래짓뿐이다.

"지팡이 짚고 바깥에 나가 운동 좀 하라고 해도, 도통 말을 듣지 않아. 고혈압 약도 이제는 사먹어야 하는데, 운동이라도 열심히 하면 좋으련만…."

길어지는 윤 할아버지의 잔소리. 사실, 민 할머니는 4년 전, 큰일 치를 뻔했다. 길을 지나다 차에 치인 것이다. 비켜달라는 경음기 소리, 민 할머니가 들었을 리는 만무. 그 때 받았던 보상금 1백만 원으로 샀던 '휠체어'. 윤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진다.

교통사고 이후, 할머니는 방안 신세만 지게 됐다. 이러다보니 밥하고 설거지하고, 씻고, 심지어 '싼 뒤치닥거리'까지 고스란히 윤 할아버지 몫. 할머니 병간호는 물론, 생활고 해결을 위해 길거리 폐지와 고물 수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윤 할아버지의 손을 거친다.

"내가, 집사람 '엄마' 야! 아침에 변비약 한 알 먹이고, 저녁엔 고혈압 약 두 알 먹이고…, 정부에서 주던 약을 이제는 사먹어야 돼. 위장약이며, 소화제며, 변비약까지. 집사람이 변을 못 보면 혈압이 올라가 큰일 나거든. 그런데 이 할망구가 약 먹을 때마다 투정만 부려."

사실, 이들 노부부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다. 하지만, 연락도 없이 얼굴 못 본 지도 10년이 넘었다. 막노동하다가 크게 다쳤다는 소문만 들었다.

"잘들 살았으면 좋겠어. 공부도 못 시켜주고, 가난만 물려줬으니…, 부모 맘에 미안한 생각만 들어. 찾아오지 않아도 잘들 만 살면 고맙지 뭐."

윤 할아버지, 씁쓸해진다. 요새 들어 윤 할아버지는 돈 주고 사먹어야 할 약값 걱정이 태산이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받아오던 약들이 국민기초수급자 무료 조제목록에서 빠지게 되었다. 그럭저럭 정부지원금 30만원으로 살던 터에 늘어난 약값 걱정에 윤 할아버지의 한숨이 길어진다.

'아이' 처럼 웅크리고만 있는 민 할머니. 윤 할아버지가 신발을 신겨준다. 답답한 마음에 바깥으로 나갈 모양이다.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3가 1번지

전화번호 : (02)921-9183

후원계좌 : 새마을금고 03-95-0238-01-4(예금주 윤영오)

김철우 기자

시인 김홍성의 네팔사는 이야기



〈8〉 풀잎위 비맞는 달팽이

더덕내음 숲 · 고란초 바윗길 느릿 걸으며
섭한 인연 놓지 못하는 쩨쩨한 나를 본다

비 그치고 풀벌레 우는 소리 다시 들린다. 흰머리 자라는 귓가에 작은 달팽이처럼 느릿느릿 흘러내리는 눈물 한줄기….

옛날이 된 어린 시절의 장마는 길었다. 아니 짧았는지도 모른다.

날마다 툇마루 앞에 떨어지는 낙숫물은 방울방울 모래를 파냈다. 모래를 파내며 하얗게 흘러갔다.

지난 여름 낙가르준 삼십리 숲길에서는 푸른 매미들이 숲 그늘을 흔들며 울었다. 매미들은 그렇게 한 세상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걸음 앞에 솔방울처럼 떨어져 뒹굴었다.

신령스런 호수 코사이쿤트로 이어지는 산길을 걸었던 지난 가을, 그리고 설산 안나푸루나에서 내려오던 엊그제도 문득 산길에 정이 든 나를 발견했다.

사람에게, 동물에게, 꽃에게, 또는 물건이나 행위에게 정을 주는 일은 때로 실망과 아픔을 주었지만 산길은 언제나 내 발길을 묵묵히 허락해 주었다.

더덕 냄새나는 숲길과 고란초가 자라는 바윗길, 안개가 난향을 머금고 피어나는 능선길, 바람이 설산의 눈 입자를 실어오는 저 높은 고개 마루….

그런 길을 걸으면서 쌓인 정이 깊었나 보다. 그 산길을 다시 묵묵히 걸어 보고 싶다. 오직 숨을 조절하는 데만 몰두해야 하는 설산과 설산 사이의 하늘 고개를 향해 오르는 산길, 그리고 다시 속세를 향해 내려오는 산길에서 나는 용서에 대해서도 생각했다.

나를 섭섭하게 했던 모든 인연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런 섭섭함을 하나도 안 놓고 사는 아주 쩨쩨한 인간인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다.

'아직도 쥐고 사냐'라는 어느 스님 말씀이 저 산길 위의 깊고 푸른 가을 하늘에서 뇌성처럼 울렸던 것도 그렇게 많은 날들을 산길을 걸어 오르고 걸어 내려온 까닭일 것이다.

혹 나에게 섭섭함을 가진 누군가가 있다면 이제 나를 용서해 달라. 나는 많이 울었다. 나는 매미들보다 더 많이 울었을지도 모른다.

아무리 비참해진 인간도 한 때는 다른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누구나 그 때를 그리워한다. 나 또한 그렇다….

그래서 나는 다시 산길을 걸어야 한다. 풀잎에 붙어 비 맞는 달팽이처럼 저 눈보라 치는 고개를 향해 느릿느릿 걸어야 한다.

2002학년도 후학기 대원불교대학 입학안내 직장인을 위한 야간대학

- 교계 최초로 1972년 설립된 본 불교대학은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대중화를 위한 불교지도자와 법사 양성을 위한 야간 2년제 전문 과정임(30년 전통 2000여 동문 졸업 및 500여 법사 배출) -

● 강의시간 2002년 8월 26일 개강 주 4일 출석(월화수목), 필수 : 5과목, 선택 : 2과목 강의(야간수업)
● 지도교수 최봉수(동국대), 장휘옥(동국대), 허경구(동국대), 김사업(동국대), 김종욱(동국대)
● 불교의식실수 특별초빙교수 마일운스님(법패전승자)
● 교육과목 (※ 2년간 불교의식 실수 및 동·하계 수련회[2박 3일] 개최)

1학년	1학기(14주)	· 불교학 개론 · 인도불교사 · 불교경전개설 · 연대불교윤리
	2학기(14주)	· 원시불교 · 아비달마(구사론) · 반야사상 · 불교의식 실습 · 선사상
2학년	1학기(14주)	· 유식사상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원전강독 · 불교와 철학
	2학기(14주)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정토사상 · 우리말불교의식

● 모집 및 전형(2년제 야간 - 출강 · 통신과정)

모집과목 및 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전형방법
· 불교학 출강 00명 · 불교학 통신 00명	· 체계적으로 불교교육을 원하는 자 · 대중불교 지도자 자질 보유자	· 입학원서(소정양식)1부 · 주민등록등본 1부(사진3매)	- 서류전형 - 합격자 개별통지
· 불교학 편입 00명	· 타불교 대학과정 졸업자(2학년 편입)	· 불교대학 졸업장 사본(편입생에 한함)	- 편입생은 2학년과정으로 입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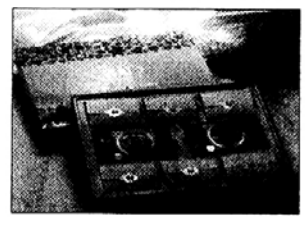
● 원서교부 및 접수 2002년 8월 23일까지(금) 본 대학 교무과(수시모집)
● 개강일시 2002년 8월 26일 오후 6시 30분
● 특전사항 · 법사과정 이수 후 법사호 수여 · 포교실습 지망자 법회처 제공
· 포교당 종교법인 보호 · 성적우수자 장학혜택 부여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자격

⊙ 大圓佛教大學 학장 혜거스님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54-1613, 773-9171, 776-7156 FAX : (02)756-7258
Homepage : www.idaewon.or.kr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皿)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끊어질듯 아프며 거기다 두통까지 겹친 생리통으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 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꽥을 배꼽(신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전국 대리점 모집 중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에 (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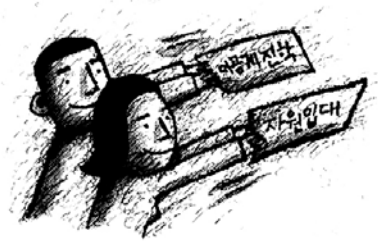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동기화 현상과 이공계 육성

우리는 자연현상을 접하다 보면 자연으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곤 한다. 그 가운데 복잡계와 관련된 카오스 분야에 속하는 '동기화(synchronization)'라는 흥미로운 자연현상을 하나 보기로 들겠다. 예전에는 조금만 도심을 벗어나면 반딧불이를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요즈음은 환경 보존이 잘된 극히 일부 지역에서만 볼 수 있다. 한 과학자가 남부 아시아의 어느 지역에서 반딧불이에 대해 관찰과 실험을 한 내용이다. 날이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하면서 반딧불이들이 깜빡거리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제멋대로 깜빡거리다가 한밤중이 되면서 집단 전체가 자연스럽게 동시에 같은 진동수로 깜빡거리며 깜깜한 밤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현상(동기화 현상)을 관찰하였다. 한편 이번에는 매우 밝은 조명등을 이용해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동기화된 진동수로 조명등을 깜빡거리다가 서서히 진동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다 보면 어느 진동수까지는 모든 반딧불이들이 바뀐 진동수에 맞추어 깜빡거리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진동수에 이르자 강제적인 조명등의 진동수에 맞추던 것을 포기하고야만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사실 복잡계 현상은 비단 물리현상뿐만 아니라 미국의 나스닥과 한국의 코스닥이 동기화가 일어났다느니 깨졌다느니 하며 투자자들을 울리고 웃게 하는 경제현상 분야나, 뇌파나 심장박동과 같은 생체신호 등 의료 분야에서도 관찰되는 등 오늘날 복잡계의 과학은 물리학의 경계를 허물어뜨리며 과학의 새로운 흐름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제 고등학생들의 심각한 이공계 기피현상과 정부 각 부처간의 이기주의로 인해 부처간의 동기화가 깨어져 있는 현실을 살펴보자. 중국은 지금 무섭게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데, 그 권력의 핵심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공부한 사람들이다. 현재 중국은 이들의 주도 아래 이공계 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한 결과 이공계 진학률이 90%인 반면 한국은 27%에 불과하다. 연구개발비 투자도 중국이 우리를 앞지르고 있어, 업계에서는 반도체는 6~8년, LCD는 3~4년, 이동통신은 2~3년, 디지털가전은 2년 후면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이공계 학생들의 장래를 가늠케 하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국회와 정부에서의 위치를 보면, 16대 국회의원 중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중 불과 11%만이 이공계 출신이다. 장관 및 차관급 고위 공직자 가운데 24%가,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정부의 3급 이상 고위 공직자 가운데 단 16%만이 이공계이다. 그러니 이들 소수를 통해 이공계 분야에 대한 바른 정책이 수립될 수 있겠는가!

중국, 반도체분야 등 2~3년내 한국 추월

'不二정신' 바탕 과학육성 동기화 시급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2002년 7월 22일 대통령 주재로 국가 과학기술위원회 제10차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고, 이 자리에서 '청소년이공계 진출촉진방안'을 포함, 11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고 한다. 형식상으로는 언론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관심을 널리 알린 셈이다. 그러나 정부가 2002년 6월 17일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룬 축구대표 선수 가운데 병역 미필자 10명에게 병역 면제혜택을 주기로 전격 결정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과학기술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회의결과를 보면 병역특혜, 과학 교과과정의 개선, 사회진출 후의 직업 보장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들을 실현의지와는 별개로 보고한 정도지, 결정된 것은 거의 없다. 그 이유는 지난 수개월간 정부 각 부처간에 협의할 기간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이기주의로 인해 관련 부처간에 충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런데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특히 병역특례에 관해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왜냐하면 현역 복무 시기는 이공계 전공자들의 경우 이들이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필자의 견해로는 국방부에서는 먼저 악평등(?)과 관련된 국민의 정서를 자극하는 '병역특례'라는 용어부터 바꾸어야 한다. 21세기 국가간 경쟁의 우위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좁은 의미의 전쟁보다는 첨단과학기술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선진국들의 제도를 면밀히 분석, 이공계 전공자들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재능 있는 전공자들의 특성도 최대로 살릴 수 있는 '다양한 병역제도'를 마련하는데 지혜를 모아야할 것이다.

이제 반딧불이의 동기화 현상을 통해 배운 교훈처럼 첨단과학분야의 육성은 과학기술부가 주관하되 관련 부처들도 '부처이기주의'를 떠나 동기화된 '不二' 정신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의 신속한 마련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줘야만 한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부강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나라를 도우며 한 국민의 끈끈한 정이 담긴 진정한 인류애도 전세계에 널리 나툴 수 있다고 본다. 덧붙여 이것은 '복지부동'이 아닌, 바로 임제 선사의 '수처작주隨處作主' 정신, 즉 있는 그 자리에서 제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정신의 적극적인 실천인 것이다.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j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한국 지도층의 건망증과 몰염치

정치인과 거짓말

7월29~3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상 국무총리서리의 답변은 국정을 총괄할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 많았다. 특히 장 서리는 청문회 첫날 언론사에 보낸 인명록 관련 제출 서류의 서명이 '친필서명'이라고 했다가, 둘째날에는 '비서가 한 서명'이라고 말을 바꿨다. 또한 주소지를 여섯 차례나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랐다는 비상식적인 설명도 계속했다. 결국 국회는 장상 총리인준을 부결시켰다.

7월20일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출국세를 납부하지 않아 화제를 모았던 박홍 전 서강대 총장은 29일 귀국해 "출국세를 내고 갔다"며 관련 영수증을 제시했다. 그러나 확인결과 이 영수증은 20일이 아닌 16일에 발행된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밝혀졌다. 출국세 미납보다 더 충격적이다.

영국의 제1야당인 보수당의 예비내각 외무장관인 앨런 던컨 의원은 7월29일 자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혔다. 스스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그의 변은 이렇다. "정치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당분간 곤란한 일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라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같은 날, 한국 국민과 영국 국민들은 너무나도 대조적인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안이하게 살아, 돌아오는 치욕도 치욕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더럽게 사는 일이다. 염치있게 사느라고 비록 고생을 겪을지언정, 정직과 의를 취해 청백하며 간사스럽지 않으면, 이것은 깨끗하게 사는 것이다. <법구경>

▨말(斗)과 저울로 남을 속인다든가, 마음은 악하면서 말만 착한 체하여 언행이 성실치 못하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간다. <분별업보경>

▨그릇된 생각은 도둑을 만든다. <천청문경>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㉑

참되고 올바른 지혜

참자기 알면 무엇에도 의지 안해

여러 곳을 찾아다니며 인가의 도장을 받아서 '나는 선을 알고 도를 안다'라고 말하지 말라. 만약 참으로 도를 배우는 사람이라면, 참되고 바른 견해를 찾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참되고 바른 견해에 통달하여 두루 밝게 되어야 비로소 끝마치는 것이다. 참되고 바른 견해는 무엇인가? 그대들은 항상 범(凡)에 들어가고 성(聖)에 들어가며, 더러움에 들어가고 깨끗함에 들어가며, 모든 불국토에 들어가 곳곳에서 성주괴공(成住壞空)한다. 그러나 부처는 세상에 나타나 큰 법바퀴를 굴리고 열반에 들지만, 가고 오는 모양을 보지 못하고 그 생사를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 곧 무생법계(無生法界)에 들어가 곳곳마다 노닐면서 화장(華藏) 세계에 들어가도, 모든 법이 공상(空相)임을 볼 뿐 실법(實法)은 전혀 없는 것이다. 오직 법을 들는 의지함 없는 도인이 있으니, 이것이 모든 '부처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부처는 의지함 없음으로부터 생겨난다. 만약 의지함 없음을 깨닫는다면 부처 또한 얻을 수 없다.

범부는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고는 한 순간도 견디지 못한다. 범부의 의식은 그 무엇인가에 의지함으로써 자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버릇이 있다. 참 자기는 본래 모양이 없다. 그러나 범부는 모양에 집착하므로 어떤 모양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것이다. 그 때문에 범부는 항상 어떤 생각에 몰두하거나 느낌을 추구하거나 욕망에 매달리거나 사람에 집착하거나 일거리를 손에서 놓지 못한다.

범부는 이런 모양들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해 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한다. 그러나 범부가 이런 모양들에 의지하여 확인하는 자신은 본래의 모양 없는 참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비록 이런 모양들에 의지하여 자신을 확인하고자 하는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늘 무언가 부족하고 허전한 불만족을 느낄 수밖에 없다.

마음공부란 본래 모양 없는 참 자기를 확인하는 일이다. 모양 없는 참 자기를 확인하고나면 그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고도 늘 자기 자신으로 편안하게 존재하게 된다. 도리어 더욱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낀다. 그러므로 참 자기를 확인한 사람은 평소에 어떤 생각에 몰두하여 매여 있지도 않고 느낌에 구속되어 추구하지도 않으며, 욕망이나 일거리에 매달리지도 않고 사람에게 집착하지도 않는다.

범부가 모양 없는 참 자기를 확인하려면 모양에 의지하는, 바로 그 곳을 잘 살펴야 한다. 범부가 생각이나 느낌이나 욕망이나 일거리나 사람에 의지할 때, 그 의지처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항상 흘러가고 변해간다. 이 때 그 의지처를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 의지처가 나를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가? 아니면 의지처를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그 무엇이 따로 있는가?

잘 살펴보면 바로 의지처가 나를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붙잡았다 놓았다 하는 그 무엇이 따로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붙잡았다 놓았다 할 쯤 아는 이것은 그 모양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음도 금방 알 수가 있다. 모양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끊임없이 붙잡았다 놓았다 하고 있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하다. 무엇에도 의지함이 없고 모든 인연이 여기에 의지하여 나타나는 이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한 것이 바로 법이다.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 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인사하는 법 Manners of greeting

The Buddhist greeting is 'hapjang' (putting your palms together in front of your chest and bowing from waist). Hapjang came originally from India and is used in various ways such as when greeting, in ceremonies, during Dharma assemblies and so on. Hapjang shows respect to the other person and at the same time is lowering oneself in spiritual humility.

불교에서의 인사는 합장(두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맞대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것)이라고 한다. 합장은 원래 인도에서 전해진 것으로 인사나 의식, 법회 등에서 다양하게 쓰인다. 합장은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과 자신의 마음을 낮추는 것을 나타낸다.

A 'deep bow' or prostration shows the ultimate reverence in Buddhism. When you perform the deep bow you touch five points of your body to the floor: forehead, two hands, and two knees. This is a practice used to reduce one's self-centeredness and attachment.

오체투지는 불교에서 가장 큰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다. 오체투지를 할 때는 몸의 다섯 부분(이마, 두 손, 두 무릎)이 바닥에 닿게 된다. 이것은 자기중심성과 집착을 줄이기 위한 수행이다.

대한불교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대광명전 개금불사 모연문

귀의 삼보하옵고

화엄도량 금수사에서는 1954년 만일염불회를 창설하고 매일 4회 장엄염불정진으로 30년이 되던 1983년 1차 만일정진기도를 원만성취하였으며 곧이어 2차 만일염불회를 입재해 18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신라 경덕왕 17년 발징화상에 의해 건봉사에서 최초로 창설되었던 만일염불회의 원력이 금수사에서 되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발징화상 당시 만일염불 기도 회향날, 동참대중 31인이 아미타불의 현신에 의해 차례로 극락으로 인도되었다고 전하고 있을 만큼 만일염불기도의 원력과 공덕은 무한합니다.

만일염불 정진 48년째를 맞은 임오년은 아미타 부처님의 법장비구 48원(願)에 해당되는 뜻깊은 해이므로 만일염불회를 창설할 당시 금수사 대광명전에 모셔졌던 아미타본존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 원불과 비로자나 삼존불, 과거 현재 미래 3천불 개금불사를 시작하고자 발원하였습니다. 인연 있는 불자들께서는 이 생에 만나기 어려운 복전을 닦을 수 있는 대작불사에 동참 인연 맺으시어 부처님의 가호로써 육근청정하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지심 발원하옵니다.

증명법홍 법주구산 기도법사 영산

—다 음—

◈입 재 : 2002년 7월 19일(음 6월 10일)
◈회 향 : 2002년 11월 14일(음 10월 10일)
◈장 소 : 금수사 대광명전
◈문 의 : 금수사 종무소 (051)467-3316
※불사기도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가집니다.

불기 2546년 7월 일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4동 843번지

대한불교 원효종 총본산 금수사

주지 법홍 합장

재앙을 막아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수능합격 기원 달마 티셔츠 주문 안내



한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에서는 재앙을 막아주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이 부착된 달마T셔츠를 특별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번 대학입시생의 합격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百日기도와 함께 행운의 百日T셔츠를 한정 판매하오니 잊지 마시고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 행운의 달마 T셔츠는 용궁사에서만 판매하오니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 가 격 : 15,000원 전화주문시 택배료는 착불
◈ 온라인 : 부산은행 032-01-041244-3
국민은행 119-01-0196-150
(주병남)
◈ 인터넷 : www.yongKungsa.or.kr
◈ 문 의 : 051)722-7755

본사가 주최하고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운광)가 진행한 제5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가 7월 29일~8월 1일 2박3일간 충북 보은 법주사와 속리산 유스타운 일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소년소녀 가장 100여명을 포함, 200여 어린이들이 참가한 이번 캠프에서 참가자들은 '눈높이 참선 공부' · '찬불동요 배우기' 등의 불교문화 체험과 물놀이 · 축구 · 피구 · 스포츠댄스 등의 생활 스포츠 활동을 통해 알차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다.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현장



◇밝게 웃고있는 민경이(오른쪽)와 수현이.

"우리 자매하기로 했어요"

소녀가장 기민경 · 정수현양

부다피아 어린이캠프에 초청 받고 왔어요. 설레는 마음에 참가한 캠프가 덥고 힘들었지만, 공기 좋은 산에서 며칠 밤을 자니깐 건강해진 것 같아요. 특히 모르는 아이들과 친구가 되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음, 우리요, '자매' 하기로 했어요. 국가에서 받는 한달지원금으로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비로운 부처님이 제 곁에 있다고 생각하니 힘이 절로 나요.

제 꿈은 가수고요, 수현이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는 거래요. 공부도 열심히, 노는 것도 열심히, 뭐든지 열심히 할래요.

서울 홍일초5 · 서울 백산초5

"처음엔 서먹…친구 셋이나"

캠프 재롱둥이 박재동군



할머니가 현대불교신문을 보시고, 구미에서 서울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쑥스럽고 적응이 안됐는데 친구들과 친해져서 기분이 좋아요. 친구를 3명이나 사귀었어요. 주소도 적어주고, 전화번호도. 축구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월드컵 때, 아빠가 바빠 길거리 응원도 못나가고, 집에서 텔레비전으로만 봤는데, 이번에 친구들과 축구를 직접 해보니 정말 기뻐요. 내년에는 초등학생이 되는 동생하고 같이 오려고 해요. 아마 할머니가 또 보내주실거예요 구미 장곡초1



◇두 손 곱게 모은 '연꽃합장', 한가지씩 소원을 담았다.



◇혜응스님의 '눈높이 참선공부시간', 아이들이 똥긋 귀를 세우고 듣고있다.

마음공부…노래 춤도 신나게

"와! 출발이다." 7월 29일 조계사를 출발하는 버스 안, 설레임에 온통 술렁거린다. 배웅 나온 부모님은 이미 안중에도 없다. 본격적인 일정은 시작도 안됐는데, 설레는 마음은 도착지 속리산 법주사와 유스타운에 가있다.

오후 3시, 속리산 유스타운 대강당에서의 입재식.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운광 스님의 인사말에 아이들의 몸은 근질근질 해진다. 선생님 말씀 잘 듣기, 언니 · 오빠말 잘 듣기 등등. '쇠귀에 경 읽기'다. 하지만, 이어지는 찬불동요와 율동따라하기 시간. 봇물처럼 '환호성'이 터져 나온다. 율동시범이 끝나기 무섭게, 앉아있던 아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선다. 율동과 노래부르기 시간은 언제나 흥겹다. 겉눈질로 동작들을 따라해 보지만, 언제나 '반박자' 씩 느린 어린이들이 서로 마주보며 해맑게 웃는다. 조금씩 익어가는 몸짓. 어느덧 아이들의 입가엔 가사가, 몸짓엔 율동이 녹아든다.

또 하나, '참선'이라는 찬불동요. '두 손 두발 가지런히 연꽃모양 만들고/두 눈 살짝 코를 보며 작은 미소 지으면/꾸러기 맘 사라지고 보살님 맘 새록새록/내 마음 어느새 부처님 닮아가요'라는 노랫말. 아이들의 화두가 된다. '아빠다리'를 한 아이들, 취하는 자세가 각양 각색이다. 야단법석이었던 강의실은 진지한 선방이 되고, 아이들의 마음은 부쩍 커진다.

30일 이른 아침, 한마음선원 혜응 스님의 '눈높이 참선 공부'. 시청각 기기와 재밌는 스님 말에 좀린 눈이 확 떠진다.

"여러분에게는 '한마음 주인공'이 들어 있어요. 이 마음은요, 여기든 학교든 집이든 항상 있는 거랍니다. 짜증나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공! 나를 지혜롭게 이끌고 가렴.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 계시니깐 잘 끌고 가'라고요. 알겠죠?"

같은 날 오전 9시, 아이들은 법주사로 향했다. 40분 넘는 거리지만 멀리 보이는 부처님의 손길에 어느덧 금새 다다랐다. 황금 미륵대불 앞에서 법주사 성오스님의 사찰 설명을 들었다.

"옛날부터 법주사는 큰 절이었답니다. 저기 '철황'이란 큰 솥 보이죠. 이 솥은요, 40가마 밥을 한꺼번에 지을 수 있을 만큼 크답니다." "네? 뭐라고요!"

아이들이 깜짝 놀라 가마솥을 다시 살펴본다. 국보5호 쌍사자석등, 국보64호 법주사석연지 등등 이어지는 설명에 어느덧 진지하게 귀기울이는 어린이들. 계속 몰어댄다. 스님은 비지땀을 흘리지만, 신나게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헤친다.

물놀이 시간. 여름캠프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 어느새 갈아입은 삼각팬티 수영복, 부끄럽다고 난리들이다. 연신 티셔츠를 잡아 당겨 엉덩이 가려대기 바쁘다. 실내수영장이 떠렁떠렁 울린다. 결국 진행대장 이성혼 선생님의 호루라기 소리, 아이들이 주춤한다. 그것도 잠시, '종알종알' 아이들의 목소리가 커져갔다.

마지막 날인 8월 1일. 일찍 잠을 깬 아이들에게 '생활 스포츠' 활동이 펼쳐졌다. 첫 시간은 포크댄스. 쑥스럽다. 손을 맞잡기도 어색한 듯 망설이다가 들려오는 경쾌한 음악소리에 날렵하게 몸을 움직인다. 몇 동작 못 따라했다고 한 번 더 하자고 아우성이다.

국보 쌍사자석등 설명 때 너도나도 질문공세

물놀이시간 수영장 삼삼오오 '종알종알' · 법석

이제는 축구시간. 최근의 축구열기를 나타내듯 축구에 쏟는 관심이 남다르다. 가만가만 들여다보면 수비수는 없고, 공격수만 있다.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는 축구공이지만, 아이들의 축구삼매는 끝이 없다.

"두 골이나 내가 막았는데, 2대 뺑으로 졌어요. 왜 졌는지 모르겠어요. 한 판 더 해요" 진영④ · 서울 금천초2가 못내 아쉬워하며 선생님에게 말소리를 높인다.

3시간 넘게 뛰어놀던 아이들 이마에 송글송글 땀방울이 맺혔다. 키가 큰 소나무사이를 거쳐와서인지 바람이 시원하다. 놀이삼매에 흠뻑 빠졌던 아이들의 얼굴에 아기부처님의 해맑은 미소가 녹아있다.

짧기만 하다, 2박3일.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단잠에 빠져들었다. 환한 웃음꽃이 핀 아이들의 얼굴이 선재동자같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국보6호 '법주사석연지' 설명을 듣는 어린이들의 눈빛이 진지하다.



◇'우리편 이겨라' 재밌는 전래놀이시간.



◇스님의 말씀하나 놓치지 않으려는 어린이. 무얼 적고 있을까.

3일안에 깨닫는다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깨달음에는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수행에도 얻기 힘든 깨침을 3일 안에도 이룰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백림사(하북성 조현)와 보봉사(강서성 정안현)에서는
이미 찰나(돈오)에 깨치는 3시간의 수행법이 있어 왔습니다.

부처님 당시 '마하가섭'은 8일만에 지혜의 눈이 열려 아라한(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관념과 이상과 꿈이 아닌 구체적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체계적인 수련 방법입니다.
그 성취와 결과는 매우 분명하며 새로운 삶의 길이 열립니다.

- 무념 무상과 삼매를 언제나 이룰 수 있는 능력
- 생사의 두려움에서 초월할 수 있는 능력
- 영가들의 장애에서 벗어나 스스로 천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 온갖 꿈의 시달림에서 해방
- 자신의 고통과 질병이 치유되는 힘

체험하는 만큼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다.

- 번민, 갈등, 괴로움과 집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일상 따든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
- 쉬고 싶지만 쉬지 못할 때
- 부족함 없이 사는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수련과정

本 性 (3 일)	참마음, 無心, 無分別智 업장소멸, 죄의식 소멸
無碍法界 (3 일)	不空, 無分別後得智 영적문제해결(천도 薦度) 마음의 치유와 휴식 원하는 대로 이루는 법칙 거듭남의 비결
無 上 覺	安息, 삶의 기쁨

TEL 033) 435-3166, 435-6166
FAX 033) 435-8166

춤바움 禪林院 (구 대광사)

元 · 氣 · 回 · 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적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新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세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
없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놓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종교간 대화·화해운동 확산

URI, 18일 브라질서 첫 세계회의 개최

"전쟁 80% 종교와 연관" 모순 극복 다짐

'리오+10회의'와 연합 환경문제 공동 대응



◇종교간의 대화는 상이한 전통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고행과 명상을 중시하는 이슬람 신비주의인 수피명상(Supism)을 체험하고 있는 URI 회원들.

URI는

URI는 종교간 협력을 증진시키고, 종교로 말미암은 폭력과 전쟁을 종식시키며 지구의 모든 생명체들을 위한 평화와 정의 및 치유의 문화를 조성하려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URI는 1995년 UN 창설지인 샌프란시스코에서 UN창립 50주년을 기념, UN과 같은 종교적 세계평화기구의 필요를 공감한 종교지도자들에 의해 발기됐다. 그 후 전세계에 190개 지부를 조직하고 2000년 6월 26일(UN헌장 조인일) 피츠버그에서 헌장을 조인한 범종교 세계기구다.

60여 국 80여 종교 및 정신적 전통이 URI에 참여하고 있으며, 100만 여명이 200여 URI 평화 프로젝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과학자 새뮤얼 헌팅턴은 "21세기는 더 이상 이데올로기나 국가간의 정치적 대립이 아니라 '문명의 충돌'에 의해 특징지어질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과거 시대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의 적'이 사라지자 이념대립에 쏠렸던 에너지가 종교로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전세계에서는 종교로 인한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고 종교간의 대화와 이해, 또는 화해를 모색하는 이른바 'Interfaith movement', 또는 'Inter religious movement'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세계종교연합선도기구(URI, United Religions Initiative) 등 '종교간 대화모임'들의 태동은 전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의 약 80%가 종교와 연관된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종교인들이 이런 모순을 극복하고, 종교본연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각성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URI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브라질 뉴오데자네이로 글로리아 호텔에서 갖는 첫 세계회의의 주제인 '성스러움의 나눔과 세계에 대한 봉사'는 이 단체의 성격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번 리오 총회는 '성스러움의 나눔과 세계봉사'라는 주제가 지속적으로 천명되고 구체적으로 실천되도록 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총회 기간에 다양한 종교 전통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축제도 마련하고, 종교간 이해의 기회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프리카의 요하네스버그에서 8월 하순에 열리는 '리오 플러스 텐(Rio+10)' 환경회의와도 연합해 지구촌의 환경문제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에서 9개 지부를 가진 URI Korea(대표 진월스님, www.uri-korea.org) 회원들도 참석한다. 진월(조계종 국제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스님은 "종교간 대화모임들의 평화운동과 공동선(善)의 추구가 지구촌의 평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400여만 인구 가운데 절반이 불자인 브리야트공화국에 국제불교센터가 건립돼 불교 붐이 일어날 전망이다. 7월 15일 열린 기공식에 참석한 진월스님(오른쪽).

브리야트국 국제불교센터 기공

진월스님, 현지스님들과 불교교류 의견 나눠

구 스련연방에 속한 브리야트공화국에 국제불교센터가 건립된다.

조계종 국제교류위원회 부위원장 진월스님은 브리야트 불교계의 초청으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울란우데를 방문해 미륵불 축제법회와 극제불교센터 기공식에 참가했다. 기공식에는 태국, 러시아, 몽골 등 스님들이 모여 불교공동체 건설을 위해 발원하기도 했다.

진월스님은 방문기간 중 브리야트불교 최고지도자인 함블 라마와 도르지 라마 등 현지 스님들과 대화를 갖고 불교교류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진월스님은 "이 국제불교센터가 브리야트 원주민들의 오랜 불교전통을 잇고 한국 등 선진불교와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며 한국불교계의 지원을 호소했다.

"티베트 헌법 완성, 의회 큰 권한

린포체 총리, 정치독립보다 문명복구 더 중요"

"다가올 4년 동안 현대 민주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티베트 망명정부의 삼동 린포체 총리는 최근 뉴욕타임즈와의 회견에서 "14대 달라이 라마의 사후를 대비해 전세계 티베트인들을 준비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여름 티베트 망명정부의 초대 총리로 선출된 삼동 린포체는 "성하께서는 지도체제의 연속을 제도화하기 위해, 티베트 헌법을 완성했으며 망명 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다"며, "헌법은 성하가 육신으로 존재하지 않을 경우, 성하의 업무를 잠정적으로 처리할 섭정의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있어 큰 지도력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동 린포체는 또 "중국으로부터의 정치독립은 중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티베트 문명을 복구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티베트는 단지 한 국가가 아니라 문화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독특한 세계의 유산이란 것이다.



◇삼동 린포체 총리.

현장스님, 바미얀대불 완성 못본채

大唐서역기에 소개했을 것

삼장법사로 알려진 중국의 현장(玄奘) 스님은 실제로 바미얀 석불이 완성된 것을 보지 않은 채 〈대당서역기(大唐西域記)〉에 석불을 소개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일본 주오(中央)대학의 다나베 가쓰미(田邊勝美, 서아시아 미술사 전공) 교수는 7월 29일 도쿄에서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문화재 국제심포지엄' 에서 이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아사히(朝日) 신문이 보도했다.

현장 스님은 630년 봄 바미얀을 방문해 동서쪽에 있는 2개의 석불을 보았다고 알려져 왔다. 그러나 다나베 교수는 동쪽 편의 높이 38m 불상 천장에 그려진 태양신 도상(圖像)이 629~630년에 나타난 것으로 볼 때, 현장 스님이 불상을 직접 봤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 현장 스님은 〈대당서역기〉에 동쪽의 석불이 놋쇠로 만들어졌다고 기술하고 있지만, 실제는 재료가 돌이었다는 점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고 다나베 교수는 주장했다.



일지 스님의 **감춰진 불교이야기**

34. <육조단경>의 고향을 가다

지난 7월 9일 홍콩에서 중국비자를 얻은 나는 11일 오전 구광철도의 홍흠역에서 출발하는 광조우(廣州)행 기차에 올랐다. 홍콩에서 심천을 경유하여 광동성의 넓은 평원으로 달려나온 기차는 작렬하는 중국남부의 햇볕 속을 달린지 3시간만에 광조우역에 도착했다. 이번 광동성 여행에서 나는 6조 혜능(638~713)의 설법지이자 입적지인 광조우의 광효사(光孝寺)와 샤오콴(韶關)의 남화사(南華寺) 또 5조 홍인으로부터 "회(懷)를 만나면 머물고 회(會)를 만나면 곧 숨으라(逢懷則止 遇會則藏)"라는 지시를 듣고 혜능이 15년간이나 사냥꾼들과 함께 살았다는 쓰후이(四會), 화이지(懷集)등 〈육조단경〉속의 지명을 확인하고 그 현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 이 지명들은 광조우를 중심으로 한 광동성 남부의 교통요지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급속하게 도시화되어가는 중이다.

선승·선어록현장 광효사 주변
곳곳에 널린 빨래·음식냄새 등
중국 서민들의 생활 녹아 있어

7월 12일 나는 혜능이 15년간의 은둔생활에서 나와 정식으로 수계를 하고 설법을 시작한 법성사(法性寺)를 답사했다. 〈육조단경〉에서 광주 법성사라고 적고 있는 절이 바로 지금의 광조우 광효사이다. 〈육조단경〉에 의하면 혜능이 산에서 나와 광주 법성사에 도착하자 마침 인종(印宗)법사가 〈열반경〉을 강의하고 있었다. 그 때 두 학인이 뜰에 서서 바람에 펄럭이는 깃발을 보고 이야기한다. 한사람은 '바람이 움직인다' 라고, 또 한 사람은 '깃발이 움직인다' 라고 말하며 끝없는 토론을 하고 있었다. 혜능은 그 두 사람에게 말했다.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다.' 혜능의 이와같은 지적에 법성사의 대중들은 놀랐다. 인종법사는 혜능을 윗자리에 모시고 물었다. '행자님은 참으로 비상인(非常人)이십니다. 내 듣건대 황매산의 법이 남방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니 행자님이 바로 그 분이 아니십니까?' 여기서 혜능은 정식의 출가절차를 받아 혜능선의 세계를 본격적으로 펴게 된다.

〈육조단경〉에 수록되어 있는 이 이야기에서는 어딘지 고전적인 무게와 품격이 느껴지지만, 오늘의 광효사는 광조우 시내의 지하철을 타고 도착할 수 있는 도시 변두리의 퇴락한 절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현재 광효사의 사역(寺域)은 상당하게 보존되고 있지만 절 주변은 아파트와 남루한 상가로 둘러싸여 있어서 〈육조단경〉속의 품격은 사라지고 없었다. 이곳 광효사는 어쩌면 예전에는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닌 그대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라는 심동(心動)의 법이 설해질만큼 맑은 바람이 부는 절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중국 남부의 급속한 도시화는 선어록 속의 도량들을 모두 도시변경의 초라한 관광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혜능의 입적지이며 유해가 보존되어 있는 샤오콴의 남화사 역시 광동성 북부의 공업도시 샤오콴시의 언저리에 간신히 남아있었다. 이제 중국 선종의 유산들은 깊은 산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산업화되어버린 도시의 변경속에서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광조우 지하철 서문구(西門口)역에서 내려 광효사에 이르는 광효로 거리는 그야말로 소박한 중국 서민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다. 곳곳에 널어놓은 빨래와 음식냄새, 아이들, 소음, 이방인의 눈에는 이 거리가 마치 60년전의 사진을 보는 듯한 옛 중국서민들의 삶이지만 분명 여기에는 중국선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그 무엇이 있다. 그것은 조바심내지 않고 유유히 태평하게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나는 중국선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본다. 중국선은 본래 대륙적인 농경문화의 산물이었다. 사람들은 해가 뜨면 해와 함께 일어나서 대지를 갈아 농사를 짓고 해가 지면 해와 함께 잠이 드는 자족적인 삶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그 자족적인 농경문화는 이제 중국선의 토양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삶은 계속되어지는 것이며 선어록이 설해진 현장, 선승이 살다간 현장을 확인하는 이와같은 작업은 비대하고 의미없는 관념의 나열이 아니라 이처럼 살아있는 선 그 자체의 살아있는 인간상을 탐구하는 일인 것이다.

▒경학회 회주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타 큰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

여러 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 / 값 3,500원

일타 큰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 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 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 큰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우룡 큰스님의 금강경 강설집!

생활 속의 금강경



영가의 바른 천도를 원하십니까?
깨달음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영가천도를 위한 독경용으로 으뜸가는 금강경!

이제 금강경을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와 종파를 초월하여 불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금강경 속에 영가천도의 비결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생활 속의 금강경』은 그토록 어렵다는 금강경의 가르침을 우리의 생활에 접목시켜 쉽고도 재미있게 풀이한 책입니다.

뜻을 알고 독경을 하면 그 공덕은 더욱 커지는 법!

이제 『생활 속의 금강경』을 통해 집안의 영가를 천도하고 우주에 가득찬 지혜와 영광과 행복을 가득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신국판 / 304면 / 값 6,000원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 큰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 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염불이 극락세계의 문을 엽니다.

미타신앙·미타기도법



미타기도법은 영가님들께
영원 생명과 무량한 빛을 안겨줍니다.

이 책에서는 아미타불의 참모습에서부터 극락의 여러 가지 측면, 칭명염불·오회염불·관상염불·천도염불 등의 각종 염불수행법, 천도를 하는 가족의 자세 등을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참회·참회기도법

맺힌 것을 풀고 푼 것을 더욱
원만하게 이끌어 가는 묘법이 참회!

이 책에는 업장과 참회,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절을 통한 참회, 참회염불,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이참법과 대승육정참회 등 참회의 참된 의미와 여러 가지 참회 기도법, 참회영험담을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백중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 예참,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02) 587-6612~3 · 팩스 : (02) 586-9078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전산화현황

전화설문 분석결과<1>

사찰·불교단체 절반만 컴퓨터 활용

사찰이나 불교단체의 절반가량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컴퓨터는 주로 종무관리와 자료관리 및 인쇄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의 사찰(단체) 5,002개소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컴퓨터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를 전화설문해 본 결과 49.9%(2,497명)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1.4%(69명)는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48.7%(2,435)에 달했다.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단체 유형별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찰의 컴퓨터 보급률은 전체의 41.7%로 평균보다 낮았으며 교육기관은 96.1%, 불교단체는 82.6%, 복지기관은 94%, 기타는 82.3% 등으로 나타났다.

사찰의 컴퓨터 보급률이 타 기관에 비해 매우 낮은 것은 전통적으로 사찰이 산중에 위치하여 정보사회의 매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사찰의 업무가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단순하고 신도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찰의 주지스님들이 효율적인 신도관리와 포교활동을 위해서는 컴퓨터 사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203명이 응답한 우편 면접조사 결과 979명(81.4%)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조사돼 전화설문보다 30%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정보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우편 설문에 응했고 조사자가 사찰(단체) 방문시 교구본사 및 수말사, 대표적인 불교단체 등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을 대상으로 보유대수를 조사해본 결과 전체 유효 응답 2,493개소 가운데 1,394개소(55.9%)가 1대, 529개소(21.2%) 2대, 207개소(8.3%) 3대, 104개소(4.2%) 4대, 259(10.4%)개소가 5대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더 필요한 컴퓨터수를 조사해본 결과 255개 사찰(단체)만이 필요하다고 밝혀 대체적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보급량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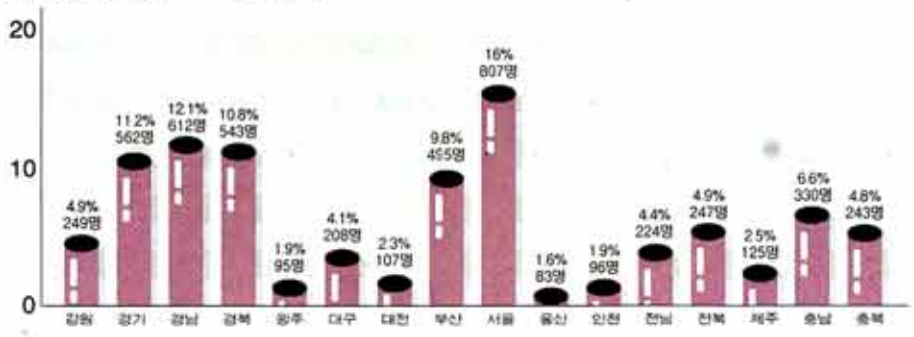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사찰(단체)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주로 어떤 업무에 활용하느냐를 전화 설문해본 결과 총 응답자 3,220명 가운데 1,104명(34%)이 종무관리용, 841명(26%)이 자료 관리 및 인쇄, 449명(14%)이 개인 업무용, 311명(10%)이 교육용, 463명(14%)이 기타라고 응답했다. 사찰에서의 컴퓨터 활용이 종무관리에 치우치는 것은 주소 라벨 출력, 우편물 발송에 이용하거나 축원카드를 출력하는 등에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총 응답자 3,410명 가운데 1,128명(33%)이 신도 및 회원관리, 1,076명(32%)이 문서작성, 773명(23%)이 인터넷, 100명(3%)이 회계, 77명(2%)이 모름 및 답변거부, 256명(7%)이 기타라고 답변했다. 이는 사찰에서의 컴퓨터 활용이 종무관리를 위한 문서작성과 신도관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회지 및 관리 정보의 생산 등에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컴퓨터가 단순 관리 업무에서부터 계획 수립, 분석, 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다양한 방면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전문인력 채용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컴퓨터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단체)의 업무용 컴퓨터는 특정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사찰에서 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질문을 해 본 결과 12.5%가 주지스님(대표)이 주로 사용한다, 16.9%가 담당 소임자, 14.3%가 공동 사용, 9.2%가 기타라고 답변했다. 응답 분포는 사찰(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불교계의 사찰(단체)업무가 전문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단체)의 규모가 작아 업무의 분화 및 전문 인력의 채용이 어렵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주지스님 혹은 단체대표의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 결과 업무 수행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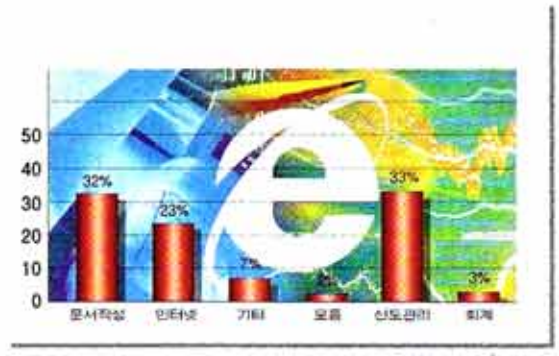
사찰(단체)의 업무 수행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손을 거치는 경우가 지속될 경우 불교계의 정보화 분야가 그만큼 더디게 발전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를 안고 있다.

▶전화설문 응답자 지역별 분포



▶컴퓨터 사용 목적





보급율 사찰 41.7% 교육기관 96% 단체 83%

77%가 2대 이하 "현재 보유량에 만족"

용도 종무 · 신도관리 · 문서작성 집중

회계 · 정보생산등엔 활용빈도 낮아

사찰(단체)에서의 컴퓨터 주사용자

컴퓨터 용도		담당소임자	공동사용	주지스님/회장	기 타	모름/답변거부	전 체
사용중	count	844	717	623	456	15	2,655
	%	31.8%	27%	23.5%	17.2%	0.6%	100%
있으나 사용안함	count	1	0	0	4	1	6
	%	16.7%	0%	0%	66.7%	16.7%	100%
전 체	count	845	717	623	460	16	2,661
	%	31.8%	26.9%	23.4%	17.3%	0.6%	100%

응답사찰·단체 전국 고루분포

서울15.9 경남12 경기11 경북10.8% 순

설문응답자 개요

전화조사를 실시한 사찰과 단체는 모두 1만여 곳이었으나 유효 응답을 확보한 곳은 5,002곳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사찰과 단체는 전국적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응답한 사찰은 82.7%인 4,135곳이었고 교육기관 386곳(7.7%)과 단체 복지기관 등의 분포를 보여 사찰이 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한 사찰의 지역적 분포도 7.8%에서 13%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전화 설문에서는 사찰의 지역성이나 규모 등에 구애됨이 없이 조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이 조사의 결과는 불교계의 전수조사에 걸맞는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적 응답 대상의 분포는 서울 15.9%(797), 경남 12.2%(610), 경기 11.2%(558), 경북 10.8%(540), 부산 9.8%(492) 등이었다.

불교정보화 실태 이렇게 파악했다

1차 전화, 2차 우편·방문면접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그쳤던 것이 그간의 사정이었다. 불교계 정보화의 수준은 고사하고, 현황을 정확히 가늠할 지표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20여 년 전부터 정보화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온 사회적 환경을 감안한다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불교정보화실태조사는 바로 "도대체 불교계 정보화 분야의 사정은 어떤가?"라는 물음에 가장 신뢰성 있는 답안지를 내놓기 위해 실시된 불교계 최초의 작업이었다. 조사의 범위도 어떤 형태로든 교계에 드러난 모든 사찰과 단체들을 대상으로 함으로 전수조사의 의미를 최대한 살렸다. 때문에 이번조사는 불교계 초유의 최대 규모 정보화 실태파악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사의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흥미한 '답안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전화를 통해 주요 사항을 총괄적으로 설문하고, 2차적으로 우편과 방문 면접설문을 병행했다. 조사 대상 범위의 최대화와 조사내용에 대한 신뢰성의 최고치를 함께 노렸던 것. 전화조사의 경우 전문 설문용역업체에서 전문화된 시스템에 의해 집중적으로 실시해 1만여 대상 가운데 5,038건의 유효 응답을 획득 했다. 전화를 통한 설문에는 무엇보다 시간적 한계가 있어 질문 문항을 제한해야 했다. 그래서 전화 설문에서는 사찰 및 단체들의 컴퓨터 사용실태와 보유현황, 인터넷 사용, 홈페이지 운영, 통신회선 등의 운영에 대한 실태 파악에 초점을 맞췄다.

2차 조사에 해당하는 우편과 방문면접 설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의 주요 설문 문항은 컴퓨터의 보유, 전담직원 유무, 사용 컴퓨터의 사양, 향후 구입의사, 종무관리프로그램의 운영실태, 인터넷 활용 정도, 전자우편 활용 여부, 홈페이지 운영 실태, 인터넷 동호회 활동 여부, 쇼핑몰 활용 여부, 사이버 법당 운영여부, 불교정보화에 대한 인식 정도 등을 주제로 포괄적인 질문을 던졌다.

우편을 이용해 5,000여 사찰에 설문지를 발송해 20여일 만에 10%에 해당하는 500여 건을 회수했다. 이 기간동안 진행된 방문면접 설문에서도 400여건의 유효 응답지를 얻었다. 특히 방문면접 설문의 경우 조계종 총무원이 297곳의 조계종 사찰에 대해 방문 설문 유효 응답지를 확보했다. 이는 조계종의 실태조사에 대한 지원 사업이었다. 이렇게 확보된 2차 조사의 유효 응답지는 모두 1,203건이었다.

모든사찰·단체대상 전수조사

1차=기기보유현황·인터넷·홈페이지에 초점

2차=장비사양·운영실태 등 보다 구체적 접근

전화설문조사는 두 기관에 의뢰해 결과를 분석했다. 5,038건의 유효 응답을 확보한 만큼 다각적인 분석으로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전화설문의 결과는 1차적으로 설문용역을 맡았던 (주)프리즘 엠아이텍에서 그래프 형식으로 분석 처리했다. 이를 바탕으로 중앙승가대 김응철교수(포교사회학)가 상세히 분석했다. 김 교수는 우편과 방문 면접 설문조사도 분석했으며 이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562쪽 분량의 보고서가 제작됐다.

1,157개 사찰 초고속망 이용

KT조사, 조계종 17.4%, 태고종 12.2%

불교정보화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사업을 협찬한 KT측에서는 전국의 사찰을 대상으로 초고속인터넷 망이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가를 조사했다. KT의 전국 지사망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사된 사찰의 초고속인터넷 이용현황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가 이루어진 8,241곳의 사찰 가운데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찰은 14.2%에 해당하는 1,157곳으로 드러났다. 조계종의 경우 2,343곳의 사찰이 조사에 응했으며 이 가운데 409곳의 사찰이 이용하고 있어 17.4%의 이용율을 보였다. 태고종의 경우는 12.2%를 보였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사찰 1,994곳에 대해 조사활동을 벌인 결과 320곳의 사찰이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해 16%의 이용율을 보였다. 부산의 경우는 14.6%, 광주시는 24.6%, 대구시는 23.5% 등의 이용율을 각각 나타냈다.

이 조사에서는 도심지역 4Km 이상의 비경제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는 사찰이 평균 39%를 보여 도시 인근의 사찰은 거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용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 역	조사사찰	초고속이용사찰	초고속이용률	선로길이 4km이하율
서울 수도권	1,994	320	16.0%	61.3%
6대 광역시	2,045	348	17.0%	73.3%
기타 지방지역	4,102	489	11.9%	54.5%
합 계	8,141	1,157	14.2%	60.9%

불교정보화실태조사에 협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후원, KT(한국통신)가 협찬한 불교정보화실태조사가 지난 4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실시됐습니다. 불교계의 정보화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이번 조사에 전국의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적극 협조해 주셨습니다.

정보화 분야의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불사(佛事)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여 이번 실태조사에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협력해 주신 모든 사찰과 단체 사부대중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속 종단 300여 사찰에 대한 면접 조사를 직접 실시해 주신 조계종 총무원에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협력 덕분으로 실태조사가 원활히 진행되었고 이제 그 분석결과가 <불교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로 간행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불교정보화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견인차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불교정보화실태조사에 협력해 주신 전국의 사찰과 단체 사부대중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공동주최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불교방송, 불교 TV, 현대불교신문사
■ 협찬 : KT(한국통신)
■ 기획자문 : (주)애플웨어 정보통신
■ 후원 :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사은품 '에밀레종 모형' 추첨하여 보내드렸습니다.

불교정보화실태조사의 전화설문과 우편 및 면접 설문에 동참하신 사찰과 단체에 감사드리며 100곳을 추첨하여 사은품 에밀레종 모형을 보내드렸습니다. 추첨은 현대불교신문사에서 공정하게 실시했으며 사은품은 7월 10일 이전에 발송 완료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불교정보화 실태조사 — 홈페이지·인터넷

전화설문 분석결과<2>

인터넷 이용 사찰 7.2%가 홈페이지 운용

"운영 효과적이다" 응답 절반이상이나 홍보·포교 큰역할, 불교미술등 확산을

홈페이지 — 인터넷

PC보유 사찰·단체 많이 이용…74.6%

접속환경 ADSL·모뎀·인공위성이용 順

인터넷의 대표적인 검색엔진 야후에서 불교관련 홈페이지를 검색해 보면 모두 359개가 검색된다. 그러나 이같은 수치는 단순히 야후에 등록된 홈페이지 수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불교관련 홈페이지는 몇 개나 될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전화설문조사 결과 13.3%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사찰(단체)의 26.6%,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찰(단체)의 35.9%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순수하게 사찰만을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비율을 조사한 결과 7.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에 불교계 교육기관 39.6%, 각종 불교단체 42.4%, 사회복지기관 59.7%, 기타 41.9% 등으로 조사됐다. 사찰의 홈페이지 보유 비율이 불교계 교육기관, 단체, 복지기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다.

사찰 홈페이지의 경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찰을 홍보할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널리 알리는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최근 사찰 홈페이지를 통한 신도 등록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여서 앞으로 사찰 홈페이지가 많이 만들어져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사찰을 구성하고 있는 사부대중, 특히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주지스님들의 정보화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또한 사찰(단체)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대한 운영상의 효과성을 조사해 본 결과 52.1%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반해 효과가 없다는 부정적인 의견은 13.7%로 소수에 불과했고 35.3%가 그저그렇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즉 홈페이지의 효과성은 인정하면서 기타 제반 여건상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있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각 사찰, 불교 교육기관, 불교단체, 복지기관 등 유형별로는 홈페이지 운영의 효과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차이를 보였다. 홈페이지 운영의 효과가 긍정적이라는 응답분표를 보면 사찰 50.5%, 교육기관 60.1%, 불교단체 38.5%, 복지기관 48.8%, 기타 51.9%로 나타났다. 사찰의 경우 홈페이지를 운영하지는 않지만 그 효과성은 대부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정적 평가 비율은 불교 교육기관 21%, 사찰 12.1%, 불교단체에 10.3%, 복지기관 2.4%, 기타 8.9% 등의 분포로 나타났다.

사찰(단체)에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비율은 전체 86.7%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응답자가 적어 응답분포 비율의 의미는 없었지만 '운영 인력이 없어서' 302명, '운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서' 248명, '홈페이지에서 서비스할 내용이 없어서' 96명, '홈페이지를 운영할 인터넷 환경이 안되어' 66명, '비용이 부담되어' 45명 등으로 조사됐다. 사찰(단체)에서 홈페이지 운영이 부진한 이유는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효과성에 대한 회의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속적으로 제공할 컨텐츠 부족도 홈페이지 운영을 망설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어 콘텐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 제 종단을 포함한 정보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스님과 불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정보화 소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가 양성 및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이 전통적으로 산중에 위치하여 지리적 여건상 전용선 등 정보 인프라가 깔려있지 않아 인터넷 사용이 일반적으로 저조할 것이라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그러나 이번 전화조사 결과 인터넷 사용률이 그다지 낮지 않았다. 사찰(단체)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 기관 중 37%인 것으로 조사됐고 이 가운데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찰(단체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은 해당 응답자의 74.6%여서 대단히 높은 사용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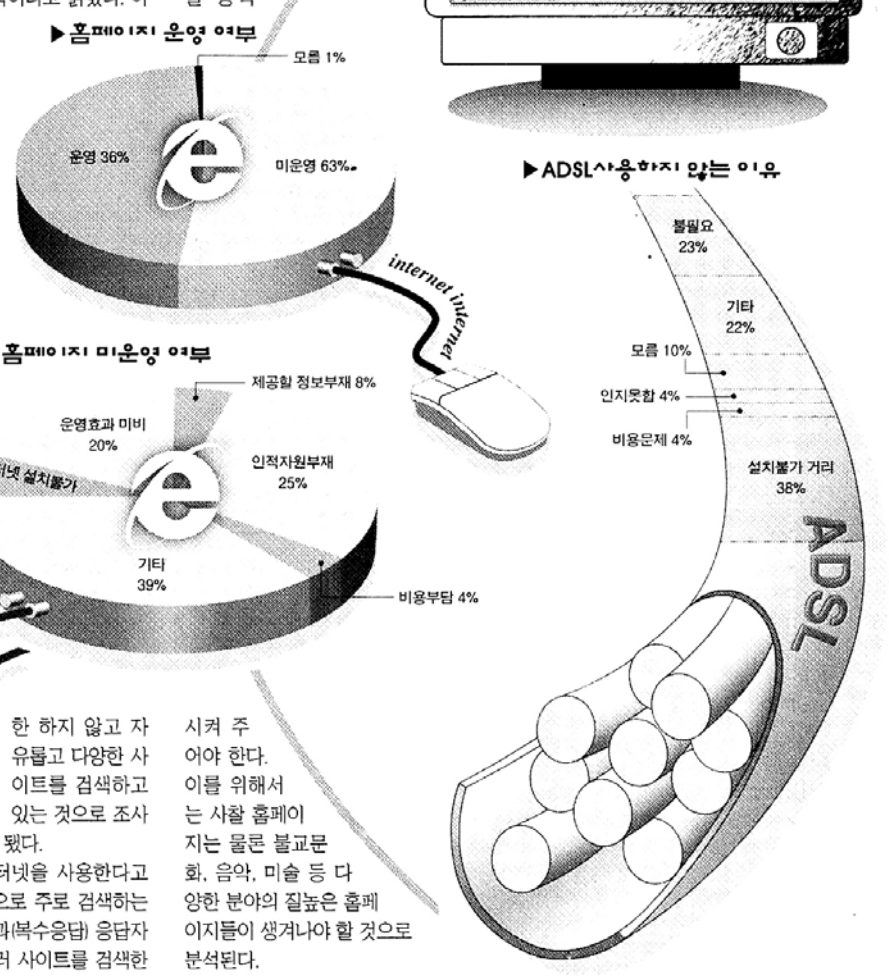
지역별 인터넷 사용 여부는 전체 지역이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평균 비율 이상의 높은 인터넷 사용율을 보인 곳은 제주 89.5%, 광주 84.9%, 서울 83.6% 지역이었으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낮은 곳은 경남 66%, 충북 66.3%, 전북 67.4% 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사찰(단체)가 지리적 등 제반 여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의 인터넷 사용률에 비해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여서 불교계에서도 인터넷 사용이 상당 수준 보편화 도고 있음이 반증하고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사찰(단체)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속방식에 대해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 사찰 1, 844개소 가운데 ADSL의 보급률은 약 74.5%인 1,373개소로 매우 높았고 전화도뎀 13.5% 249개소, 위성 인터넷 1.2% 23개소로 조사됐다. 교육기관 및 일부 도심 사찰의 경우 10%가량이 전용선을 비롯한 여러 회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접속라인 면에서도 오히려 일반인들의 인터넷 접속 환경보다 더 나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응답 분포로 본다면 불교계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라인이 대부분 매우 빠른 회선을 선호하고 있으며, ADSL이 설치되지 못하는 산간지역의 사찰들은 위성 인터넷망을 통해서 접속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비율이 전체 사찰 중 37%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 ADSL, 위성 인터넷망의 보급과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찰이 종교적 기능뿐만아니라 문화적, 교육적, 역사적 기능을 갖고 있어 공적 영역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공공기관, 학교 등에 저렴한 비용으로 초고속국가망을 설치한 것과 같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단체)이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 577명 가운데 231명(40%)이 인터넷으로 할 업무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173명(30%)이 설치할 예정이거나 비용 또는 인터넷 사용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변했다. 또 35명(6%)이 컴퓨터 사용미숙이라고 밝혔다. 아직까지 사찰(단체)의 정보화 인식과 인터넷 활용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사찰(단체)의 사무장 등 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종무직원에 대한 정보화 소양교육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사찰(단체)에서 인터넷을 통해 주로 검색하는 사이트는 종단 및 사찰 홈페이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과반수 정도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특정한 사이트에 국한 하지 않고 자유롭고 다양한 사이트를 검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검색하는 사이트를 파악해 본 결과(복수응답) 응답자의 53.5%가 기타의 여러 사이트를 검색한다고 응답했고 불교 사이트 중에서는 종단 사이트에 대한 검색이 33.4%, 사찰 사이트 26.1%, 뉴스 사이트 12.3% 개인 사이트 9.7%, 교양 사이트 9.2%, 온라인 서점 1.2% 등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신이 속한 종단 및 사찰 사이트에 대한 관심은 높았으나 교양, 개인, 온라인 서점 등의 사이트에는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수 있다. 불교관련 사이트의 검색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단이나 주요 사찰에서 좋은 콘텐츠와 불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생산, 전달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교 관련 사이트가 양적으로 늘어나 다양한 네티즌불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 홈페이지는 물론 불교문화, 음악,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질높은 홈페이지들이 생겨나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 응답 분석-인터넷 사용여부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전체	%
사용	73	189	190	179	45	87	47	195	428	29	38	78	60	51	95	67	1851	74.1
사용안함	27	88	96	56	8	29	17	62	84	9	18	27	29	6	44	33	633	25.3
모름		4	2			1	1	2		1		2				1	14	0.6
합계	100	281	288	235	53	117	65	259	512	39	56	107	89	57	139	101	2498	100

기치유와 기공수련 가림출판사 윤한흥 지음



'기치유와 기공수련'은 명상수련과 기치유를 통하여 현대인에게 가장 위협적인 고혈압, 당뇨 등의 성인병과 암 등의 난치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 이웃을 지키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치유'이란 특수명상수련을 통하여 강화된 시술자의 치유기(治癒氣)를 자신과 타인의 질병을 치유하는 요법으로서 마사지, 척추교정 등 물리적 요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에너지 요법입니다.본 연구회에서는 명상수련과 체계적인 이론, 실습을 통한 특수한 수련법으로 누구나 2~3개월 내에 치유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의 의과대학에서는 이미 명상수련을 통하여 기치유 능력을 전수하는 학과가 많이 생겨 났으며, 대학병원에서도 치료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기치유라는 것은 신비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과학적 입증이 멀지않은 장래에 이루어 지게 될 것이고 현대의학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널리 응용될 것입니다.또한 과학적인 명상수련은 수행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다 쉽고 빠르게 입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불자님들의 기도와 선수행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수련생 모집
2002년 8월 14일 오후 2~4시 수요반 개강 (16주 과정)
2002년 8월 22일 오후 7~9시 목요반 개강 (16주 과정)

※ 수련원 위치 : 서울 종로구 인사동 9번지 남양빌딩 4층

한국기치유연구회
02)725-5032, 5065 http://gi-clinic.pe.kr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 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불자님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 장삼, 가사, 백장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 동부정류장 (동강)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희소식 梵 鍾

범종이 스스로 운다(自鳴梵鍾)!!
아직도 잠자는 범종은 없습니까?
아직도 울리지 못하는 범종은 없습니까?
범종은 있으나
칠 사람이 없는 범종은 없습니까?
걱정은 이제 그만 던지십시오.
울어라! 한번만 命 하시면
봄 · 여름 · 가을 · 겨울,
원 하시는 시간에!
원 하시는 횟수대로!
영원히 크고 크게
울려 메아리 칠 것입니다.
離苦得樂을 이루고!
破邪顯正으로 맑고 밝은 氣運이!
부처님 眞理를 宣揚할 것입니다.
*年內로 하시는 寺刹은 염가로 해 드립니다.
시스템 시설은 선착순 입니다.
합장하고 소식을 기다리며
佛日增輝 法輪常轉을 千拜萬拜!!!

부영공업사 특수기계제작부
대표 신 현 직 부처님 품에서 發願祈禱!!!

☎ : 033-562-1535
H · P : 011-369-2732

우편·면접설문 분석결과 <1>

이메일·전자우편·동호회 이용 "아직은"

불자수 적은 사찰 대부분 적용 안돼
각종단차원 표준화…호환성 높여야

종무관리 동호회

커뮤니티 형성 장점…활용율 미미한 편
사이버신행 새 패턴, 포교방편으로 부상

사찰의 업무를 관리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로 종무관리 프로그램이다. 사찰에서는 이 종무관리 프로그램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을까?

우편·면접설문조사결과 전체 응답자 1,203명중 651명(54.1%)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사용한다고 응답한 552명(45.9%)보다 많았다. 다만 종무(회원)관리 프로그램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신도(회원)가 있을때 효과적이고 규모가 작은 사찰(단체)에서는 불필요하다 점을 가만히 보면 절반 정도의 사찰(단체)들이 종무(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아니다.

종무행정 전산화는 특정한 사찰(단체)의 개별적 노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종단 차원의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업데이트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종무(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506개 사찰(단체)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의 유형을 조사해 보았더니 191명(37.7%)이 자체제작, 119명(23.5%)이 아란타, 96명(19%)이 금강장사, 75명(14.8%)이 가람지기, 20명(4%)이 상황, 5명(1%)이 천수천안 등이라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자체 제작한 종무(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종무(회원)관리 프로그램의 기능과 가격 등이 상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종무(회원)관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향후 정보체계 구축이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장애가 될 수 있다. 앞으로 신도 자료의 교환이나 교구 및 단위 사찰과의 계층적 관리체계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종무(회원)관리 프로그램간의 표준화 내지는 호환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현재 사용중인 종무(회원)관리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다. 전체 응답자 333명을 대상으로 사용 중인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156명(46.8%)이 만족한다, 128명(38.4%)이 보통이다, 49명(14.7%)이 불편하다고 응답했다.

스님(대표)들은 전자우편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을까? 또 전자우편의 활용과 사찰의 종무관리와는 어떤 상관관계를 가질까? 사찰(단체)의 주지(대표)스님들에게 전자우편을 가지고 있는냐는 질문을 해 본 결과 응답자 1095명 가운데 전자우편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사람은 546명(49.9%)으로 절반에 가까웠다.

또 사찰의 주지(대표)스님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전자우편을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는가를 조사해본 결과 이용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우편의 효과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534명 가운데 377명(70.6%)이 긍정적 답변을, 97명(18.1%)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응답을, 60명(11.2%)가 보통이라고 답변했다.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사찰(단체)에서는 우편물을 이용한 정보전달이 보편화 되어 있다. 그러나 전자우편은 개인적인 메일 관리 수준에서 사찰(단체)의 공지사항, 광고 및 홍보 메시지 전달의 도구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한 청장년층의 신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활동에서는 전자우편의 활용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사찰(단체)에서 신도들의 전자우편을 관리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대상자 1,203명 가운데 약 11.4%인 117명만이 관리 하는 것으로 조사돼 아직까지 주지(대표)스님들의 전자우편을 활용은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전화조사 결과 사찰(단체)의 인터넷사용 비율은 전체의 37%였다. 그러나 1,203명이 동참한 우편·면접조사 결과는 63.3%인 762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두배가량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인터넷 접속 유형별로는 전체 응답자 759명 가운데 361명(47.6%)이 ADSL, 160명(21.1%)이 전화모뎀, 87명(11.5%)이 케이블 모뎀, 65명(8.6%)이 LAN 52명(6.9%)이 위성인터넷, 14명(1.8%)이 ISDN, 20명(2.6%)이 기타 및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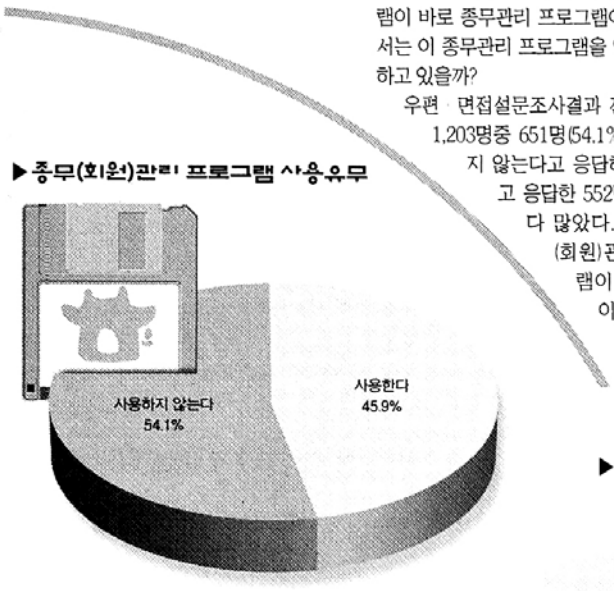
또한 인터넷 접속 시간은 전체 응답자 705명 가운데 324명(46%)이 2시간 미만, 285명(40.4%)이 2~4시간이라고 답변했고, 741명이 응답한 인터넷 정보검색에 대해서는 474명(64%)이 불교정보, 165명(22.3%)이 일반적 정보, 48명(6.5%), 20명(2.7%)이 뉴스정보, 34명(4.6%)이 기타라고 응답했다.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는 홈페이지와 달리 운영비용이 전혀 들지 않으면서도 사찰 밖으로 메시지와 불교 정보를 전달할 수 있으며, 구성원들 사이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의사소통 매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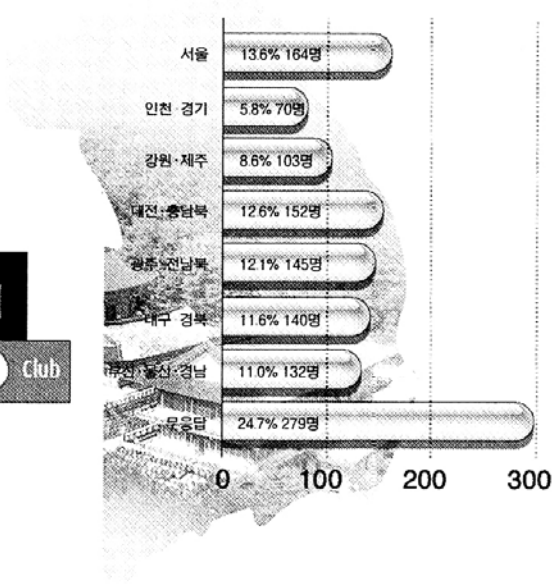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의 운영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23명 가운데 878명(85.8%)이 운영하지 않는다, 145명(14.2%)가 운영한다고 응답해 아직까지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상의 카페나 동호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운영자가 청소년이나 청년층 등 인터넷에 익숙한 계층을 잘 이해하고 그들을 이끌어 갈수 있는 전문성과 성실성을 갖추어 되는데 아직까지 불교계에서는 이같은 인재들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운영자들을 대상으로한 교육 등을 통해 인터넷 포교를 위한 전문가 양성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인터넷 상의 카페나 동호회 운영이 포교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751명 가운데 469명(62.4%)이 많이 또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응답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90명(12%)에 불과 했고, 192명(25.6%)이 보통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853명 가운데 343명(40.2%)이 앞으로 운영계획이 있다, 510명(59.8%)이 운영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아직까지 사찰(단체)에서는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의사전달 통로로서의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는 오프라인상에서의 신행활동을 유도하고 사이버 신행이라는 새로운 신행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교방법으로 떠오르고 있기에 사찰(단체) 소임자들의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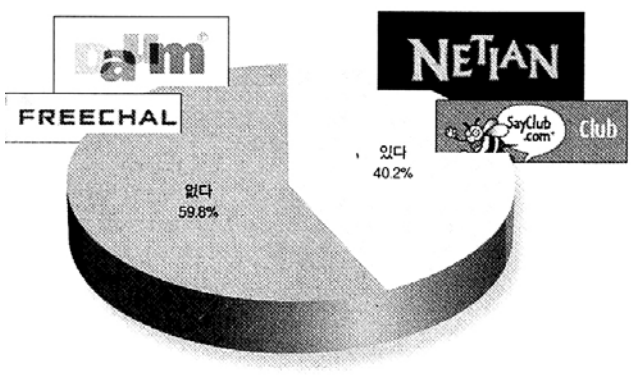
▶종무(회원)관리 프로그램 사용유무



▶우편·면접설문 응답자 지역별 분포



▶향후 동호회 운영계획 여부



대도시 사찰·단체 410곳 34%응답

비구 42·비구니스님 18%

우편·면접설문 개요

우편과 방문 면접 설문에 참여한 사찰과 단체는 모두 1,203곳. 그러나 우편조사와 조계종의 조사(297곳)가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설문조사 추진단이 투입한 조사요원들의 조사대상 중 일부만 단체들이어서 우편 및 면접 조사는 대부분 사찰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조사에 응답한 광역단체 이상 대도시 지역의 사찰과 단체는 34.1%인 410곳이었고 중소도시 28.1%(338), 농어촌 37.8%(455)로 나타나 매우 고른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신분은 비구스님 41.9%(488), 비구니스님 17.9%(209), 우바이 17.8%(207), 우바새 22.5%(262) 명의 분포를 보였다. 응답자의 51.1%가 주지스님이나 단체 대표였고 전산전담직원은 5.5%에 불과 했으며 재가 종무원은 25.1%였다.

당뇨·고혈압
당뇨병 혈당강하 조절제
국내약초 100%
야생약초 90% 生人정
▶ 혈액이 개선되며, 신체의 이상이 정상이 되며, 비만도 해소됩니다.
▶100%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약초이며, 90%는 야생약초로 사용하였습니다.
▶ 생인정은 일부는 달이고 일부는 볶아서 배합하여 생산하였으며 일체의 첨가물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 생인정은 식품으로 먹는 약재만을 사용함으로써 부작용이 없습니다.
복용시 나타나는 현상
• 소변량이 증가하고 소변횟수가 줄어듭니다.
• 신장기능 약화에 의한 불쾌감이 해소됩니다.
• 불면증이 없어집니다.
• 관절의 통증과 불편이 없어집니다.
• 일반적 무기력감과 피로가 없어지고 원기 회복이 됩니다.
• 거전피부가 고와집니다.
• 고혈압 증상이 개선되고, 어지러움과 부종이 없어집니다.
• 대변이 황금색으로 변하고 대소변을 보고난 후에 시원한 느낌이 나타나고 방귀냄새가 없어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 복용초기에 눈꼽이 나오는 느낌이 오거나, 위장이 나쁜 사람은 속이 더부룩한 느낌이 나타나지만 점차 없어집니다.
• 간혹 체질에 따라 아픈 곳에 통증이 더욱 심해지다가 점차 없어집니다.
• 위의 설명은 체질이 개선되는 현상임으로 안심하고 꾸준히 복용하시면 경력과 활력이 솟아납니다.
• 신약을 복용중인 사람은 생인정을 함께 복용하면서 점차 신약을 줄여 15일 정도 경과후 신약을 완전히 중단합니다.
• 생인정 복용시 대부분 2주 이내에 개선현상이 나타나고, 간혹 체질에 따라 3~4개 나타나는 수도 있습니다.
• 복용중 개선현상이 의심되면 구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복용분과 박스포장비 5천원을 공제하고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1개월분 ₩150,000
1일 3회, 1회 3~4정씩 섭취(나이와 소화능력에 따라 조절)
생 인 당
주문 및 상담 (054)281-0544

영가천도「책자 무료보급」
인간의 길흉회복을 좌우하는 영가의 영향력!
인간의 고통중에서 절반이상이 영가의 장애로부터 온다!
가정불화, 사업부진, 자녀문제, 불의의 사고나 재난,
이중에 절반 이상이 영가의 영향에서부터 온다.
"100% 영가천도 영험도량"
책 자 내 용
제 1장 영가의 실체.
1. 영가천도에 대하여
2. 영가(고혼) 천도의 의미
3. 영가란 무엇인가?
4. 착신현상이란 무엇인가?
5. 영가의 장애와 천도의 필요성
제 2장 천도재에 대하여...
1. 영가천도와 업장소멸.
2. 영가천도의 공덕.
3. 천도재와 위령제의 차이.
4. 수자령영가에 대하여.
5. 효행중의 효행.
6. 지장보살의 시대.
7. 천도재 법문.
제 3장 영가천도로 안락한 삶을 영위하다.
● 영가가 천도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사례.
● 영가가 착신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 천도재를 지낸 분들의 체험수기.
그밖에 여러 사례들 - 영가천도 책자 참조 -
100%의 확실한 영가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
천도재가 위령제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영가천도를 했는데도 영가의 장애라고 느끼거나 삶의 변화는 별로 없다고 하소연하는 불자가 늘고 있다. 전국에 조상령 혹은 수자령 영가가 천도가 안되어 이로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이들이 상당 수에 이른다.
「미륵이 출세할때까지 중생들을 모두 해탈시켜서 영원히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도록 하리라!」
- 지장경 중에서 -
매월 합동 천도재 봉행, 천도재상담 전화 및 무료책자 신청
대한불교 조계종 지장도량 성 거 사
천안시 목천읍 송전리 283번지(독립기념관 IC)
041)567-6820, 041)567-6822

영혼 결혼식
[증매에서 천도식까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세상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들딸을 먼저 보낸 부모님은 평생 한(恨)을 안고 눈물로 보내게됩니다. 허망함과 비통한 마음으로 결혼도 못하고 갔으니 천상에서나마 짝을 지어주어 혼례를 올려주면 극락왕생 한다하여 영혼 결혼식을 올려주고자 하지만 짝을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가짜 영가나 상대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고 대충 하거나 몇 년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한(恨)을 안고 돌아가시는 부모님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가족협회 에서는 6년 전부터 조선, 동아, 중앙, 한국일보, 벼룩시장, 교차로 등에 많은 광고를 하여 전국에서 접수하신 남자, 여자영가들의 나이, 학력, 집안 등을 따져 사주로 궁합을 본 후 양가 집안끼리 연결하여 1부 결혼식, 2부 살풀이를 겸한 부부천도식 까지 올려주므로 부모님들이 만족해하시어 장안에 소문이 났으며 지금까지 삼풍백화점 영령들을 포함해서 약 300쌍이 영혼의 인연을 맺어 극락으로 천도되었으며 지난 4월 13일「KBS2 - TV VJ클럽」이라는 프로에 방송이 나간 후 전국 각지에서 부모 형제 님과 사찰에 계신 스님들께서 수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1개월간 여자영가 결혼식 비용 무료로 해드립니다.
문의 02)835-9797
자료제공 : 한국 가족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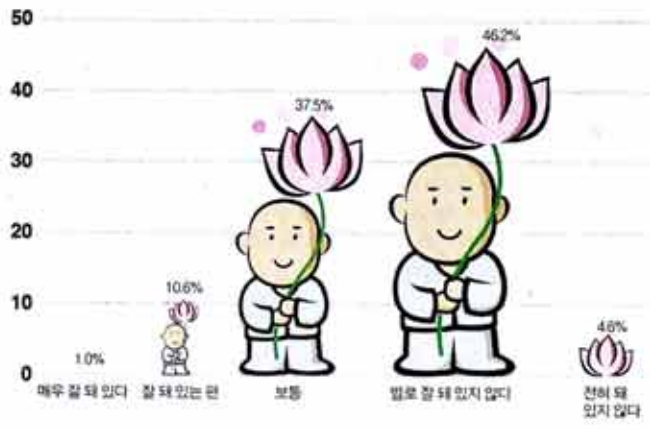
목초수액시트 가격인하
잠자는 동안 발바닥에 붙어 온몸을 상쾌하게!!
발바닥에 붙여 몸속 노폐물을 빼내는 화제의 상품 목초 수액시트!!!
효도선물용최적
골드 150매 판매중

○ 발은 제2의 심장
전신의 급소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44,000원 → 30,000원 / 30매(골드): 일반 85,000원 → 60,000원 / 60매
50,000원 → 40,000원 / 30매(골드) 160,000원 / 150매
50,000원 → 45,000원 / 30매(일본산) 99,000원 → 85,000원 / 60매
※ 이런 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 온몸이 차거나 저리거나 팔 다리가 쑤시는 불편하신 부모님
•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수험생,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직장인
• 산후조리 및 자고나면 손발이 붓는 분
• 수술 및 장기간 약물 복용하는 분
• 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분
• 이유 없이 항상 피곤하신 분
자매품 : 일반목초액 500cc 20,000원,식용 목초액 900cc 120,000원
목초비누 3개 30,000원
www.GAJA.TV 송금후 1~3일 택배로 배달
판매원 : 가자라이프
상담(02) 5454-010
농협: 063-02-124288
국민: 010-01-0617-701
예금주 : 이수일

우편 · 면접설문 분석결과

정보네트워크 구축 불교계 발전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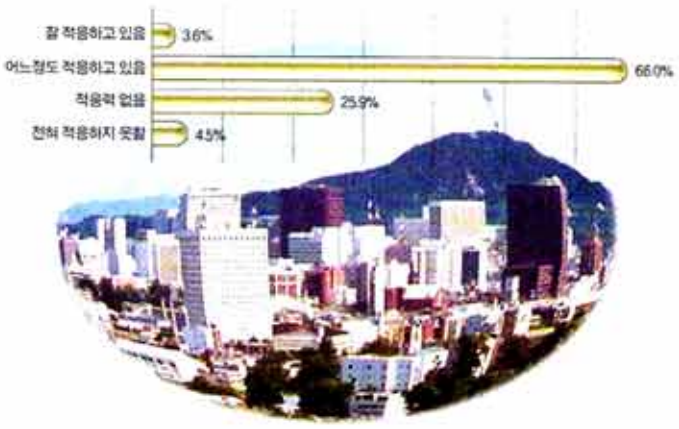
▶불교계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



▶정보화의 사찰업무 개선 기여도



▶불교계의 정보화 사회 적응 정도



불교계 정보화 수준은 어느정도 일까? 불교계 정보화 수준에 대한 평가는 컴퓨터 사용, 종무관리 프로그램 사용, 인터넷 접속, 홈페이지 보유, 인터넷 카페나 동호회 운영 등 다양한 부분으로 나누어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 할 수 있겠지만 본 조사에서는 사찰(단체)를 운영하는 소임자들의 평가를 분석해 본 결과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체 응답자 1,146명 가운데 50.8%(583명)가 비교적 잘 안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고, 37.5%(430명)가 보통이다, 11.6%(133명)가 잘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신도의 고령화, 스님의 정보화 인식 부족 등이 불교계의 정보화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다고 인식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어린이 · 청소년을 포함한 청 · 장년층 포교 강화 등을 통해 불교계도 정보사회에 적응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불교 정보화가 사찰(단체)의 업무와 어느정도 관련성이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응답자 1,138명 가운데 48%(546명)가 밀접하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36.5%(415명)가 보통이다, 15.5%(177명)가 관련이 적거나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사찰(단체)의 업무처리가 원활해지고 관련성이 많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불교 정보화가 사찰(단체)의 업무를 어느정도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도 70%이상이 긍정적으로 응답해 정보화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찰(단체)의 업무가 개선된다는 의견이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교 정보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본 조사 단체나 기관의 자율적 차원' 4.9%(53명), '교육기관 중심' 4.5%(49명), '불교 언론 기관 중심' 3.6%(39명), 기타 0.9%(10명)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각 사찰(단체)의 구성원들이 의도하고 있는 불교 정보네트워크가 종단 차원을 넘어서 불교계 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네트워크로 구축하자는 의견임을 알 수 있다. 거시적 차원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단순한 라인의 연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와 가치의 공유와 더불어 각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구축, 그리고 업무의 공유화 등을 포함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불교 정보네트워크의 다양한 수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스님 등 전산화 마인드 대체로 미흡

사찰대표자 무관심 · 구성원 몰이해 · 신도 고령화가 원인

운용주체 · 전문인 양성 서둘러야 할때

결과에서도 전체 조사대상자 1,203명 가운데 89.1%(1,072명)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불교 정보화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포교활성화를 위해' 37.8%, '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24.8%, '정보 공유' 23.9%, '업무의 효율성 제고' 10.6%, '소속감 강화' 2.4% 등으로 나타났다. 불교 정보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포교라는 종교적 목적의 이용을 전제로한 응답이 가장 많은 것은 사람들이 불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포교정보가 잘 교류되기를 바라는 의견으로 해석된다.

불교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불교계 전체를 연결하는 거시적 네트워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80명 가운데 '불교계 전체를 연결하는 차원'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의견이 56.5%(610명)로 절반이 넘었고, '종단 차원' 21.9%(237명), '교구 본사에서 소속 사찰을 중심으로' 7.6%(82명), '유관

나갈 수 있는 운영 주체 및 전문 인력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불교계가 정보화 사회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는가를 조사해 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자 1,111명 가운데 69.6%(783명)가 잘 또는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반해 30.4%(338명)가 적응력이 없거나 전혀 적응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이것은 각 사찰(단체)에서 정보사회에 살아가는 적응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불교계의 정보화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종단 및 사찰을 운영하는 지도부를 포함한 사부대중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찰 구성원 모두가 정보화 마인드를 갖는 것이 불교계 정보화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불교정보화협의회 결성 추진

조계종 · 교계 언론 3사 주축 … 각종단 · 단체 합류

불교정보화실태조사는 조사 작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상을 파악하고 난 뒤에는 발전적인 행동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불교계의 정보화 사업은 개별 종단적으로 추진되거나 법인 혹은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소극적인 정보화의 단계로 볼 수 있는데 그나마 재정적 뒷받침이 빈약해

실무운영위 구성 발전방안 등 논의

획기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개별적 정보화 노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교계 전체의 정보화 공익사업을 추진할 거대 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래서 지난 5월 조계종 총무원과 실태조사를 주관한 불교방송과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축이 되어 (가칭)불교정보화협의회를 구성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6월 4일 첫 모임 이후 조계종과 태고종 등 종단과 단체 15곳이 합류했다. 현재는 각 단체의 실무자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불교계의 정보화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불교정보화협의회는 올가을 정식 발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불교계의 정보화와 관련, 각종 연구와 공익사업의 시행 등 포괄적인 영역을 활동 범위로 삼고 있다. 향후 뜻을 함께하는 단체와 종단을 계속 영입해 회원단체도 늘여나갈 방침이다.

불교계 전반 인프라 구축 시급

역사 · 문화에 용해된 불교 새가치로 발전돼야

22개 단체 건의문

(가칭)불교정보화협의회와 수덕사 등 조계종의 8개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이 불교정보화실태조사 보고서의 발간에 맞춰 '불교 정보화분야 발전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하고 불교계 정보화 사업에 정부와 불교 종단 및 단체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촉구했다.

건의문은 보고서 부록편에 실렸으며 동참한 단체는 모두 22곳이다. 건의문은 불교가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적 근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화 사회에서 발전지향적인 행보를 걷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각계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건의문은 4개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첫째는 각종 정보화 사업을 통해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용해된 불교의 자양분이 새로운 가치로 창조되어야 한다는 점, 둘째는 정부의 종교격차 해소 사업 등에서 불교가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셋째는 불교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보화 인프라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 넷째는 불교의 정보화 사업은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이에 대해 정부의 지대한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 등이 강조되었다.

이 건의문은 불교계 정보화 분야의 발전은 민족문화유산의 계승발전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폭넓은 정보화 교육과 인프라의 구축, 콘텐츠의 개발보급 등 3단계 발전 모델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인간 승리자들의 모임 챔프그룹 한국 농·종·소(주) CGN.co.Ltd

현재 MBN 매경TV ch20 "류창열의 건강특강" 및 이벤트방송 "류창열의 살 맛 나는 세상"에서 명강의 中

건강은 가정의 행복과 사업을 번창시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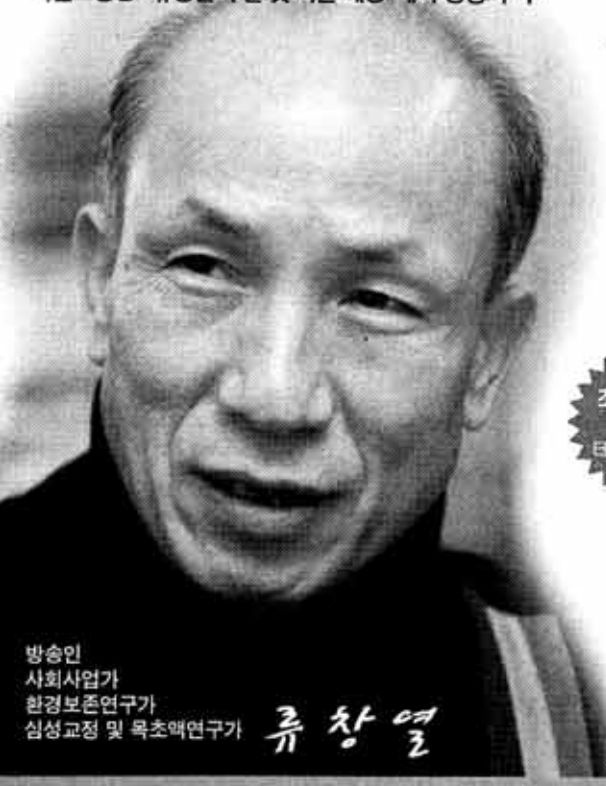
질병을 고치는 책

참 나 무 간질환·당뇨병·암·무좀·각종 피부병에 놀라운 효과!

목초액이 병을 고친다

노벨상 3회 수상으로 입증된 목초액의 놀라운 효능

내용 제1장 : 목초액이란 / 제2장 : 목초액의 유래 / 제3장 : 목초액의 효능
제4장 : 목초액의 활용법 / 제5장 :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준 신비의 목초액



방송인
사회사업가
환경보존연구가
심성교정 및 목초액연구가 류 창 열

최신간! 명강의 테이프 포함!



값 1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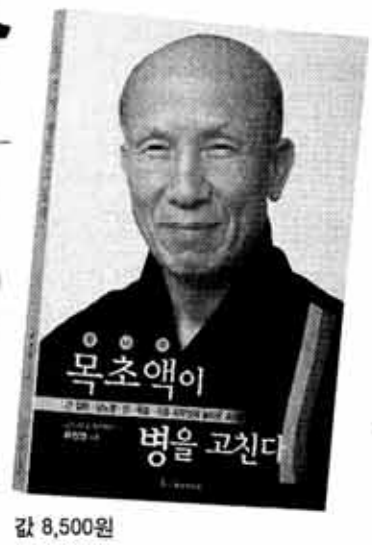
심보를 고쳐야 병이 낫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마음건강학
마음이 병을 부르고 마음이 병을 낫게 한다!

飮食과 養食에 의해 건강과 질병으로 변하는 과정

음식→입→마음 〈 부정→부패→독소→탁한 피→면역기능 저하→세포질병, 노화촉진 / 긍정→소화→영양소→맑은 피→면역기능 상승→세포건강, 젊음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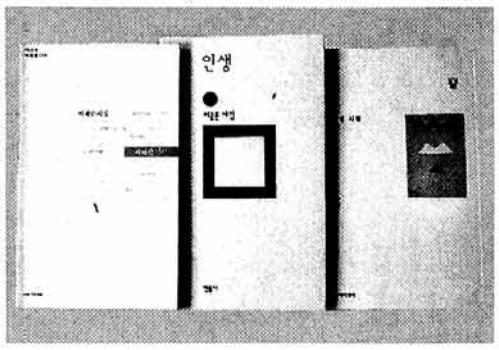
특전을 드립니다
도서 구매자에 한해 매주 월-목 오후 2시-4시 건강과 풍요로운 생활 을 주제로 하는 저자 무료공개특강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값 8,500원

도서는 전화주문으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목초 관련 제품 문의 및 주문도 받습니다) / 전화 02)516-8939 팩스 02)516-8923 / 국민은행 754-21-0439-180 예금주 : 김예영 / 전국 어느 서점에서나 판매합니다.

테마독서 휴가중에 詩心을



'외진 별정우체국에 무엇인가를 놓고 온 것 같다/어느 삭막한 간이역에 누군가를 버리고 온 것 같다/그래서 나는 문득 일어나 기차를 타고 가서는/눈이 펑펑 쏟아지는 좁은 골목길을 서성이고/쓰레기들이 지저분하게 널린 저잣거리도 기웃댄다/놓고 온 것을 찾겠다고' (떠도는 자의 노래)

신경림 시인이 4년 만에 새 시집 〈뿔〉(창작과 비평사)을 펴냈다.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시를 쓴다"고 밝힌 시인의 글에는 사회적 약자와 보잘것없는 존재를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묻어난다. 최근 유행하는 시들에 대한 걱정을 담은 시인의 산문도 눈길을 끈다. 시인은 "우리 시가 억지에 의해 부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사소한 것에 매달려 시 자체를 왜소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모두 절규성의 상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제/ 돋보기가 필요한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머얼리서 바라다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원시遠視)

오세영 시인(서울대 국문과 교수)은 자신의 연시들을 묶어놓은 시선집 〈잡들지 못하는 건 사랑이다〉(책만드는 집)를 "77편, 절망과 사랑의 시"라 명명했다. 삶과 사랑을 바라보는 시인의 깊은 시선을 느낄 수 있다.

'흐린 가을 저녁 찬비는 내리고/ 일월(日月)이여 있음은 무엇이고 없음은 무엇인가/ 언제나 벼락이 있고/ 멀쩡한 대낮에 비가 오네/ 그러므로 일월(日月)이여/좀더 닦아야 하리/ 이 책상도 닦고…' (일월)

서문에서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해체주의를 거쳐 불교와 만나게 된 건 고마운 인연이다"고 밝힌 이승훈 시인은 시집 〈인생〉(민음사)에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무주(無住)', 즉 '머무는 것은 없고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라 말을 주요 모티브로 삼고 있다. '나는 없다, 모든 것은 허상이다'라는 깨달음으로, 시와 인생에 대해 진지하고 명상적인 시들을 선보인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더욱 숨이 찬 것은/ 딱딱하고 두꺼워지는 공기 때문만은 아니다' (부활을 꿈꾸며)

이재무 시인은 여섯 번째 시집 〈위대한 식사〉(이재무 지음, 세계사)에서 시의 영역을 보다 보편적인 삶의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등단 이후 농촌의 생동감 넘치는 삶과 도시의 무미건조한 일상을 그려온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자연파괴와 생태계 복원을 말한다.

신경림 시인 4년만에 새시집 '뿔'

이승훈 시인 불교인연 명상적 시





미국의 자유, 인디언의 멸망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

디 브라운 지음 / 최석준 옮김

가장 많이 읽힌 인디언 역사책의 하나

"가슴 미어지는 이책을 읽다보면 누가 야만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

신대륙은 없었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백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 땅이었을 뿐이다. 그곳은 오랜 세월 동안 그곳의 자연과 한몸을 이루며 살아온 '인디언의 땅'이었다.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인디언 역사책 가운데 하나인 〈나를 운디드니에 묻어주오〉(디 브라운 지음, 최준석 옮김, 나무심는 사람)가 나왔다. '미국 인디언 멸망사'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 비장미 넘치는 인디언의 최후를 당대의 시대 상황과 증언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다.

최후의 인디언들은 이렇게 말한다. "백인들은 우리 고유의 생활 방식을 버리고 자기네처럼 살게 만들려고 했다. (…) 우리가 백인들에게 인디언처럼 살라고 했더라면 그들도 반발했을 것이다. 왜 바꿔 생각하지 못하는가." 미국 서부의 인디언 부족인 샌티 수우족의 추장 큰 독수리의 말이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미국인의 자유를 위한 제물이 되었고 살아남아서는 '보호 구역'에 갇혔다. 따라서 그들에게 가해진 피의 역사는 미국인들의 '위대한 서부 개척사'가 된다.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신문인 '워싱턴 포스터' 조차도 "이 애타고 가슴 미어지는 책을 읽다보면 정말로 누가 야만인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적고 있다.

붉은구름 · 아침별 · 앉은소 · 작은까마귀 · 열마리곰 · 흰유령 · 바보개… 시적 영감으로 충만한 이름을 가졌던 인디언들은, 최초에 백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왔을 때, 그들에게 잠자리와 먹을 것을 나눠 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백인들로부터 목숨과 터전을 빼앗겼다.

지은이 디 브라운은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과거의 인디언이 어떠했나를 앎으로써 현재의 인디언을 보다 명확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다큐멘터리 작가다운 말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는 오늘의 우리는 '인디언'이라는 낱말을 '현대 문명'이라는 말로 바꿔 읽을 필요가 있다. '세계화'라는 말로 대변되는 오늘의 문명은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신대륙 대신 전지구를 백인 특히 미국의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현대 문명 자체가 인디언처럼 파괴와 경쟁의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인디언 멸망사이자 인류 문명의 내일에 대한 예언서로 읽을 필요가 있다.

인디언 멸망사는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1492년)에서부터 인디언의 운명을 결정짓는 운디드니 전투(1890년)에 이르는 400여년에 걸친다. 그러나 이 책은 1860년에서부터 1890년까지 30년 동안의 한 세대에 초점을 맞추어 인디언의 멸망 전과정을 생생히 복원해 낸다.

다큐멘터리 문학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이 책은 1971년 출간 이후 17개 언어로 번역되어 500만 부 이상 팔렸다. 값 1만8천원.

윤제학 기자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

달라이 라마 지음 / 강주헌 옮김



우리 시대의 '살아 있는 부처'로 추앙받는 달라이 라마는 동성연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달라이 라마의 아주 특별한 선물〉에서 달라이 라마는 동성연애는 계율에 어긋나는 행위가 틀림없지만 폭력이나 살인과 달리 그 자체로는 해롭지 않다고 말한다. 따라서 동성연애를 한다고 해서 그들을 범죄자로 취급하거나 불교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 책은 '젊은이들에게', '병든 사람에게', '교사들에게', '술이나 마약에 빠진 사람들에게' 등 구체적인 대상에게 주는 가르침, 즉 '가슴으로 전해주는 잠언'이다. 또한 우리가 고통 받는 가장 큰 원인을 '지나칠 정도로 많이 생각하면서도 그 방법이 건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자신을 비롯한 세상 사람들에게 안겨줄 이득과 불편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책에 담긴 조언들은 그가 '가슴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것'이며 '평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들에 바탕을 둔 것'이다. 청아 펴냄. 값 9천원.

평생 경험 '가슴으로 전하는 잠언'

만화로 보는 어린이 팔만대장경

김영만 글 / 이행남 그림



흔히 '팔만사천 법문'이라 불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는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것들이 많다.

〈만화로 보는 어린이 팔만대장경〉은 그 중에서도 백미로 꼽히는 〈본생경〉과 〈백유경〉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45개 일화를 가려 뽑았다.

주인공 목탁 동자는 어린이들에게 팔만대장경에 나오는 유익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기 위해, 목탁을 타고 세상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닌다. 일층과 이층도 짓지 않고 화려하고 웅장한 삼층 누각만 지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 부자를 만나고 나선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결과가 어디 있다고 저럴까?"는 얘기를 들려준다. 동물들도 반면교사이긴 마찬가지다. 제 손에 완두 알을 많이 쥐고 있으면서도 땅에 떨어진 완두 한 알을 욕심 내다 손에 쥔 완두 알을 다 떨어뜨린 원숭이를 보고 목탁 동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떠올린다.

'지혜를 키워주는 이야기' 20개와 '자비심을 키워주는 이야기' 23개가 실려 있다. 바른사 펴냄. 값 8천5백원.

본생경 · 백유경서 뽑은 일화 45

불교문예 2002 여름호

불교문예 2002년 여름호가 나왔다. 통권 20호인 이번 책에서는 기획특집 불교시인론에 정휴 스님을 다루었다. 197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스님의 작품과 동원대 고명수 교수의 시인론 '구도와 정화, 그 적막의 희열'을 실었다.

또한 특집으로 박희진, 민영, 정공채 등 38명의 시인이 지난 5월 4일 조계사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현대불교문인협회 봉축시 낭송회에서 발표한 '부처님오신날 봉축시'도 담았다. 값 6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 · 편자	출판사
1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2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3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 낫 한	김 영 사
4	꽃은 저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명 정	예 문
5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6	붓다의 가르침과 팔정도	전 재 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
7	시선	원 성	이 레
8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류 시 화	김 영 사
9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 화 동	은행나무
10	찻잔 속에 달이 뜨네	지 운	도서출판법공양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불교 속의 문화, 문화 속의 불교
불교와 문화
2002년 7·8월호



이제 인터넷에서도
『불교와 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www.kbpf.org
인터넷이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쌍방향이 서로 교류하여 발전을 도모하는 장인만큼 『불교와 문화』도 지역과 시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자유로운 사이버공간에서 독자 여러분과 함께 호흡합니다

특별기고 / 문화사적으로 본 2002 한일 월드컵
• 월드컵과 한국인, 한국문화를 말한다

불교쟁점 / 무엇이 불교적인가
• 현재의 불교 연구 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
- "이제는 동아시아학으로서의 불교 연구 필요하다"

영화 속에서 만나는 불교
•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The man Who Wasn't There)
- 부조리한 삶 속에서 소외된 현대인의 모습

해외 불교 수행센터
• 미국인 글래스맨 선사가 미국인들의 선(禪) 수행도량으로 설립한 ZPO

컬러회보
• 사찰의 또 다른 멋, 벽화를 찾아서 - 공주 마곡사

특집 / 외국인 스님들의 국내 정착,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 불교 세계화의 척도가 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이 왜 한국 불교계를 찾아오는지, 그리고 국내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는 무엇인지 짚어 조명한다.
• 외국인 스님들이 한국에 오는 이유, 다시 돌아가는 이유
• 외국인 스님들의 교육 및 수계과정과 현황
• 외국인 스님들의 국내 수행처
• 외국인 스님들의 국내 정착, 문제점은 무엇인가

성낙주의 문화재소설 - 경주 석굴암
• '불목하니 헌화가(獻花歌)'

포커스 1 - 제1회 한국불교학결집대회를 평가한다

포커스 2 - 일본 인도학불교학회 마에다 센가쿠 이사장 인터뷰
〈한일 불교학의 교류 전망〉






격월간 불교와문화 전화 : (02)719-2606, 팩스 : (02)719-5052 인터넷 홈페이지 : www.kbpf.org ▶ 정가 7,000원, 1년 6호간 구독료 42,000원

당대 불교사상과 실천을 조망하는 한국불교의 정론지 !
참여불교 7·8월호 발간 !



"나는 항상 국민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물론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하여 현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주 다른 일이지요. 가슴과 행동으로 현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 달라이라마, 호주 ABC TV인터뷰 내용중에서

머리말 본래의 재일을 되살리자
특집 1 계율, 왜 생활윤리에서 멀어지나
생활윤리로 서지 못하는 계율 / 김성철 박사
재가불자의 계율수행 길잡이 / 조계종 중앙종회 포교분과위원회 편
특집 2 한국불교 주요 종단의 전략과 비전 ①
한국불교 주요 종단의 전략과 비전 1 / 진각종 편
기획연재 1 정보화 사회와 불교 ①
디지털화의 증식 메카니즘 / 김도근
기획연재 2 동서문화의 시작과 분기, 그리고…
생활속의 명상 기족의 그늘 / 한주영
만남 '부처님 말씀대로 기르치세요' / 교육계 원로 김종서 박사
특별기고 1 한 단계 한반도 평화와 쟁점 / 김용현
특별기고 2 종교NGO운동의 과제 -천주교공동체를 중심으로 / 황종렬
사찰현대화 연구 경영자원분석 II (재정, 지역환경) / 김중환
사찰경영칼럼 경영이라는 말에 거부감을 걷지 / 정웅기
불교의 눈으로 영화읽기 콤플렉스 혹은 신드롬의 멤강, 영화의 색채 / 김종국
김종찬의 경제평론 신용카드 남발이 주가 급락의 주범 / 김종찬
국제종교동향 이스라엘 병역거부운동 단체, <메쉬그볼(Yesh Gvul)> / 국제협력국
종교개혁통신 "교구본사주지 당선지, 자격없다!" / 편집위원회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buddha21@budgate.net 110-340 서울시 종로구 익선동 30-6 신화타워 205호 745-7799

격월간 〈참여불교〉는 전국 70여개 대형서점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참여불교와 관련된 좋은 기고문을 싣고자 합니다 판매가격 7,000원 / 1년구독료 35,000원 / 구독문의 02-745-7799

'텅빈 도시'서 알뜰휴가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 바다로 산으로 향하고 있는 요즘, 고속도로는 몸살을 앓는다. 휴가철엔 오히려 도시가 더 한가하다. 멀리 떠나지 않고서도 가족과 함께 휴가지 못지않은 낭만과 여유를 즐길 수 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 안들이고 휴가를 즐길 만한 곳을 소개한다.

휴가 문화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고궁·문화유적·박물관·식물원 찾아 비용 적게 들이며 낭만과 여유 '만끽'

서 울

◐창덕궁

창덕궁은 후원에 각양각색의 정자와 수만 그루의 수목과 화초가 가꾸어져 자연의 조화를 중시하는 한국 전통 정원의 특색을 잘 보여주고 있어 가족과 함께 거닐며 우리 고궁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02)762-8262

◐남산식물원

서울 도심 한 가운데 위치한 남산식물원도 추천할 만한 곳이다. 남산식물원에는 관엽식물, 다육식물, 선인장류 등 총 1,100종에 12,000여본의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데, 식물원 바로 옆에는 어린이를 위한 작은 동물원도 있으며, 남산 산책길과도 연결된다.(02)753-2651

◐홍릉수목원

홍릉수목원은 우리나라 희귀식물인 문배나무, 미선나무, 섬오리나무 등을 비롯해 세계 각국의 희귀식물에 이르기까지 초목본 식물 2000여종 40,000여 그루가 자라고 있다. 매주 일요일 수목원을 무료개방하여 유서 깊은 옛 정취와 함께 자연휴식 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다.(02)961-2651

◐길동생태공원

하남시와 인접한 천호대로변 저습지에 조성한 길동생태공원에서도 고급한 휴식을 누릴 수 있다. 참나리, 패랭이 등의 야생 초화류가 여기저기 피어나고 말잠자리, 호랑나비가 호숫가를 선회한다. 귀여운 물총새와 꼬마물떼새가 먹이를 사냥하고 흰빰검둥오리 부부가 호수를 누비는 광경도 만날 수 있다.(02)472-2770

부 산

◐바위해안 이기대~신선대

부산 남구의 이기대는 대도심 옆에 위치하고 있으면서도 해안자연 생태계를 간직하고 있는 부산의 보배다. 갯바위 곳곳에서 진주담치와 따개비를 볼수 있고, 비쑥 갈퀴덩굴 처녀바디 등 400여종의 식생이 자라고 있다. 이기대에 이어 백운포매립지와 신선대 뒷산에는 백선 마삭줄 곰솔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범어사등나무군생지(천연기념물 제176호)

금정산 범어사 입구 도로 양측에는 노송이 울창하다. 경내에는 100~130년생 참나무, 괭나무, 느티나무 등이 혼생하고 있는데 등나무 군락은 범어사 등운곡에 약 450주가 자라고 있다. 등나무 꽃이 만발하는 때에는 소나무, 팽나무, 느티나무 등 모든 나무에 등나무 꽃이 피어 금정산 절경의 하나로 꼽힌다.

대 구

◐경북대학교 야외박물관

월파원이라고도 불리는 경북대학교 야외박물관은 곱게 까린 잔디밭 위로 엄청나게 많은 석탑, 석불, 부도 등 주요 문화재들이 놓여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야외박물관으로 유명하다. 특히 일렬로 쭉 늘어진 목잘린 석불상과 문인석상은 이 곳에서만 볼 수 있다. 야외박물관 뿐만 아니라 경북대 박물관에도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이 상당수 보존돼 있다.(053)950-6536

◐남평문씨 본리세거지(인흥마을)

고려말 중국에서 목화를 들여온 문익점의 18세손 문경호가 옛 인흥사 절터에 터를 닦은 이곳에는 조선 말기 전통 한옥과 옛 정자가 있다. 대구시 민속자료 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광거당과 수봉정사, 인수문고가 있다. 문중서고인 인수문고에는 국내외 희귀고서 1만여권이 소장돼 있다.(053)637-5416

인 천

◐인천 문학경기장 월드컵 기념관

우리나라의 2002 월드컵 16강 진출 및 4강 신화 창조의 교두보인 인천문학경기장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다가선다. 기존의 홍보관을 월드컵 기념관으로 확대 개편해 월드컵 영상물 상영하고, 경기장 북측 스텐드에서 경기장 전체 설명 및 안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가족과 함께 월드컵의 벅찬 감동을 나누기에 충분하다.(032)440-3993

◐강화 은일지연사박물관

금속공예가인 이종옥 관장이 46년간 전 세계 60여 개국을 돌며 수집한 10만여점의 표본과 자료들을 한데 모아놓은 사설 자연사박물관이다. 공룡, 곤충, 나비, 조류, 동물, 화석, 광물 등 희귀한 자료들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032)934-8873

대 전

◐대청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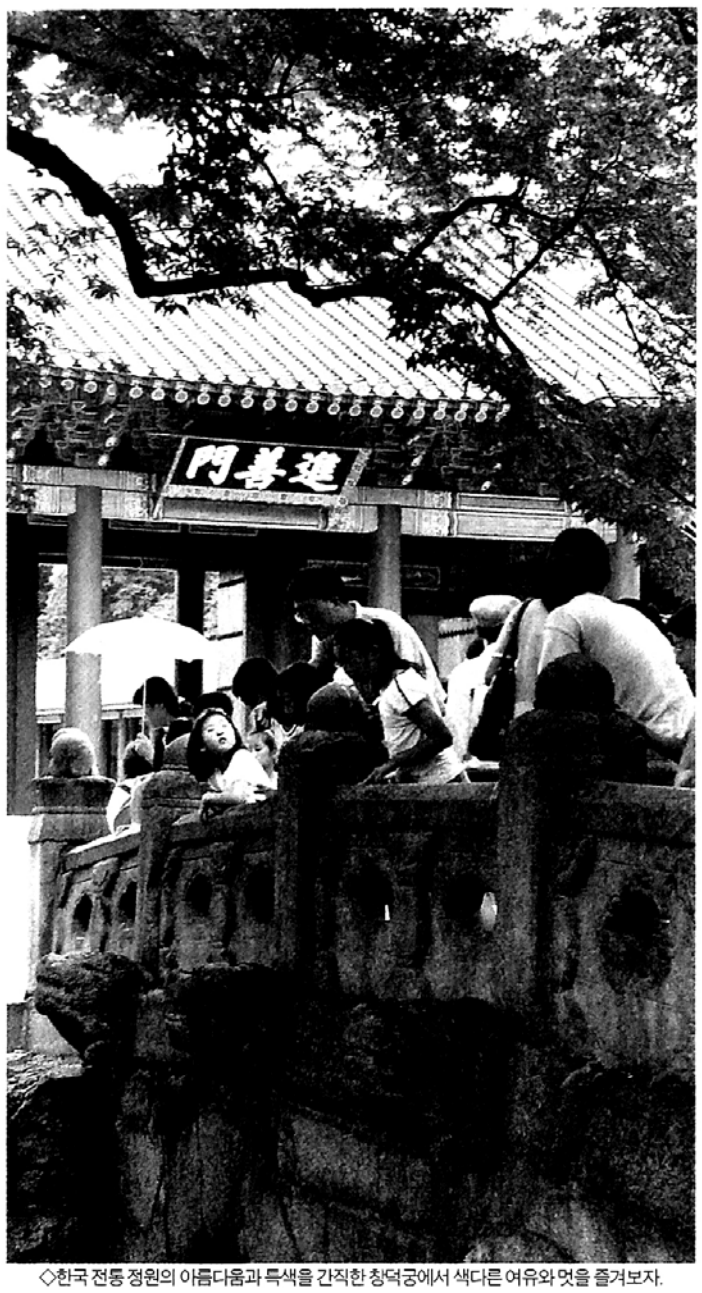
대청호는 1980년 금강종합유역개발로 조성된 맑고 아름다운 인공 호수로 대전, 충남북 일원의 상수원은 물론 공업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젖줄이다. 이 대청호의 호반도로는 4계절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하다.

광 주

◐충효동 도요지(분청사기 전시실)

무등산 동편 산록에 넓게 펼쳐져 있는 도요지로 충장사에서 광주호로 가는 금곡마을 일원에 7개소가 산재되어 있다. 분청사기 제작의 다양한 기법과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분청사기 전시실(사적 141호)도 이곳에 있다.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한국 전통 정원의 아름다움과 특색을 간직한 창덕궁에서 색다른 여유와 멋을 즐겨보자.

기고

日常의 갈증 禪詩로 적시자

김 홍 근 문학평론가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전지현과 정우성이 등장하는, 음료수 '2%'의 광고에 나오는 카피(선전문구)다. 휴가철을 맞아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갈증이 더욱 커지는 요즘, TV 광고에서 나오는 이 말이 새삼 실감나게 다가온다.

여행에 대한 갈망은 우리의 존재가 언제나 목마르다는 사실, 항상 무언가 2%가 부족한 채 살아왔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자신에게 무언가 모자란다는 사실을 느낄 때, 우리는 성숙을 향한 순례에 나선다. 철이 든다는 것은 자신의 내부에 무언가 2%가 모자란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채우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다.

마치 구름에 떴인 산꼭대기처럼 인간의 시야에 가려져 있는 그 2%의 신비를 발견하기까지 무한한 세월이 흘렀다. 지구가 탄생한지 50억년 만에 생명체 최고의 꽃인 인간이 나왔고, 인류가 탄생한지 200만년이 흘러 드디어 정신이 깨어나고, 존재의 감추어진 2%가 발견되었다. 바로 부처님이 존재의 100% 완성(佛)을 체험하고, 그 길(道)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다.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현재 가지고 있는 98%보다, 역설적으로 모자라는 2%에 있는지도 모른다. 98%의 일상은 모자라는 2%를 채우기 위해 목말라 한다. 98%의 자아에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불만족'에서 출발하여, 2%의 본래면목을 향하여 나아가는 '(초)발심'이 생기는 것이다. 일상에서 탈출하여 산과 바다를 향하는 바캉스 철은, 그 모자라는 2%를 채우려는 '발심'의 찬스이기도 하다.

존재의 이면에 숨어있는 신비로운 2%를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 극동에서는 그 2%를 채우는 것을 '선(禪)'이라고 불러왔는데, 다행히도 우리는 그 소중한 전통의 수혜자이다.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에서 확립되고 이 땅에 들어와 온전히 보존되고 있는 선의 전통은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이다. 선은 불교의 정수(精髓)다. 조사들의 치열한 수행과 법의 등불을 계승하려는 끈질긴 노력 덕분에, 우주 진화의 최정점인 '선'을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지금 선을 배우려고 하는 구미를 비롯한 세계의 수많은 지성인들은 우리의 환경을 얼마나 부러워하는가?

땅 요를 깔고, 하늘 이불을 덮고, 산을 베고 누워
달 촛불 켜고, 구름 병풍 치고, 바다 술잔을 마신다.
취기가 돌고, 흥에 겨워, 일어나 춤을 추니
긴소매 자락에 백두산이 걸리누나!

하지만 우리가 그 '선'의 본질에 접근하기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있긴 있는데 포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비라고 한다. 그 세계는 일상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수행에 동참하는 사람만이 그 맛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사들은 불가피하게 마음속의 뜻을 표현해야 할 때, '시'의 힘을 빌렸다. 시에는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일상을 벗어나는 정신적인 피서로는 이 오묘한 '선시'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이 최고다.

선시는 옛 선사들이 남긴 '정신적인 사리'이다. 앞서 간 선지식들은 우리에게 형형색색의 찬란한 그 보석을 남겨주었다. 올 여름 '선시의 맛'을 익혀보자. 그러면 앞으로 2%의 갈증이 날 때마다, 나름대로 해소하며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선시란 바로 선사들이 존재론적인 갈증과 싸워 속시원한 해답을 얻었을 때, 그것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400년 전 조선시대의 진묵스님이 남긴 선시 한 수를 찬찬히 음미해보자. 가슴속이 호연지기로 가득 차며, 100% 존재하는 실감이 나지 않는가?

'땅 요를 깔고, 하늘 이불을 덮고, 산을 베고 누워
달 촛불 켜고, 구름 병풍 치고, 바다 술잔을 마신다.
취기가 돌고, 흥에 겨워, 일어나 춤을 추니
긴소매 자락에 백두산이 걸리누나!'

☞ 지면 사정으로 '문학속의 불교'는 쉽니다.

기도처 자연속에 보금자리 자광원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선택입니다.



기도처 자광원의 특징

» 남한산성 자락에 위치하여 쾌적한 환경 속에 날마다 부처님을 모시고 염불과 기도정진으로 마음을 닦으며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즐기며 보내시도록 새로운 기도처를 마련하였습니다.
» 20년간의 무료 노인요양원인 사회복지법인 부처님 마을 자광원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얻어진 전문지식에 의하여 설계된 노인을 위한 기도처 입니다.
» 외롭고 우울하게 혼자사는 노인 또는 부부노인중 한분의 거동불편으로 의·식·주 해결에 고민하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낙원입니다.
» 자손들에게는 효도의 기회를 노인들에게는 안락한 여생을 제공하며 임종 시까지 정성껏 모셔드리겠습니다.
» 타 실버타운과는 확실히 차별되는 편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표1)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 및 시설개요

◈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116
◈ 대 상 : 만 65세 이상. 노환스님 또는 부부, 개인 등 거처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
◈ 정 원 : 24명~30명 내외
◈ 시설개요 : 본 건 물 →방규모(약 5평) 24실 (각실 인토폰 설치)
→오락실, 체련실, 제1물리치료실, 팔각정자
부대시설 →제2물리치료실, 목욕탕, 이·미용실, 법당, 식당
◈ 입방비부담 : 평생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 자비부담
◈ 연 락 처 : 전화 031)759-5320 팩스 031)759-4209



2002년 5월 15일 개원 대한불교 조계종 자광원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54-3733



◇신선대 기슭에서 발원한 계류가 빚어낸 높이 15m의 아름다운 오송폭포가 시원스레 물줄기를 쏟아내고 있다.

계곡좋은 山寺서 심신정화

심산유곡에 자리잡은 사찰은 대부분 계곡을 끼고 있다. 시원한 숲그늘, 맑고 차가운 계곡 물에 달아오른 발을 담그고, 물에 담가놓은 수박 한 점 베어물면 극락이 바로 이곳. 진정한 휴가란 '번뇌'를 놓는 것. 부처님의 품에 안긴 계곡에서 제대로 한 번 쉬어 보자.

시원한 숲그늘 · 맑고 차디찬 계류
발 담그고 수박 한점 베물면 더위 '싸~악'

◑삼화사 무릉계곡(강원 동해시)

두타산과 청옥산이 만들어 낸 계곡이다. 호암소에서 시작, 4km 상류의 용추폭포가 있는 곳까지를 말한다. 수백명이 앉아도 충분한 무릉반석만 봐도 계곡의 호방한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삼화사, 학소대, 옥류동, 선녀탕으로 절경이 이어진다. 두개의 물줄기가 시원스레 쏟아져 내리는 쌍폭과 용추폭포기 계곡절경의 백미. 무릉도원이라고도 불리는 이곳은 고려때 이승휴가 살면서 〈제왕운기〉를 저술했고, 조선 선조 때 삼척부사 김효원이 이름을 붙였다. 무릉계곡관리사무소 (033)534-7306.

◑속리산 시어동계곡(충북 보은군)

문장대와 속리산 주봉을 잇는 백두대간을 경계로 동쪽 지역을 화북 속리산이라 한다. 이곳에는 낙동강으로의 긴 여정을 준비하는 시어동 계곡들 속에 오송폭포와 장각폭포라는 멋진 폭포가 있다. 오송폭포는 보기에 따라 5단 또는 7단의 층을 타고 물줄기가 구르지만, 비 온 뒤에는 층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장쾌한 자태로 우렁차게 쏟아진다. 인근에는 신라 진흥왕 14년(553년) 인도에서 불경을 가지고 돌아온 의신조사가 창건한 법주사와 신라 경문왕(861~874)때 자정 선사가 창건한 고찰 공림사가 있다. 속리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043)542-5267

◑불영계곡(경북 울진군)

15km에 달하는 명승 6호로 지정된 계곡이다. 불영계곡은 성류굴 맞은편인 수산리로부터 노음리, 천전동, 건작, 하원리 등으로 이어진다. 하원리에 위치한 신라 고찰 불영사를 중심으로 부처바위, 주절이바위, 창옥벽, 명경대, 의상대, 산태극, 수태극 등의 명소가 30여군데에 이른다. 절벽은 흰빛을 띠는 화강암으로, 맑은 물과 어우러져 선경을 이룬다. 계곡이 아스라이 내려다 보이는 찻길도 계곡을 감상할 수 있는 환상적인 드라이브 코스다. 2층 팔각정인 선유정과 불영정에서는 잠시 차를 멈추고 계곡미를 감상할 만하다. 불영사는 신라 진덕여왕 5년(651년)에 의상대사가 세웠는데, 연못에 부처님의 그림자가 비친다고 해서 불영사란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전한다. 불영사 (054)783-5004

◑대전사 주방계곡 (경북 청송군)

주왕산국립공원을 대표하는 계곡이다. 주왕산 등산객의 대다수가 이 계곡을 즐겨 찾는다. 중국 당나라 때 진의 부활을 꿈꾸며 후주천왕을 자칭, 반역을 일으켰다 패퇴해 이곳까지 도망온 주도의 전설이 전해져 내려온다. 들머리에 자리한 사찰 대전사에서부터 계곡길은 시작된다. 대전사 뒤편의 기암(旗岩)을 비롯 병풍바위, 급수대, 학소대, 시루봉 등의 바위며 절벽이 계곡의 아름다움을 수놓는다. 폭포가 멋지다. 제1폭포는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한다. 2, 3폭포를 거쳐 주왕산꼭대기의 오지마을인 내원마을까지 가는 길이 특히 푸근하다. 대전사 보광전안에는 임진왜란 당시 이여송(李如松)이 유정에게 보냈다는 친필 서신을 목판으로 음각한 것이 보관돼 있다. 보광전 앞의 석탑은 근처에 흩어져 있던 석탑재를 짜맞춘 것이다. 주왕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054)873-0014

◑선운사 도솔계곡 (전북 고창군)

터널을 이룬 숲옆으로 도솔계곡이 뻗어 있다. 들머리에 송악(천연기념물 367호)이 있다. 극사실적 기법으로 바위에 소나무를 양각해 놓는 것 같다. 여기서 2백m쯤 떨어진 곳에는 선운사가 있다. 선운사에서 도솔암까지는 3.2km. 길은 넓고 평탄해 어린아이들이 걷기에도 무리없다. 진흥왕이 말년에 수도했다는 진흥굴, 8개의 가지가 뻗어 있는 장사송(천연기념물 356호)을 지나면 도솔암에 닿는다. 도솔암 왼편의 암벽 칠송대에 양각된 도솔암마애불(보물 1200호)은 국내 최대의 암벽불상. 선운사를 창건한 검단선사의 비결서와 동학혁명에 얽힌 이야기를 되새기게 해준다. 선운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063)563-3450

◑태안사계곡(전남 곡성군)

보성강을 건너 동리천을 따라 오르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태안사 계곡을 만날 수 있다. 태안사 입구에서 절까지 길어가는 2㎞쯤 되는 울창한 숲길을 따라 계곡도 나란히 흐른다. 고로쇠나무, 떡갈나무, 단풍나무, 소나무가 우거진 숲 속의 계곡에 발을 담그면 한여름 무더위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다리이면서 누각이고 금강문 역할을 하는 능파각은 단연 태안사의 으뜸이다. 능파각을 건너 숲으로 접어들면 천년고찰 태안사다.(061)362-4906

◑보림사 봉덕계곡(전남 장흥군)

봉덕계곡은 장흥군 유치면소재지에서 6㎞ 떨어진 지점에 있다. 이 곳에 자리잡고 있는 가지산 보림사는 동양 3보림중의 하나인 명찰로서 통일신라 경덕왕 18년(759년) 도의선사가 가지산문파를 열고 선종을 설파한 이래 그의 2대 제자 보조선사가 대적광전을 세우고 철조비로사나불좌상을 주조해 안치함으로써 면모를 갖추게 됐다. 특히 15㎞에 달하는 긴 계곡의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우거져 가족과 함께 보내기에 제격이다. 보림사 (061)862-2055

레저 담당=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新 동의보감 (5)

다한증



김 승 수

한의학 박사 · 송암한의원 원장

여름에는 땀때문에 불편함이 늘어난다. 땀은 증발열의 발산에 의해 체온을 조절하고 피지(皮脂)와 함께 피부의 건조를 막으며 피부의 표면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는 작용을 한다. 특히 땀나는 정도가 지나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가 바로 다한증(多汗症)이다. 손에 땀이 많아서 글씨 쓸 때 종이가 찢어지기도 하고, 물건을 집기 어렵거나, 악수 할 때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까봐 걱정하는 일도 생긴다. 이런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서양의학에서는 수술요법을 쓰는데 반해, 〈동의보감〉에는 오장(五藏)과 경락(經絡)의 조절을 통해 순리적으로 땀을 다스리는 방법이 소개돼 있다.

〈동의보감〉의 진액문(津液門)에는 땀의 원인이나 땀나는 시기를 기준으로 자한(自汗)과 도한(盜汗)으로 나누었고, 땀이 나는 부위에 따라 나누어 설명했다. 자한(自汗)은 저절로 나는 땀이란 뜻으로, 연제나 땀이 축축하게 나다가 운동을 하면 더 심하게 나는 땀을 말한다. 원인은 양기(陽氣)가 허(虛)한 것이라 했는데, 실제로 기력이 약하고 소화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한이 많다. 몸을 방어하는 양기(陽氣)가 약하면 땀이 많이 나오는 것이다. 치료할 때에는 마땅히 양(陽)을 보하고 위(胃)를 고르게 하는 것이 좋다. 인삼, 황기, 계지, 부자 등을 사용한다. 도한(盜汗)은 식은땀을 말하는데, "신(腎)이 병에 생기면 잠잘 때 땀이 나고 바람이 싫다"고 하였다. 실제로 음혈(陰血)이 허하고 열이 있는 경우 즉 많이 나대는 어린아이에게 흔히 나타난다. 음허(陰虛)가 원인이므로 반드시 음을 보하고 화(火)를 내려야 한다. 숙지황, 황백 등을 사용한다. 또한 땀이 나는 부위에 따라 나누는데, 두한(頭汗)은 얼굴과 머리에 땀이 많은 것을 말하며 열이 원인이고, 수족한(手足汗)은 손이나 발에 땀이 많은 증상으로 비위(脾胃)의 기력이 모자라서 나타나며, 가슴에 땀이 많은 심한(心汗)은 스트레스와 열 때문이다. 그리고 사타구니에 땀이 많은 음한(陰汗)은 음陰) 기운이 약하여 나타난다. 요컨대, 다한증은 양기(방어력)가 약해서 오는 것과, 음陰)기운이 약해 열 조절을 못해서 오는 두 가지 스타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땀이 많은 것은 이러한 원인에 따른 결과로 이 원인을 처리하지 않은 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약해진 양기를 보충하거나, 열을 내리고 음을 보충하는 한약을 처방해서 균형을 유지하고 순리에 따른 섭생으로 정기(正氣)를 길러야 한다.(02)530-8200, www.songamclinic.co.kr

한약처방 양기 · 음기 균형유지 급선무

순리 따른 섭생으로 正氣 배양 힘써야

"질병, 마음으로 고쳐라"

"심뽀를 고쳐야…" 저자 류창열 씨의 건강법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성~'으로 시작되는 많은 질병에 고통스러워 하고있다. 신경성 편두통, 신경성 위궤양, 신경성 대장염 등등. 현대인들은 이 '신경성~'을 치료하기 위해 수많은 약을 장기간 복용한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은 또 다른 질병을 낳는다. 그렇다면 이 고통의 악순환을 끊을 수는 없을까?

〈심뽀를 고쳐야 병이 낫지〉 저자 류창열씨는 모든 병이 심뽀(마음)가 고약해서 병에 걸리고 심뽀를 고쳐야 병이 낫는다고 주장한다. 즉 심뽀가 좋으면 기가 통하고 심뽀가 나쁘면 기가 막혀 질병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질병을 고치려면 첫째, 생산적인 일에 목숨을 걸고 몰두해야 합니다. 둘째,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채소, 곡물, 과일을 소식하고, 가공과 정제, 도정된 식품이나 약은 일체 장기간 복용치 말아야 합니다. 셋째, 시비를 가리지 말고 '그러니라' 하면서 살면 젊음과 건강이 유지됩니다."

退 퇴 魔 마

앗! 아이들이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런증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 간질병환자 처럼 발작을 일으킨다.
●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걸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 아이의 눈동자가 가끔 사시가 된다.
●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원다갔다 흔들린다.
●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말을 배우는 속도가 현저하게 늦는다.
● 가끔가다 경기를 자주 일으킨다.
● 아이의 음이 사지가 뒤틀린다.
● 아이가 울때 울음소리가 아이 울울소리가 아닌것 같다.
● 아이의 목소리가 가성이 나온다.
● 고개를 앞뒤로 꾸벅이거나 좌우로 흔든다.
● 집중력이 부족하여 한군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시도 때도 없이 꾸벅꾸벅 졸음이 온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 병원에서 뚜렷한 병명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아이가 지능이 떨어진다 잘 알 수 없으니 큰병원에 가보라 등의 말을 해 주며 약을 지어 줍니다. 그러나 그 약은 대부분 어른이 상용해도 몸에 해로운 신경 안정제 입니다만 아무리 먹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때 완벽한 영체를 형성하여 다른 영들의 침입을 받지 않으나 편하게 살려는 부모와 의사들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 배를 가르고 집게로 아이를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때로는 아이가 크게 충격을 받아 영체가 깨어져 나쁜 영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위의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은 이미 다른 영에 침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상성격자가 되거나 신기를 보이면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으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요.
중생구제와 포교의 일환으로 도심에 정욱사 포교원을 개원하신 정욱스님이 여러분에 아이들을 마군으로부터 구제해 주실 것입니다.
초월견성하신 정욱스님이 퇴마술로써 불과 30분안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모든 영가를 물리치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이 들려 정신이상증세나 이상성격이 나타나는 자나 중풍, 암, 전신마비, 신체일부마비, 디스크, 골프병등 각종질병을 가진 분들을 기적의 포기 회생술로써 구제하여 드릴것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7-16
정 욱 사 02)382-2217, 017)217-2219
주지: 정욱스님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 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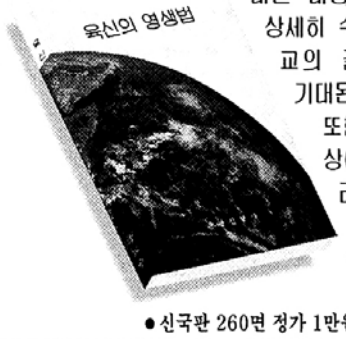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 · 우물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육신의 영생법

육신의 영생법은 장보승스님이 수십년간 수도 하시어 깨달으신 내용들을 서술한 신앙수기이다.
육체는 죽으면 매장하여 흙이 되거나 화장하여 한줌의 재로 변화하여도 결국 흙이며 그 흙은 신체의 일부이자 지구이며 다른 식물의 거름으로 또는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동함을 설파하시면서 육신의 영생법을 알아야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천도 된다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하기도 하셨다.
가정에서 사십구재를 지내는 내용이나 방법등이 상세히 수록되어 생활불교의 길잡이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육체이탈 현상이나 악신을 물리치는 퇴마사로서의 경험담도 수록하였다.



● 신국판 260면 정가 1만원 ● 소포비용은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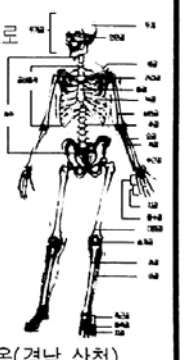
● 연 락 처 : 031)532-6661
017)380-6661
● 계좌번호 : 농협 225070-51-054089 장석근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악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나눔의 집 박옥련 · 이옥선 할머니가 태극기를 들고 종로 거리 축제에 나섰다. (2002.3)

"일본군 위안부 여성들의 삶을 사진에 담는 작업은 '사진으로 역사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 매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의 수요집회와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공동체인 '나눔의 집'에서 할머니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온 허현주(43, 중부대 사진영상학과, 사진)교수가 사진전을 연다.



사진으로 쓴 '빼앗긴 세월'

허현주 교수, 위안부 할머니 모습 카메라에

수요집회 · 일상 담은 38점 전시

5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충무로 후지포토살롱에서 '빼앗긴 세월-위안부 할머니'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할머니들의 생생한 모습이 담긴 38점의 사진이 선보인다. 수요집회에서 손을 높이 치켜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에서부터 나눔의 집에 모여 앉아 소일하는 일상적인 모습까지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처음 사진을 찍겠다고 했을 때 할머니들이 거리감을 많이 느끼셨죠. 지방에서 혼자 사는 할머니들을 찾아가 설득하고 사진을 찍는 일도 쉽지 않았고요" 하지만 부지런히 수요집회 현장과 나눔의 집을 찾아다니는 허 교수를 할머니들은 이제 '왜 늦었냐' '이거 좀 먹어보라'며 살뜰히 챙긴다. 정대협 윤미향 사무처장은 "윤 교수처럼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할머니들을 대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위안부라는 사회문제가 사진이란 문화와 결합할 때 더 큰 울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한다.

현재 전국에 생존해 있는 위안부 할머니는 140여 명. 이들 대부분이 하루 한 줌씩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 "세월이 가면 언젠가 마감될 그들의 한맺힌 모습을 끝까지 기록하려고 합니다. 할머니들에 대한 사진 기록이 그들의 넋을 위로하고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보상을 받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들의 모습을 담아 사진전을 열 계획이라는 허 교수는 "다음에는 작은 갤러리가 아니라 지하철역이나 공원 같은, 많은 사람들의 눈길이 머물 수 있는 곳에서 전시하고 싶다"며 "특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전시를 보고 할머니들의 아픔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얻는 수익금을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02)2273-5480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발운동 · 미지근한 물 샤워로

열대야를 이기세요

숙면 취하는 방법

▽적당한 실내온도는?

여름철 실내 온도는 27도, 밤에는 25도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무난하다. 에어컨은 1시간 이상 가동하면 건조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 선풍기는 벽쪽을 향하게 해서 1~2시간만 틀어 놓는 것이 좋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

자기 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숙면에 좋다. 찬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더 올라가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숙면을 위한 준비운동

두툼 아래에 쿠션을 대고 양 다리를 쭉 뻗고 앉은 뒤, 발가락을 몸쪽으로 꺾어 10초 동안 힘을 줬다가 빼는 반복운동이 숙면에 좋다.

숙면을 방해하는 일들

▽잠도 안 오는데 술이나 한잔 할까?

술을 마시면 체온이 상승하면서 자율신경계가 매우 불안정해진다.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운동을 하면 어떨까?

운동은 최소한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

▽더위 쫓는 데는 공포영화가 최고?

공포영화를 보면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 잠을 쉽게 들 수 없고 잠이 들더라도 숙면을 취하기 힘들다.

▽수박으로 갈증해소?

ㅇ 뇨작용이 있는 수박을 먹으면 요의를 느껴 숙면을 방해할 수 있다.

여성단신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

대한간호협회는 11회 세계모유수유주간(8월 1~7일)을 맞아 전국 8개 지역에서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참가할 아기와 산모의 신청을 받는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대회는 엄마젖만 먹인 만 5~7개월의 건강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며, 1일부터 14일까지 선착순 300명의 신청을 받는다. (02)853-5497

'엄마랑 나랑' 참가자 모집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민속박물관 바로알기 프로그램 '엄마랑 나랑 신나는 민속박물관'이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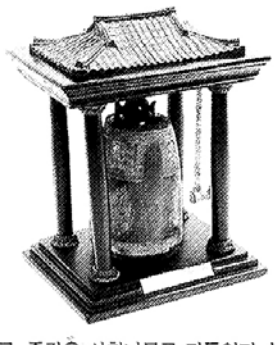
국립민속박물관과 (사)한국민속박물관회가 마련한 이번 행사는 5일부터 21일까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우리 옷과 음식', '우리 집과 궁궐', '일과 놀이'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며 12~14일, 19~21일 인터넷(http://www.nfm.go.kr)이나 전화(02-734-1346)로 신청하면 된다.

사철나무 종각 속 성덕대왕 신종

'에밀레종'으로 더 잘 알려진 성덕대왕신종(국보 29호)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큰 종이다. 신라 경덕왕이 아버지인 성덕왕의 공덕을 널리 알리기 위해 종을 만들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뒤를 이어 혜공왕이 771년에 완성하고 '성덕대왕신종'이라 이름 지었다.

'성덕대왕신종-종각대'는 성덕대왕신종을 축소한 것으로 종은 청동으로, 종각은 사철나무로 만들었다. 높이 18Cm, 값 5만원. 02)732-1520

클릭 ! 불교문화상품
www.mahamall.co.kr



주부 신행담

사찰음식과 맺은 인연 下 이여영 (한국사찰음식연구소 소장)



수십 년 동안 사찰음식에 깊은 애착을 두고 만든 것은 남편의 건강문제 때문이기도 했다. 글을 쓰는 작업은 정신을 올바로 세워야 하고 맑아야하므로 섭생의 중요성을 절절히 깨달았다. 물론 음식 맛도 중요하지만 지극히 공경하는 마음과 정성이 들어 있어야만 깊은 맛이 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뿐이 아니었다. 눈이 아프도록 원고를 정리하고 교정을 보는 것 까지 모두 내 몫이었다. 덕분에 나는 불교공부를 끊임없이 하게 되었다.

사찰음식을 한다는 입소문이 나자 십여 년 전부터 사찰 행사에 참여해 음식 주관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다. 전생의 습인지는 몰라도 항상 남에게 음식 대접해 주기를 좋아했고, 사찰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고 싶은 마음에 기꺼이 달려가 일을 도왔다.

내가 사찰음식에 확고하게 사명감을 가진 것은 6년 전의 일이다. 김천이란 지방에 대휴사라는 조그만 사찰이 있다. 몇 해 전부터 사월 초파일 전날이면 남대문 새벽시장에서 몇 아름의 꽃을 사서 김천까지 가지고 간다. 어설픈 실력이지만 정성들여 부처님께 꽃을 올린다. 그날도 새벽부터 잠을 설쳤기 때문에 꽃꽂이가 다 끝났을 때는 아주 피곤했다. 초파일 전날이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쉴 자리가 마땅치 않아 대웅전 뒷산으로 올라가 쉬기로 했다.

잠시 쉬는 찰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갑자기 눈부시게 밝은 빛이 나타나고 순간 음식이 담겨진 모습이 한 장면 한 장면 머리 속을 지나가는 것이었다. 얼마나 놀라웠는지 온 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러기를 몇 시간. "보살님, 거기 계세요? 저녁공양하세요"하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간신히 진정하고 행사를 끝마치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답은 간단하였다. 당신은 어리석고 부족한 사람이니 3년 동안 기도 정진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고 수행만 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남의 눈에 띄지 않게 기도에 몰입하게 되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잘났다고 어리석게 고개 쳐들지 말고

기도중 '하심 · 일체 상내지 말라' 깨우침

사찰음식연구소 개소 · 문하생 130명 양성

하심 하는 마음으로 일체 상을 내지 말아야 함을 깨우치게 되었다.

그동안 틈틈이 생각나는 음식을 노트에 메모해 둔 것만 해도 천여 가지나 되었다. 그 후 사찰음식연구소를 개원해 8기에 이르는 130여 명의 문하생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국 사찰음식 문화체험'이란 특강도 반응이 무척 좋았다.

올해 초에는 그동안 정리해둔 음식 중 350여 가지를 골라 '자연 건강 사찰음식'이란 책으로 펴냈다. 이 책을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께 바치며 부디 섭생의 중요성을 깨달아 각 가정의 식탁에 풍성하고 다양한 사찰 음식이 올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도 더욱 연구에 몰두해 사찰음식 알리기에 앞장 설 것이다.

끝으로 부처님의 밝고 맑은 정신세계로, 또한 음식으로 육신을 맑게 하는 법을 깨우쳐준 남편께 감사드린다. (끝)

周易의 神秘

육효학 핵심비결

송월스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전국 서점 판매중!

神과 靈이 통하는 학문. 육효학을 알면 운명이 바뀐다

동양철학은 동방문화의 기틀이요, 사회선도의 지표이다.
육효학은 점과 앞 一元의 원리 즉 주역을 본바탕으로 사상팔괘, 육십사괘, 삼백팔십사효를 응용하여 우리생활에 적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육효학이란 동서고금을 통하여 점쟁이(占者)로써는 가장 복중들이 높은 학문이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이는 물론이요, 운명에 대하여 궁금해 하는 이는 모배 중 모배가 될 것이며 허전한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줄 지침서가 되리라 확신하는 바이다.



송월스님 지음
신국판/양장본
값30,000원

사주학핵심비결

운명학을 기초해서 완성까지 가장 쉽게 정리하여 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역서

※ 전국 서점 판매중



송월스님 저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다시 풀어보는 구성학의 사주풀이

문길여 선생님의 두번째 작품 드디어 출간
국내 최초의 역학 지침서

구성학이란 우주의 돌고있는 을 이용하여 우리의부족한 을 보충시키므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구성학을 알면 운명을 알고 운명을 알면 흉운을 길운으로 바꾸어 모자라는 기를 보충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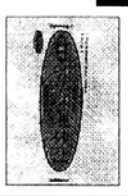
◆ 구성학의 비밀을 소개한다

1. 정생이 역술인 무속인의 운명
2. 자식이 없거나 아들이 없는 여자의 운명
3. 결혼이 늦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여자의 운명
4. 가정의 변화 직업의 변화가 많은 여자의 운명
5. 부동산 4와 4의 대충의 운명
7. 일생에서 구자까지의 뜻



문길여 著
신국판 양장본 값 25,000원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김백만 편저



지금 절실히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이 책을 필저 보십시오.

어쨌든 지금 시험을 치르고 주택을 사고 주식을 사고 팔려고 하는 등 중대한 상황에 놓여있을 때 당신은 어떻게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A5신/양장본
값 40,000원

관음역서 시리즈

1. 혜서 명리진평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30,000원
2. 21C 희신판 우리말 대운 만세력 4×6배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15,000원(大) 신국판 / 혜서 조영수 편저 / 정가 10,000원(小)
3. 재미있는 오행철학으로의 여행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12,000원(大)
4. 최신 풍수지리 핵심비 신국판 / 양장본 김용식 저 / 정가 30,000원
5. 신비의 영부적 대사전 신국판 / 김백만 편저 / 정가 40,000원
6. 그림 당사주 대전 신국판 / 이선암 진초원 공저 / 정가 25,000원
7. 사주학 핵심비결 신국판 / 양장본 / 송월스님 지음 / 정가 25,000원
8. 고전 풍수학 설심부 신국판 / 양장본 / 마태 / 정가 25,000원
9. 사주학 강의 신국판 / 법룡博士 / 정가 12,000원
10. 관상 수상학 강의 신국판 / 법룡博士 / 정가 15,000원
11. 신토정비결 신국판 / 백광 지음 / 정가 8,000원
12. 사주임상록 신국판 / 양장본 이상옥 지음 / 정가 25,000원
13. 전통풍수지리 월계관 신국판 / 양장본 진상백 저 / 정가 30,000원
14. 실전 사주학 길라잡이 신국판 / 김윤중 편저 / 정가 15,000원
15. 한국인의 신 사주팔자 신국판 / 양장본 김성권 저 / 정가 30,000원
16. 신비의 꿈 해몽 꿈풀이 실물이 대백과 신국판 / 정현우 지 / 정가 17,000원
17. 명가풍가의 관상학 비결 신국판 / 김응식 저 / 정가15,000원
18. 구성학의 사주풀이 신국판 / 양장본 / 문길여 著 / 정가 25,000원
19. 한국 풍수 이론의 정립 신국판 / 양장본 / 박봉주 著 / 정가 25,000원

관음출판사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751-15 광성 B/D 3층 T.921-8434 F.929-3470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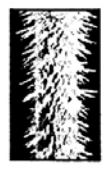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닥치는 것 마다 않고 가는 것 막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법

(전번 호에 이어서)

그래서 나중에 고맙다고 그러길래, '날 더러 고맙다 그러지 마라. 당신이 그러한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당신이 고친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여러분도 여기 오셔서, 여러분이 많으신 것 같지만 나는 여기서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나 하나니깐 보겠죠.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몸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보십시오. 이심전심으로서 마음과 마음이 전해졌을 때에 광력도 전력도 자력도 통신력도, 여러분에게 어떠한 병고가 있어도 그 안에서 광력으로서 모든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더러 "병만 고치는 것이 제일인가?" 이렇게 하지만 만약에 그 병을 앓으면서 의욕이 없이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만 있다해도 내 몸이 가루가 된 들 욕을 먹은 들, 그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할겁니다. 앞에 닥치는 거 마다하지 말고 가는 거 잡지 않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주신 법이요, 바로 우리가 세세생생을 통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보배인 것입니다.

좋은 것만 하려고 그러고 언짢은 거는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한테 이익되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남에게 해로운 것을 서슴치 않고 하고, 또는 그저 남이 해롭든지 말든지 자기가 그냥 불쑥불쑥 해버리는 그런 마음, 조금만 화가 나도 불쑥 그냥 뱉어버려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왼쪽은 잠재의식 쪽, 바른쪽은 현실의 시각적인, 감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중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맡기면 거기서 굴러서 잠재의식 쪽으로 가서, 잠재의식 쪽에서 또 나올 때는 거기를 거쳐서 현실로 나갑니다. 이게 의학적으로도 인간의 두뇌가 그렇게 돼있다는 말입니다. 나는 용도나 이름을 잘 모르지만 구조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자식들이 잘못한다 하지말고 바로 여러분이 자식들을 위해서라면, 위하는 게 돈을 많이 주고 잘 입히고 잘 먹여서가 아니라 내가 한 마디에 정을 주고 한 마디에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말 한 마디, 한 생각을 잘 할 수 있다면 이탈을 하지 않고 자손들이 모두 한마음 한뜻이 돼서 화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동기간이 되고, 또 사회도 문란하게 어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여러분이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마는 이제부터 체험을 해서 자기 자부쳐가 한마음 속에 있다는 점, 부처님께서도 아무 말 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서 한마음을 보여주시고 꽃 한 송이 들어서 대중 속으로 들어가셨으니, 한마음 한 자리에 한 바로, 평발이라는 도리를 전부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니 평발이라는 자체는 바로 진드기의 발 하나도 내 발 아닌 게 없기 때문에 평발이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손도손 하면 질문도 좀 들어보기도 하고 서로 토론도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게 있죠, 또, 여러분이 병고 없이 건강하고 젊게 사시려면은 끄달리지 않고 산다는 거. 그건 왜냐? 지구가 돌아가는 대로 섭류가 돌아가는 대로 그냥 여여하게 같이 마음이 걸리지 않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일년 살 거를 5년 더 산다는 말이 나옵니다. 5년이 더 젊다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느릿느릿 걸려 가지고는 거기에 같이 합쳐서 돌아가질 못하는 마음이라면 늙고 병들게 되지만 거기에 같이 돌아간다면 1년 돌아갈 거를 5년을 더 돌아가니까, 10년을 더 돌아가니까 얼마나 젊어집니까? 납득이 안 되실는지 모르겠지만 납득이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 일체 모든 과목에 대해서, 천체물리학이든가 과학이든가 지리학이든가 심성, 이 전체가 다, 생물학이든 모든 것을 다 그 마음 한 속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보배가 여러분한테 있고, 여러분이 어디 부려져서 병이 들거나 이러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부려졌다 하더라도 의사의 손이 바로 내 손이요, 의사의 마음이 내 마음이요, 의사의 몸이 내 몸이라면 바로 자기가 떡서서 수술하는 것도 볼 수 있고 또 잘못하면 의사가 되고, 자기가 자기 수술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도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 저 사람이 와서 별말도 안 하는데 뭘 그런가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행을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고 부드러운 말로써 부부지간에도 남의 탓을 하지말고 형제지간에도 부모자식지간에도 남의 탓을 하지말고 자비로운 행을 해야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스님, 우리 손주가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죽고 아들이 재혼을 하고 나서 그 손주가 자꾸 도둑질을 해들여 오고 나가서 안 들어옵니다." 너무나 불쌍하게 매를 맞고 그러는 걸 보면 그 할머니는 가슴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살점이 미어져 나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나도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항상 자기 한마음 속에서 등을 밝혀서 그 손자를 위해서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 애는 너무나 착해지고 정직해지고 고등학교에 다니더니 대학에도 덥석 붙었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할머니의 소원도 풀듯이,

스스로 부처 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하면 법신이요
몸이 움직이면 화신

그런 할머니도 그렇게 실험을 통하고 체험을 통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장차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또 이 세계의 원력자가 되고, 세계를 조절할 수 있는 원력자가 돼야만이 우리 나라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이나 과학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물리가 터지게 마음을 내서 한마음이 돼준다면 얼마나 이익이 오겠습니까? 내가 잘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내가 했다고 내세우지 말고, 아집과 아상, 또는 욕심을 다 버리고 묵묵히 내가 하고 싶은 데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태세, 모든 생명을 살리는 자비를 가진다면, 의리와 도의, 사랑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바로 계율도 올바로 지키고 혜안이 열려서 계정 혜를, '혜도 정이요, 계도 정이니 그 정마저 공해서 없느니라' 했다는 그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구절 구절이 부처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그런 이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거 한 가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중에 공부해 들어가는 분들은 참으로 신기할 겁니다. 그런데 본래는 신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두 자기가 재료를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기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부처요, 생각을 하면 법신이요, 몸이 움죽거리면 화신이 다 이겁니다.

인과가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아까도 쓰레기 버려서 그 인연의 인과로서 먼지 같이 일어났던 세균이 그 집에 와서 인연을 맺을 때에 병이 들려서 펄펄 뛰고 바깥으로 헤집고 그래서 식구들이 고생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 내 가만히 보니까 동네에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막 굿을 하고 야단법석이 났더라고요. 기독교인인데, 그것도, 그런데 나는 기독교다 불교다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가엾고 죄지, 죄가 어디 있습니까? 다 모르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잠깐만 불러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동네 일이니까, 굿을 하고 징을 두드려서 잠도 못 자고 그러니 차라리 그이를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불러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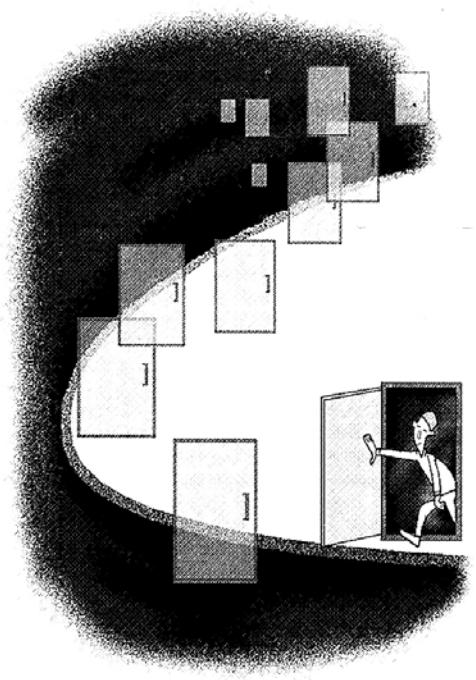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식을 위하는 건

돈 많이 주고 잘 입히는 것보다
정 · 사랑 담긴 한마디가…

말을 시켜보니까 벌써 시아버지가 며느리가 된 겁니다.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더러 담뱃대 가져오라고 그러고, 담뱃대에다 담배 끼어오라고 그러고 '마누라' 이럽디다, 며느리가. 그런 거를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뜨거운 것은 뜨거운 걸로 고치고 찬 것은 찬 걸로 고쳐야죠. 그것은 약이나 물질이나 말로서 고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줌으로써 그 사람은 문을 활짝 열고, 몰랐던 그 영혼은 그걸 알고서 오히려 마음의 고개를 푹 수그리고 자청해서 오히려 건강하게 도와주고 자기는 자기대로 환생을 합니다. 우리가 쳇바퀴 돌듯 돌아가지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별성도 그대로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껍데기를 벗으면 다시 그 껍데기로 인해서 우리 사는 데에 떨어지기도 하고 딴 데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자원이 되고 재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쓰레기가 될 수도 있겠구요.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무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도 벌써 껍데기를 벗고 다시 밝게 만들고 다시 탄생을 하고 그렇듯이 인간도 역시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죽으면 그만일 거 아무렇게나 살자, 집에 돌아가면 그만이지 하고 쓰레기 탁 버리고, 안 보이는 곳이라 누가 안 본다고 해서 아무 데나 그냥 침 탁 뱉고, 커피 마시고 아무데나 그냥 마시던 컵 버리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담배 피우다가 담배꽁초 홱 버리는데 이것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하면 자기한테로 다시 가는 거지요. 왜냐? 자기가 버렸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게 바로 입력입니다. 입력!

입력이 됐기 때문에, 도청기와 같아서 언제나 그림자처럼 여러분을 따라 다니니 그것을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종교를 믿는다고만 하지말고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데 역점을 둬야 될 겁니다. 아마.

그것뿐입니까?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모든 것이 잘못되면은 조상의 탓을 하죠. 그런데 왜 그것도 그러냐 이겁니다. 오늘은 여기 와서 인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물질에 의해서만 살다가 정신세계의 도리를 모른다면은 거기에 속해서 의식이 항상 그 차원에 있기 때문에 현재 살아서도 쏜살같이 나가죠. 한번 마음을 굴려서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대로 그 뜻대로 막 돌아가지요. 그런데 죽어서도 그 마음이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그런 예가 있어요. 엊그저께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꿈에 그 친구가 보이기만 하면 시집을 못 가게 되고, 시집을 간 사람은 또 애가 떨어지는 고통이 오고 항상 부부가 싸우게 되고, 그러다 둘이 갈라서게 되는 이러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니까 친구들이 가만히 생각해볼 때 이거 야단났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냉정한 친구들한테 가서는 범접을 안 하고 냉정하지 못한 친구들한테 그렇게 오고 가고, 가는 사이 없고 오는 사이 없이 그렇게 자기 갈 자리를 못 가고 헤매고 도는 거죠.

또 집에 들어가면요, 어느 때는 왜 그런가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니까 나도 실험하느라고요, 예전 얘기죠. 보니까 글쎄 시어머니가 왔는데요, 죽은 혼백이 갈 줄을 모르고 욕심이 나서, 재산을 두고 죽어서 "얘, 아무개야 이걸 좀 날 좀 싸다오." 하고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과가 왜 무서운가요

죽으면 그만 아무렇게 살자
함부로 침 뱉고 쓰레기 투기
그 폐해 자기한테 되돌아와

그런데 죽은 사람은 자기가 지금 몸이 있어서 보고 듣고 그러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며느리를 한 대 쳤죠, 화가 나서. 한 대 쳤더니만 며느리는 그 날부터 병이 들은 거예요. 병이 들어서 애들을 넷을 두고서 다 죽게 된 거예요. 세상에, 양쪽에서 받치고 한 발짝도 떼 놓지 못하고 온 겁니다. 그러나 딴 데서 병난 거 같으면 모르지만 나도 실험도 해볼 겸해서 '아무 생각 없이 들 아닌 것만 알라. 한마음 네 주인공에다가 모두 맡기고 거기서밖에 낫게 할 수 없다고 맡기라' 고 했습니다. 그것이 차차 가니까 들고 일어서고 그건 그것대로 둘이 아니게 돼서 인간의 아는 마음 속으로 들어가서 환토를 해가지고 잘 살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지금 법사가 돼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데 50%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물질세계의 50%만 가지고 사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기가 고통스럽고 삶의 보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이 아마 그 맛을 안다면은,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시자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바로 여러분의 몸 속에, 그 허망한 속에 진짜 여러분이 있다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마디로 그냥 운만 띄우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니 말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바쁜 분들은 집에서 편지를 하기도 하고, 또 책들을 보기도 하고, 15년인가 18년 동안 등이 구부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병원에 드러누워 있던 사람도 그 책을 100독을 하고 꿈을 꾸었는데 이 젊은 놈이 만날 드러누웠다고 하면서 작대기로 그냥 넘겨 치고, 꿈에 그러니까 '아이구!' 하면서 벌떡 일어난 것이 진짜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문제 하나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을 이익하게 하고, 여러분이 이익해야지 내가 이익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날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꼭 이것을 아셔야 만이 앞으로 시대대로 지금, 점차적으로 어떠한 시대가 왔습니까?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시대로부터 또는 곤충의 시대로부터 얼마나 거치고 거쳐서 이렇게 인간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인간이 돼 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고 벗어날 줄 모른다면은 우리는 세세생생에 고통을 받게 되고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산더미 같은 돈을 내놓고 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서, 아니 땀을 벌어서, 몇 방울의 땀을 가지고 한 달을 사시려면은 애쓰실 텐데, 여러분이 자립자족해서 여러분이 생활하는데 좀더 이익이 있도록, 병원에 갖다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한 달이면 15만원이 든다, 어떤 사람들은 20만원이 든다, 어떤 사람은 뭐 10만원이 든다, 5만원이 든다 그러는데 그것도 식구 나름이죠. 가정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그것만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병 때문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집안에 가환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우환이나 병고 액난, 답답한 마음과 더불어 가난한 자체를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여기 와서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 마음공부 해라 이런다고 흉보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디다 목적을 두고 가느냐 이겁니다. 여러분은 이 마음공부를 해서 내 몸과 내 가정, 내 자식, 내 나라, 내 나라를 위해서라면 세계를 조절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것도 목적일 뿐만 아니라 우주와 직결 되어있는 이 섭류를 다 파악해야 되니까, 여러분은 인간으로 생겨서 그 도리를 알아야 만이 인간의 도리를 취하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전부 공했다고 하고 무라고 하나 이런 것도 좀 알아볼 겸해서 여러분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더 하기 싫은데 안 해야 옳겠죠.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율이, 음파가 여러분 마음 속에 싹싹 들어간다면 다시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나한테는 그렇습니다. 음파가 다시 돌아 온다면은 바로 난 말하기가 싫으니깐요, 왜? 어떠한 병자라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도 그렇고, 이런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요거 얘기해드리고 끝마칠게요. 왜 이런 얘길 하느냐 하면 너무 장해서 그럽니다. 아들 여섯을 데리고 소금장사를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남편은 정신분열증으로서 방에만 있기 때문에 소금장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정이다 보니 텐트를 치고 자식들은 그 옆에 살게 하고, 남편을 방에 가두고 자물통으로 잠그고선 밥만 넣어주고 소금장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돼서 항상 그이는 남편을 의해서 뭐 다닌다 안 다닌다는 얘기도 없이 소금을 실컷 팔고 나서 팔기 전에 먼저 한 공기 떠놓았던 소금을 저녁나절에 가지고 오거나 아침에 팔러 갈 때에 갖다놓곤 했습니다. 소금 한 공기를, 더 받으면 뭘 합니까마는 그것도 받지 않으려고 해도 그게 그 사람의 정성이니까 누구 주고 안 주고 간에 공양간에다가 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님 저는 자물통으로 잠궈 놓고 갑니다' 이거 한마디면 고만입니다. 뭐 더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무슨 시주할 게 많으니 겁나겠습니까? 누가 재산을 뺏어갈 테니 걱정입니까? 재산을 뺏어갈려고 누가 속이는 말을 할 테니 걱정입니까? 스님, 자물통으로 잠궈 놓고 갑니다. 그거 한 마디 하고는 바쁘니깐 그냥 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금장사 하는데 김밥을 말아서 대달라고 하는 공장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김밥을 만들어서

☞ 20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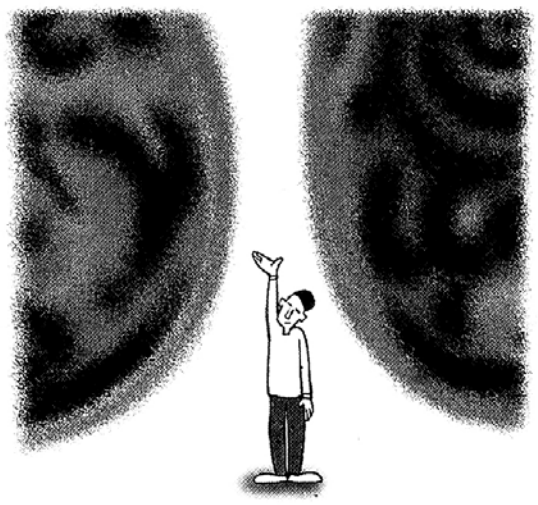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대중 향해 연꽃 들어보이신 부처님 큰 뜻 깨달아야

☞ 19면에서 계속

갖다주니까 소금 파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그 김밥 하나를 말입니다. 새로 싸 가지고는, 고 하나 말입니다. 많이도 아니고요. 김밥 하나를 종이에다 싸 가지고선 그거를 갖다가 놓고는 부지런히 가는 겁니다, 또. 이거 누가 그렇게 하래도 못합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와서 하는 말이 "남편이 다 나았습니다. 인제는 기술이 있는 대로 방에서라도 뭘 하겠다고 합니다. 텐트 쳐놓은 데서는 남편이 일하던 거를 하고, 애들하고는 방으로 전부 옮겼습니다." 이러더라구요.

그렇게 말해놓고 "스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고 올면서 소금 아니, 그 김밥 하나를 도로 거기다 놓고 가요. 이렇게 앉았으면 여기다 놓고 갑니다. 그걸 맛있게 먹으라고 손으로 자작한 건데 안 먹으면 됩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렇게 해서 참 남편도 낫고 그러니까 공장에 김밥을 말아서 대면서 돈을 잘 벌어 가지고 소금 도매상을 하게 되고 그래가지고는 어떻게어떻게 하더니 지금은 집을 잘 짓고 살게 되었고 애들도 전부 대학까지 다 가르치게 되었답니다.

아니 그러나 그뿐이 아닙니다. 내 빼먹었어요. 그렇게 소금을 이고 다니더니 어느 날 하루는 소금을 이고 장사를 하는데 하도 피가 흘러서 묵지룩하고 아파서 소금을 이고 다닐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하도 죽겠으니까 아마 병원에 간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궁암이라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랬다고 울고 오면서 소금 한 공기를 턱 하니 글쎄 놓고 가는 겁니다. 소금 한 공기를 놓고 하는 소리가, "스님, 저 자궁암이래요." 남의 말하듯, 그러고는 "나가서 일을 해야 할 테니까 빨리 갑니다, 기어서더라도 가야겠습니다." 하고는 엉거주춤하게 걸음을 걷는데 잘 못 걸으면서도 그냥 나가요. '세상에 막다른 골목에 닥치면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세상에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생각하니 어떻게 눈물이 나는지 가슴속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참 여자의 일생이라는 게 저런 것인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고는 조금 있으니깐 이건 살려줘야지 하는 의욕이 그냥 이 몸에 확 차면서 눈에 불이 팍팍 나요. 그러고는 한 사흘이 지났는데 오더니만, "스님, 웬지 안 아프고 괜찮아서 병원에 가보니까 언제 없어졌다고 하면서 오진을 했나." 이러고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 낫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한 건만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서 닥치는 대로 그걸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재료로 알아야 합니다. 재료로! 내가 병이 들었어도 그것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재료다, 이걸 가지고 공부해야겠다, 가난해도 가난한 게 재료요, 아파도 아픈 게 재료요, 만약에 법에 저촉이 돼서 어떤 문제가 생겼어도 그것도 공부요, 만약에 은행에 부도가 나서 망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재료요, 모두 재료로 생각하시고 공부 열심히들 해보십시오, 어떠한가.

세 번 죽어야 합니다

한 번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두 번 죽어 둘 아닌 도리 깨닫고
세 번 죽어 둘 아니게 나투기 위해

질문자1: 스님께서는 저희에게 세 번 죽어야 하는 도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한 번 죽을 때의 변화들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주인공 공부를 하여 단계적으로 죽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 단계조차도 그냥 하나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가르침 주십시요.

스님: 내가 항상 얘기하죠. 나를 발견할 양으로 모든 걸 놓고 들어가는 것이, 모든 걸 한 군데다 놓고 고정된 게 없이 돌아가니깐,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쑥 없어지죠? 금방 아버지였다가 금방 남편으로,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한마음의 심봉으로 모든 게 돌아가니까 그 심봉을 따진다면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으니까 없는 거죠, 심봉은 어느 편에 설 수도 없죠. 그냥 돌아가는 맷돌에 의해서 우뚝 섰으니까, 어느 편에 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깐 바로 거기 침투할 때까지 죽어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걸로 세울 수 없는 것이, 그 도리를 아는 것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내가 죽어서 둘 아닌 도리를 알고요.

또 세 번 째 내가 죽어서 둘 아니게 나투는 거죠, 왜 법신 · 보신 · 응신으로서 내 아님이 없이 나투는 …, 돼지를 건지시려니까 응신으로 돼지한테로 들어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물들까봐 걱정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래서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돼서 들어가야 저 항력을 느끼지 않지 사람이 들어가는 걸로 돼지가 알면 저항력을 느껴서 못 받아들이죠. 뱀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곤충도 그렇고, 목신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용신은 용신이 돼서 들어가야 제깍 받아들일 수 있구요, 그러기 때문에 일체 응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어서 나를 발견하고, 또 두 번 죽어서 둘 아닌 도리를, 모든 전체가 둘 아니게 돌아감을 알고, 세 번 죽어서 모두가 내 아님이 없이 내 아픔 아님이 없이 나투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또 세 번 죽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깨닫고 본다면, 그렇게만 하게 된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수박을 앞에 놓고서 '이게 뭐꼬' 하고 의정을 내고 아무리 굴려봐도 수박 맛을 모릅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죽고 사는 거를 버린 채 그냥 깨뜨려서 맛을 보는 것이 바로 일 단계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돈이 아니면 우리 식구가 죽는다 하더라도 겁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돌 위에 세워나도 살아요, 이 도리를 발견하면.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은 어떡하든지 먹이고 입히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이끌고 가는 겁니다.

잠시 산다 하더라도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갈 때는 콩깍지 익어서 건드리기만 해도 '툭' 하고 콩이 떨어지듯 말입니다. 콩이 익기를 않으면은, 여러분이 마음공부를 잘 못해서 익기를 않으면은 콩깍지가 익지 않은 거와 같아서 죽을 때도 그냥 병고에 휘달리고 콩깍지 속 껍데기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 거와 같다 이겁니다.

질문자2: 스님 법문 중에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고, 네 주장자가 없다면 네 주장자를 뺏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구에 이렇게 오셨으니 스님 주장자를 주고 가심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주셨다고 생각해도 될런지요.

스님: 예전에 임제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내가 항상 말하죠. '네가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뺏을 것이로되 네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너에게 줄 것이니라' 하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요, 첫째는 받아들이는 마음이 없다면 마음을 줄 수가 없죠. 또 두 마음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아주 숭배하고 받아들인다면 아주 기특한 마음이 들어가고 좋은 마음이 들어가죠? 그러니깐 주는 거죠. 그런데 얄밉게 해보세요. 그것을 아예 그냥 뺏음과 같은 거죠.

또 고걸 이차적으로 표현하자면 내 마음에 전화를 놓지 않았다면 전화가 올 수도 없고 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전화가 있음으로 임제스님이 전화를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자는 전화를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아예 '나한테 전화가 있다' 하고 전제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꼬' 하고 가는 것 보다 아주 전제하고 들어 가세요. 나한테 전화가 있다! 이 전화로 말할 것 같으면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고, 세상하고도 가설이 돼 있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또는 사업적으로나 모든 걸 할 때도 내가 통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통한다, 몸으로는 뛰어주고 마음으로는 통해주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제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실험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있는 것이니까 믿고 맡기자, 그리고 지켜보자, 지켜보면 알 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실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 게 참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마음의 주장자가 없다고 하지만 옛날에도, "부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불(佛)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을 때에 "똥친 막대기니라" 한 것도, 옛날에는 밑 씻개가 없으니까 작대기를 갖다가 세워놓고선 그저 누구든지 똥누면 그걸로 쓱 씻고 너무 묻었으면 개천에 가서 닦아다가 도로 세워 놓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똥친 막대기죠! 부처가 뭐 다른 겁니까? 똥친 막대기지. 그런데 똥친 막대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거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물질이 아닌 마음으로 무한량 할 수 있는 마음, 지혜를 내시고 , 무한량 남과 나와 서로 통화를 하려고 하고, 꽃도 아프다 아주 좋다 하는 것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마 자주 재미있는 게 생길 겁니다. 재미있는 체험이 자꾸자꾸 생길 겁니다.

정말 체험을 하고 실험하고 들어가는 분들은 너무나 주인공자리가 소중하고 묘하고 광대무변한 걸 진작 몰랐다고 얘기하더군요. 뭐 한두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서 어서 자기 전화통을 놓으시고 항상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 법문은 1991년 8월 25일 대구 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인터넷 방송(www.hbtv.org나 한마음방송국)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삶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지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전국 육임(六壬) 강의 안내

오행(五行)하는 사람치고 **을·기·임(乙·奇·壬)**이란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천문(天文)은 太乙, 지리((地理)는 奇門, 인사(人事)는 六壬이라는 것이지요.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 육임을 **「五術之中帝王」**이요, **「神示」**라고도 합니다.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육임 3개월한 육임가의 판단에 미치지 못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게 됩니다. 육임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 같은 것입니다.

한국 육임학회에서는 이 좋은 육임을 전국적으로 개강(開講)시켜 방방곡곡에 계시는 **현인·기사·이인** 여러분에게 육임의 진수를 알려드리고자 전국 주요도시에 **「육임학당」**을 개설합니다.
아래 장소를 보시고 편리한 곳을 택하여 육임에 입문하십시오. **법력**과 **신명**과 **도력**에 있어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입니다.

육임학당 「효사숙」 제3기 02-998-8683
육임학당 「일경숙」 제1기 02-2203-4805
육임학당 「복경숙」 제1기 02-3446-4118
육임학당 「부산숙」 제1기 011-883-8347
육임학당 「대구숙」 제1기 016-580-6654
육임학당 「전주숙」 제1기 011-650-8835
육임학당 「수원숙」 제1기 017-753-1592
육임학당 「인천숙」 제1기 011-729-6011
육임학당 「청주숙」 제1기 011-492-2376
육임학당 「광주숙」 제1기 011-9606-7090
육임학당 「원주숙」 제1기 017-377-7005
육임학당 「대전숙」 제1기 016-445-4580
육임학당 「시흥숙」 제1기 011-326-8374
육임학당 「제주숙」 제1기 064-743-3703

■ 개 강 : 2002년 9월 6일 금요일(효사숙 기준)
■ 시 간 : 매주 1회 4시간(각 학당별로 일시가 정해짐) 13주 52시간
■ 교 재 : 효사육임강의록
■ 비 용 : 일백오십만원(효사육임강의록 포함) ※카드결제 됨

한 국 육 임 학 회

육임학당 **효 사 숙**

활인전문천역자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원(휴대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원(좌정용)
● 효사 육임강의록 ——— 300,000원
●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28개) 900,000원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주문전화 : 02-993-8680 ▶부산지사 : 051-851-2349 ▶서울강남지사 : 02-2203-4805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실어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조용한 산사에서 비구니 스님과 함께 기도하며 사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정읍보림사
063)535-6800

배우자 구함
가축인공수정소를 운영하고 있는 41세 미혼남성입니다
평생을 불심으로 함께 할 미혼여성을 원함
018)415-0086

법당 화주 보살님 모십니다
(사찰 거주 가능자 60세 이상)
033)244-1095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곳은 연락바랍니다
051) 462-7374
018) 523-737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불심있고 성실하신 분
▷40 ~ 60세 사이
054)272-4633
017)502-7451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50~60세 상운사
033)482-3382~4

사찰 사무원 구합니다
041)673-3222

불교서적 원함
포교하는데 필요하오니 대장경 기타 불교 서적 보시할 분을 찾습니다.
연락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포교스님 합장
011)556-8541

동성불교사
개금 · 천불 · 범종 · 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 · P : 011)255-3286

대원사 7기 불교기본교육
불교입문의 길잡이가 되기 위해 정성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이번 교육과정에 관심있는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내용 : 사찰예절, 불교일반상식 기본교리, 신행방법 등
◆개강 : 8월 20일 화요일(주, 야간반)
◆위치 : 지하철 8호선 문정역 1번 출구
◆문의 : 대원사 02-404-1374

천도재, 구병시식
▷ 약천사
노원구 상계동
02)3391-8523
자운 합장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02) 877-7514

공양주 보살님 행자님 모십니다
041)566-6301
041)566-0722

◎ 모십니다 ◎
양로원에서 입소할 독거 노인을 모십니다
(만 65세 이상)
실비는 유료
전화 061)363-8898
팩스 061)363-8897

심야전기 온돌난방
▶ 축열식 심야전기 히트온돌난방(M.I CABLE)
▶ 축열식 전기 온수기, 온풍기, 보일러
▶ 온수 바로바로 히팅케이블 보급 시공
스노우멜팅 주차장, 출입구, 언덕, 안전도로
동파방지 및 히팅케이블 냉온수배관, 송유관, 유체라인 등의 보호
한전승인업체
남 강 기 전 02)338-0400

49재 천도재 시다림 봉불 점안 안택 각종 의식에 청하시면 전국 어디든 가겠습니다.
영산재 이 수 스님 입니다
상주할 인연 사찰을 찾습니다.
016)857-4500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공양주 구함
실상사 사부대중 공동체에서 공양주 소임을 맡아볼 사람을 구합니다.
●남·녀, 나이, 학력, 경력 불문
●자세한 사항은 원주처사에게 문의
017)640-4236
제17교구 지리산 실상사

행자님 모십니다
도심속 수려한 경관 사찰
삼각산 성라사
▷위치 : 성북동 85번지 종점 위
02)743-6630
011)9781-7301

산세수려한 도량에 복 지으실 보살님을 모십니다
011)545-2375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정릉 보림사
02)914-6187

♣ 보 리 수 ♣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 약 | 일 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행 자 모 집 [남]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1. 도심사찰의 신기원 - 한학기 3천명의 신입생, 7만의 동문신도
2. 민주적 교육에 의한 능력을 갖춘 수행자 배출 목표
3. 수계 후, 모든 지원함.
4. 행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감포분원의 산중 사찰에서 기거할 수도 있음
조계종 관음사(영남불교대학)
우학(주지 겸 학장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www.TVbuddha.co.kr
행자원 011)9852-0075 [T.053)474-8228]

공부하시면서 사무도와줄 비구니스님(행자) 모십니다
02)583-1080

스님 모실분
법회, 제의식
불공 천도 식도
생활역학하는
기도스님
011)9783-687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남해군
● 평수 : 1800평(일부 종교부지)
● 법당 : 12평(단청필)
● 요사채 : 23평
● 특징 : 앞이 강이고 옆 계곡에 물이 철철 흐름 소나무 숲이 우거짐
● 가액 : 1억 2천만원
051)208-9966/294-0828
011)551-171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수도권 (신도시 중심상가)
● 규모 : 건물 7층 160평, 대형포교당
● 전세 : 1억 8천, 시설비 1억 7천, 층 : 3억 5천
● 가액 : 3억(답사 후 절충가능)
011)9183-8993

대방광불화엄경
大方廣佛華嚴經
◆ 목판본 백질 한정본 판매 ◆
● 화엄경 (80권) - 1,600,000원
● 사 교 (7권) - 250,000원
● 법화경 (7권) - 210,000원
목판본 한지한장본으로 제본, 법당 부처님 복장장엄용, 강본으로 사용
해인사 055) 932-7252 김창본
신부락 011) 545-7252 처 사

사 찰 안 내 - 급 구함 -
• 위 치 : 의정부 • 위 치 : 춘천
• 법 당 : 15평 • 법 당 : 10평
• 요 사 : 40평 • 요 사 : 35평
• 부 지 : 1600평 • 부 지 : 6300평
• 가 액 : 7억 • 가 액 : 3억 7천
경기 부평, 인천 부천
경북 풍기(소백산지역)
※ 사찰을 양도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 전국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 / 011) 713-5634

사찰 안내
● 동작구 상도 2동 201-60호 백운사
● 대지 : 66평
● 건평 : 1층 28평 2층 21평 지하 5평 합 : 56평
● 부처님 네분 모셔져있고, 후불탱화, 영단, 부처님 단청 갖추어져 있음
● 가액 : 5억 7천만원
011)722-0302
02)815-0302

포교당 안내
● 위치 : 김해 교통체 유지
● 4층건물 중 3층, 50평 법당, 주방, 방3개, 주차장완비, 즉시 법회가능, 시설완벽
● 보증금 3000만원 월 46만원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55)336-5691
017)556-5691

사찰 안내
●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 대지 : 150평
●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암자용도전원주택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근교, 대구서 50분 ~ 1시간
● 부지 : 밭 600평, 중심에 대지 : 150평 + 계곡부지
● 건물 : 신축한옥 30평 (큰방 2, 작은방 2, 큰마루, 부엌, 화장실) 외 창고 12평
● 특징 : 산세수려하고 마당앞엔 시철 흐르는 청정계곡이 있고 마당까지 큰차진입
● 가액 : 7800만원(실제공사비)
054)337-5156
011)9857-5156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 · 중 · 대 · 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남원 지리산
● 부지 : 1200평
● 법당 : 25평
● 요사 : 40평
● 양도가 : 3억
● 30년 역사의 수행 도량 임
● 위치 : 충남 공주시
● 부지 : 37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5평
● 양도가 : 7천 오백만원
● 산세 좋은 도량 임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남면
● 법당 18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추가 요사채 두채
● 도지 1년 쌀 3가마
● 가액 : 1억 5천만원
02)965-3915
016)349-4341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영천 롤게이트 부근) 교통편리
● 대지 : 약 100평, 건물 50평 단층한옥 (새로 수리함), 임법당(즉시 법회 가능) 방 3개, 창고 1
● 특징 : 마을 끝집에 야산을 끼고 있어 토굴을 겸해 포교당으로써 적절함
● 가액 : 3500만원
054)337-9916
011)9727-9935

토굴안내
● 위치 : 경기도 동두천시
● 법당겸 요사채 50여평 산신각 7평
※ 종중땅임(400여평 사용) 절앞소방도로 확정되었으므로 내년이면 차량진입이 가능
심야보일러 온수보일러 설치
● 가액 : 9천 5백만원(절충가)
011)9770-6598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경동시장 인접 교통편리(버스정류장 앞)
● 평수 : 40평(방 3개)
● 대웅전, 산신각
● 가액 : 전세 8천 시설비 : 5천(조정가)
011)9184-7629

암자 · 토굴 · 공부터안내
● 지리산 전경과 강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
● 평 수 : 잡종지 100평, 축사 2동
● 전 2000평, 과수원 500평 ● 가액 : 6천만원
● 임 야 : 10,000평, 평당 : 일만원
● 잡종지 : 400평, 평당 : 10만원
● 도로완료
055)963-8167/011)863-8167
경남 함양군 휴천면 문정리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범일동
● 면적 : 60평
● 법당 : 25평, 요사 : 35평 (산복도로위에 있는 도심사찰이며 법당은 2층에 있고 전망이 좋음)
● 양도가 : 1억 7천 5백
● 위치 : 지리산 대원사 부근
● 면적 : 15,000평
● 법당 : 20평, 요사 : 130평(3동) (마을에서 3km산속에 위치한 절묘한 기도도량, 2년된 새건물임)
● 양도가 : 2억 5천
● 위치 : 경북 영양군 석보면
● 면적 : 747평
● 가옥 : 2체(보일러 시설) (3km골짜기안에 위치하며 산세와 계곡 좋은 순수토굴, 차전입 가능)
● 양도가 : 2천 5백
부산 영남지방 풍수전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울산 1동
● 전체 평수 약 330평
● 전통 유치원
● 시내 중심가
● 덕림산이 주위에 있음
● 가액 : 7억 전세가능 : 2억
011)603-845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예천 시내에서 5분거리 경관수려, 고속도로 진입로 가까움
● 평수 : 108평
● 가액 : 8백 오십만원
016)589-9929

토굴 및 사찰터
● 경남 하동군 화계면
● 대지 220평
● 건평 30평
● 신축 전통황토한옥 두채
● 준농림지 605평
017)356-9414

사찰양도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권 대창불교건축 권 대 창 목 재
● 사찰대웅전 건축
● 고건축 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781-4989
H P 016)768-4324
011)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 면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 보갑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종봉 합장

사찰(급)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울산 1동
● 전체 평수 약 330평
● 전통 유치원
● 시내 중심가
● 덕림산이 주위에 있음
● 가액 : 7억 전세가능 : 2억
011)603-8450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응암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면적 : 실 면적 약 34평 지층 방2개,사무실1개,주방1개,법당1개
● 보증금 500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추후 협의
017)217-2219

포교당 안내
● 위치 : 경북 영천(영천 롤게이트 부근) 교통편리
● 대지 : 약 100평, 건물 50평 단층한옥 (새로 수리함), 임법당(즉시 법회 가능) 방 3개, 창고 1
● 특징 : 마을 끝집에 야산을 끼고 있어 토굴을 겸해 포교당으로써 적절함
● 가액 : 3500만원
054)337-9916
011)9727-9935

조용한 풍광에 절 원하시는 분
수백년 묵은 느티나무가 옆에있고 앞에는 큰 냇물이 사철 흐르는 유원지
● 대지 : 200평 ● 전 : 700평
● 방 2개, 창고 1개
● 가액 : 7200만원
054)262-6673

사 찰 안 내
● 위 치 : 서울
● 대지 : 18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산신각 : 15평
● 가액 : 6억
※ 전국 사찰 암자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용도 마음수련원, 별장, 토굴, 기타
● 소재지 : 경남 거창군 내, 대구에서 50분 ~ 1시간
● 부지 : 600평 ● 건물 : 3동
● 건물 : 1동 통나무집 1층 50평, 2층 30평, 3층 30평 (심야보일러)
건물 2동 벽돌집 25평 방 4, 거실, 주방, 욕실 (심야보일러)
건물 3동 육각정
암자 또는 토굴로 사용할 경우 2층은 법당으로 사용가능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마당에는 흐르는 샘수 연못과 정자가 있고, 잔디와 소나무 조경이 잘되어 있음
정원 앞에는 마르지 않는 계곡이 있어 항상 시원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음
채소밭 텃밭이 있고, 과일나무가 있음
마당까지 래미콘 등 대형차 진입
● 양도가 : 3억 3천
011)509-0124

사찰 안내
●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 부지 : 약 320평
●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내 서부정류장 근처 (전철역 근접지로 교통편리 최적지)
● 면적 : 70평(법당 30평, 요사채 40평) 2층건물 중 2층으로 옥상사용 가능 즉시 법회 할 수 있음
● 가액 : 5500만원
● 특징 : 지장보살(후불,신중,칠성,산신탱화) 직사각형건물내 법당 주방(대) 방(대,중,소) 욕실화장실(실내의 2개)
최고급 최신시설로 방음, 방한 완벽함 비품일체 신형 신품, 주차시설 완벽(20대)
※ 공부하러 가는 관계로 급 양도
017)857-5588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평수 : 땅 대지 200평 법당(콘크리트 기와) 28평 산신각 2층 5평, 요사채 30평 공양간 5평, 대지 공양간 5평
●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 1억 5천만원
052)294-7025
016)9294-7025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광역시 태화 로타리 경남은행 뒤편
● 평수 : 3층 50평, 법당, 주방 방, 각 1개
● 시설 최상급 삼존불 봉안
● 보증금 1200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6)750-4394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소태동 제2순환도로 무등산 진입로 부근
● 임 야 : 4천 20평
● 대형차량 진입가능
● 대지 : 400평, 전환가능
● 평당 : 14만원
016)471-8758

"친구와 함께"…화제마을 수련회 최고

양산 하철홍·전순연 부부, 7년째 집 전체를 수련장으로



◇화제마을 수련회는 수련회 갈 기회가 없던 시골 아이들에겐 더없이 즐거운 체험이 됐다.

7월 27일, 경남 양산시 원동군 화제리의 작은 마을이 떠들썩해졌다. 유치부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아이들이 하나 둘 모여들고 마을의 집 하나가 어느새 수련장으로 변해 버린다.

사찰도 전문 수련원도 아닌 이 집은 하철홍(44, 부산철도공단)씨와 전순연(41, 묘련화)씨가 살고 있는 가정집. 매년 여름, 이들 부부는 방, 마당 등 집 전체를 아이들의 수련장으로 내주고 그 뒷바라지에 눈코 뜰새가 없다. 96년부터 해온 일이니 벌써 7년째. 2년에 한번씩 했던 수련회를 3년전부터는 매년 열고 있다.

첫해엔 공간이 없어 비어있던 축사를 20여일이나 걸려 수리를 해가며 시작한 일이 이제는 온 마을 주민들이 쌀, 과일, 떡 등을 가져다 주며 수련회를 돕고 있다. 신흥사, 영암사 등 인근 사찰들도 후원자로 나섰다. 7월 25~26일 장애인시설 애리원 수련회에도 장소를 제공했던 주민들은 환영 플래카드를 내걸기도 해, 이제 화제마을은 마을 전체가 수련회장이 되어 버렸다.

27~28일 열린 청소년 수련회에는 최연소 참가자인 송다슬(4살)을 비롯 64명이 참여했고, 이들 중에는 5회째 빠짐없이 수련회에 참여한 고참들도 있다. 초등학생이던 재현(양산고 2)이도 고등학생이 되어 4명의 친구들과 자원봉사자로 나서 수련회를 돕는 기특함을 보였다.

반편성과 입제식이 끝나자 본격적인 수련회가 시작됐다. 대부분이 원동, 물금 등 시골에 살고 있어 수련회에 갈 기회를 찾지 못한 아이들, 선생님들(부산불교교육원 청년회원들)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지만 아이들의 웅성거림과 들뜬 마음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는다.

그러나 발우공양이 시작되고 108배, 발원문 시간 등이 이어지자 아이들의 눈빛이 진지해진다. 첫날 저녁 캠프파이어에서는 뚝뚝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수련회 둘째날 아이들은 밤새워 준비한 연극을 공연하고, 불꽃놀이 등을 선보여 마을주민들도 잠시 일상을 접고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화제리 마을의 수련회는 이제 '너무 재미있는 수련회'로 인근에 소문이 났다.

동규, 민재 두 아들을 수련회에 함께 참여시킨 전보살의 집은 평소에는 불교동화책을 비치하고 아이들 놀이공간과 도서관으로 개방되고 있다. 내년에는 보다 알찬 수련회를 위해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 수련회를 따로 열 계획이라고 말하는 전보살은 마을 아이들과 주민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불교도서관 설립을 발원하고 있다.

양산=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청소년들 발우공양·연극 등 즐거운 시간 | 온마을 주민들 떡·과일·쌀 등 제공

캠프파이어 때 눈물…자신 돌아보며 참회 | 신흥사·영암사 등 인근사찰 적극 후원

"고속철 노선조정 민관협의체 검토

추 건설차관 환경평가 재실시·훼손 최소화 대책 강구"

시민대책위 "환경재평가는 여론 무마용"

경부고속철도의 금정산, 천성산 관통반대를 위한 불교계와 시민종교단체의 반발이 3보1배, 단식농성 등으로 거세게 확산되자, 부산시와 건교부가 대구~부산 노선 조정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7월 27일 범어사 주지실를 방문한 추병직 건교부 차관은 시민종교대책위 관계자 등 10여명과 만나 대책위가 제안한 건교부, 환경부, 고속철도공단, 부산시, 범어사, 시민환경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고속철도 노선조정을 위한 민관 협의체'(가칭) 구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7월 26일 안상영 부산시장은 금정산 고속철도 통과반대 시민종교대책위의 부산시청 광장 앞 단식 농성장에 들러 "부산시민의 여론을 적극 수용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를 정부에 공식 건의하겠으며, 천성산 문제와 관련해선 김혁규 경남도지사와 만나 상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7월 29일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에서 집행위원회를 가진 시민대책위는 협의체가 여론무마용이라며, 성격을 지켜본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시민종교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인 도관(범어사 총무국장)스님은 "일단 협의체가 구성되면 환경영향평가 재실시에 시민전문가를 적극 참여시키고 범시민결의대회와 대시민홍보를 강화해 고속철도의 노선변경을 이끌어낼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만일염불기도 48년째 금수사

54년 봉안 불상 개금불사 봉행

1954년 만일염불회를 창설, 올해로 48년째를 이어온 대한불교원효종 금수사(주지 법홍)가 만일염불회 창설 당시 봉안된 불상의 개금불사를 봉행한다.

금수사는 1954년 만일염불회를 창설하고 만일째가 되던 1983년에 1차 만일염불기도를 회향했다. 곧 이어 2차 만일염불기도를 입재 올해로 18년째를 맞고 있다. 참선, 간경 만일정진은 성행되고 있으나 염불만일정진은 흔치 않아 금수사의 만일염불회 48년 기도의 원력은 더욱 높이 평가되고 있다.

금수사는 1954년 만일염불회 창설 당시 대광명전에 원불로 아미타본존불,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을 비롯 비로자나 삼존불 및 53존, 삼세 삼천불 등을 봉안했으며 이번 개금불사로 만일염불 정신을 일깨우게 된다.

법홍스님은 "신라시대 발징화상에 의해 최초로 창설된 만일염불회의 본뜻을 드높일 개금불사에 인연맺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회당대종사 생애 조명

진각종, 영상물 출시

진각종이 회당대종사 탄생 100주년을 맞아 종단역사의 영상물화 작업의 첫 시도로 회당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을 조명한 영상물을 출시했다.

'불법은 체요, 세간법은 그림자라'는 제목의 이 비디오는 불교인터넷 TV(이현오 PD)가 제작했으며, 1, 2부로 구성돼 있다.

1부 영상물은 회당대종사의 탄생에서부터 열반까지 구도역정과 일화, 회당의 불교개혁론 등으로 구성됐으며, 2부 영상물은 비공개된 자료와 함께 회당대종사의 가르침을 담고 있다. (02)942-0127

한명우 기자

봉서사 주지 법성스님



완주 봉서사는 7월 19일 산중총회를 열고 새 주지에 법성스님(사진)을 만장일치 추대했다.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향산 스님, 부원장 근배 스님, 신도회장 황미라씨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산중총회는, 7월 17일 전 주지 호산 스님이 입적함에 따라 호산 스님의 맏상좌인 법성 스님을 새 주지로 추대한 것이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해마다 여름이면 숲속학교 어린이들 때문에 봉선사 운하당의 창호지는 '뻥' 뚫린다.

어린이 숲속학교 참가자

"사진 찾아 가세요"

'어, 내 얼굴이네!'

남양주 봉선사(주지 일면)는 7월 20~22일 열렸던 제29회 어린이 숲속학교 기간 동안 찍은 사진 320장을 무료로 찾아갈 수 있는 행사를 8월 한 달간 갖는다.

봉선사 사무실을 직접 찾거나 홈페이지(www.bongsunsa.net)에서 자신이 나온 사진을 골라 신청하면 된다. (031)527-1951.

권형진 기자

부산불교신협 10돌…지역 관련업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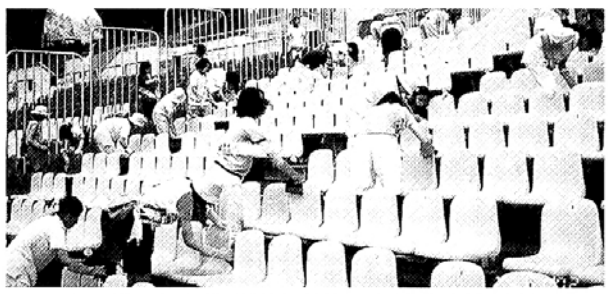
조합원 9,125명 · 자산 520억

'불자들을 위한 은행', 부산불교신협(이사장 사상호)이 11일 창립 10주년을 맞는다. IMF사태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을 보여 70여 부산 지역 신협 중 3위에 오르는 성과를 올린 부산불교신협은 92년 조합원 70명으로 시작해 이제 조합원수 9,125명, 자산 520억원으로 성장했다.

부산불교신협은 오는 27일 영업점이 있는 건축사회관 12층 강당에서 고산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열어 창립 10주년을 축하하는 한편, 창립 10주년 기념 자산 1천억원 조성 발원 한아름정기예금 상품을 기획, 판매하고 있다. 특히 창립 8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시작한 불자 한통장 갖기 운동과 자산 1천억원 조성 운동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부산불교신협은 앞으로도 불자 한통장 갖기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부산불교신협은 조합원수 1만 5천명, 자산 1천억원 조성을 목표로 정진하는 한편, 법회 공간, 편의시설 등을 갖춘 사옥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부산=천미희 기자



◇부산 아시아드 경기장을 청소중인 '맑고 향기롭게' 청소년 봉사단.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

지역문화 가꾸기등 봉사

7월 24일 발대식을 가진 맑고 향기롭게 부산모임(본부장 박수관) 청소년 자원봉사단은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과 함께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500여명의 청소년들이 9개의 팀으로 나눠 지역문화가꾸기, 장애인 체육대회 보조, 아시아드 경기장 청소, 범어사 문화유산 답사 및 금정산 가꾸기 등의 활동을 통해 자원봉사의 참뜻을 되새겼다.

천미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 / 위저드 김희균

실버타운 입주안내

1. 입주자격 및 절차
◆ 만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분 및 60세 미만 부부
◆ 소정의 생활비를 부담할 수 있는 분
◆ 보증인(자녀)과 노인동행으로 직접 내원 상담 후 결정

2. 구비서류
◆ 건강진단서, 호적등본 1부, 주민등록 1부, 증명사진 3장

3. 시설안내
◆ 3동(96실) ◆ 숙실평형 : 9.5평

4. 부대시설
회의실, 강의실, 진료실, 간호실, 재활치료실, 약국, 사우나, 식당, 세탁실, 강당, 상담실, 휴게실, 수영장, 체련실, 바둑 게이트볼, 삼림욕장, 탁구장, 독서실, 공작실, 서예실, 노래방, 채소재배단지, 온천탕(시공중), 산책로

5.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입주금 중 보증금은 퇴실시나 사후 돌려드립니다.

6. 연 락 처
02)743-0294,011)9781-7301 Fax 02)747-4866

※ 공양주, 행지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실버타운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부산지사
051-463-5331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 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디스크,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수경스님(가운데)이 7월 31일 철마선원을 방문한 포교원장 도영스님(왼쪽)에게 관통도로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있다.

"철마선원 강제 철거땐 국제여론에 호소할 것"

수경스님에게 듣는 '법원 판결 이후'

7월 25일 용역업체 직원들에 의한 폭력사태로 송추 철마선원에는 경찰 병력이 삼엄하게 길목 길목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이곳 스님들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못하는 표정이다.

폭력사태 이후 철마선원에는 스님들을 격려하는 전화가 연이어 답지했고,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과 나눔의집 할머니 등은 직접 방문해 수경스님을 만났다.

그런 가운데 12일 회룡사와 홍법사 구간에 대한 '공사중지' 판결과 26일 철마선원 등에 대한 '건축물 철거' 판결을 놓고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불가능설, 철마선원 철거설 등이 난무하는 등 상황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7월31일 수경스님을 만나 법원 판결 이후 북한산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물었다.

-시공사들은7월 26일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단행' 판결을 받고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하는데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인가?

▲노선 변경 없이 공사가 재개될 가능성은 없다. 12일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중지' 판결이 회룡사와 홍법사 구간에 대한 공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공사는 강제로 토지 수용 등 절차를 밟겠다고 하지만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라 이것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동의와 문화관광부 장관의 협의를 얻어내야 하는 일이다.

-그래도 법원은 불교계에 철마선원을 철거하라고 결정했는데.

▲철거 명령은 떨어졌지만 공권력이 투입되거나 용역업체가 투입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불교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LG건설과 정부가 무리수를 두지 않을 것이다

만약 강제로 철마선원 강제 철거에 나선다면 나를 포함한 불자들이 9월초 UN 등 국제기구를 방문, 국제여론에 북한산 문제 해결을 호소할 것이다. 이 경우 한국은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국가, LG는 환경파괴 기업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5일 철마선원에 나타난 승복차림의 괴승려들의 정체는?

▲그들은 돈만 주면 어디라도 나타나는 사람들이다. LG가 부인해도 수십 억을 받고 이들이 고용됐다는 제보가 계속해 들어오고 있다. 대기업인 LG의 발상 자체가 한심하다. 불교계 자작극이라는 말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관통도로 문제를 차기정권에 미뤄 양하자고 요구하는 이유는?

▲임기 말인 현정권에서는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를 책임지고 풀 사람이 없다. 따라서 다음 정권에서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 또한 공사가 잠정 중단될 12월까지 정부, 기업, 불교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대안 노선을 논의해보자는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차기 정권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차기 정권 이양에 대해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

▲현재 정치권은 공사 중단, 대안노선 검토 등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 차원에서 북한산 관통도로를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노무현 후보도 공사 중단과 대안노선 검토에 긍정적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토지강제수용 조계종 총무원장 동의 필요
정치권도 공사중단 · 대안노선 검토 긍정적

불교전문 상담소 '화연' 열어

소설가 남지심씨, 고민 주제별 불자모집 상담



소설가 남지심씨(사진)가 서울 마포 불교방송 2층에 불교전문 상담기관인 '화연(化緣)'을 열고, 8일 첫 상담을 진행한다.

화연은, 부처님과 보살님이 이 세상에 나투시는 이유가 바로 교화할(化) 인연(緣)을 찾아 제도하고, 그렇지 못한 중생은 인연이 성숙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제도한다는 뜻이다.

남씨는 이러난 화연의 의미를 불교 상담에 적용해 새로운 상담문화의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상담프로그램도 전화상담이나 개별 상담 형식으로 진행하는 기존의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

부부, 종교, 이성, 가정문제 등 우리 삶 속에서 맞닥뜨리는 갖가지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불자들을 만나,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형식이다. 매회 주제별로, 10명의 불자들을 모집하고 1일, 또는 1박 2일, 2박 3일 등의 형태로 상담을 진행한다. 같은 고민으로 만난 불자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하고, 성격검사 방법의 하나인 MBTI 검사를 통해 자신의 성격을 알아보며, 갈등의 원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근원적인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다 심층적인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상담과 수행의 결합이라 할 수 있는 '부처님 가까이 더 가까이'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02)704-3577, 016-9308-4817

이은자 기자


◇왼쪽부터 법신 · 철형 · 해천 스님, 주치의 한덕종 박사.

세 스님의 '아름다운 法緣'

해천스님, 철형스님에 신장기증
법신스님 그림자처럼 뒷바라지

10년간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온 스님에게 자신의 신장한 스님과 그 인연의 징검다리 역할을 한 비구니 스님, 이들 세 스님의 아름다운 '법연(法緣)'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들은 신장을 기증한 해천스님(경기도 가평 만복사), 장기를 받은 철형스님(전남 나주 월봉사), 두 스님을 그림자처럼 뒷바라지한 법신스님(경기도 양평 대성사).

재작년 겨울, 교통사고로 대성사에서 요양 중이던 해천스님이 철형스님을 만난 것은 지난해 5월. 3년 전부터 신부전증이 재발해 병고에 시달리며 이 절에서 신장투석을 받고 있는 철형스님을 위해 도울 방법을 찾던 해천스님은 그해 겨울 장기이식을 결심, 7월 22일 서울 아산종합병원에서 자신의 신장을 기증했다.

해천스님은 "다행히 신장조직이 맞아 수술을 할수 있었습니다. 보시행도 인연이 닿아야 실천할 수 있는 건데, 모두가 부처님 가피 덕분"이라며 미소를 지었다.

김철우 기자

북한산도로 시공 롯데건설, 주민 폭행

노원 · 도봉 시민연대 농성돌입

22개 단체 연합집회…철마선원 폭거 규명촉구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과 관련해 건설회사와 시민단체들의 마찰이 거세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7월 31일 북한산 관통도로 수락산 구간 시공에 항의하는 주민들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사건 발행 후 노원 · 도봉 시민연대 회원 30여명은 농성단을 꾸려 수락산 동막골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1일 오전에는 롯데건설측이 용역업체 직원을 증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조계종 공동대책위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폭력사태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정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선검토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한편 25일 송추 철마선원 폭력사태와 관련해 종교 시민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22개 시민 환경단체로 구성된 북한산농성장폭력진상조사대책위는 7월 30일 탑골공원에서 연대집회를 갖고 북한산 철마선원 폭력사태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또한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 등은 민주당 유용태 사무총장을 방문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전달했다.

전국전통강원연합회 학인스님들도 29일부터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과 포교원 간부 스님들은 31일 오후 송추 철마선원을 찾아와, 포교원 산하 신행단체들과 연대해 북한산 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나눔의집(원장 능광) 일본 위안부 출신 강일출 할머니 등 7명도 철마선원을 방문, 북한산 관통도로 건설 현장을 둘러보았다.

강유신 · 남동우 기자

성불사 마애석가삼존등 5건
충남도 유형문화재 지정

천안의 성불사 마애석가삼존 · 16나한상 · 입불상 및 천성사 금동보살입상. 아산 세심사의 부모은중경판이 충남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다.

충남도는 최근 제65차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이들 3곳 사찰의 문화재 5건을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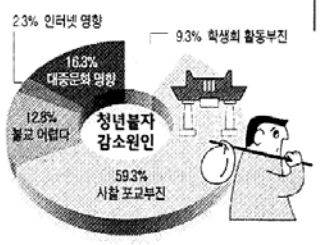
14~15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천안 성불사 마애석가삼존과 16나한상은 14세기 불화의 도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으며, 아산 세심사 부모은중경판은 고려말에서 조선초 사이에 조성된 것으로 언해본 경판으로는 통도사 경판과 함께 가장 오래된 것이다.

불상뒷면에 고려말에 조성했다고 기록돼 있는 천성사 금동보살입상은 천안 만일사에서 소장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불자의 생각

청년불자 감소



청년불자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찰에서 포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86명이 동참한 붓다

사찰의 포교부진 때문 59.3%

뉴스 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51명(59.3%)이 이같이 응답했다. 이밖에도 14명(16.3%)이 '대중문화의 영향', 11명(12.8%)이 '불교는 어려운 종교란 인식', 8명(9.3%)이 '학생회 활동의 부진', 2명(2.3%)이 '인터넷 게임 등의 영향'이라고 답변했다. 주변의 청소년들에게 불교 신행을 권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69명(80.2%)이 '있다', 17명(19.8%)이 '없다'고 밝혔다.

김두식 기자

"모시는 사찰마다 신비스러운 영험이 일어나고 있는"

사천왕 병풍의신비(神秘)한위신력!



규 격 (2폭)높이:153cm 폭:120cm 무게:30kg

◎ 보급가 : ~~₩2,500,000~~ → ₩2,000,000

※ 현재 본회에서는 전국사찰을 계속적으로 순회하고 있기 때문에 스님들께서 부담느끼지 마시고 연락만주시면 날짜를 정하여 직접 찾아뵙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다로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 조성방법

먼저 훼손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모실 수 있도록 병풍 전체를 고급무늬목재와 황동판을 사용해서 색채도 화려하고 장엄하게 조성 하였습니다. 직접보시면 환희심이 저절로 일어나실 정도이며 일차로 이번에 300품이 조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병풍 뒷면에는 법기(法氣)와 생기(生氣)가 계속적으로 방출되고 있는 본회의 비법(秘法)인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황동판 팔괘볼탑다라니를 4폭 모두 부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사천왕 병풍 자체에서 나오는 법기와 합일(合一)되어 사찰 내 사방 50m 이내에는 강한법기와 법력으로 충만되어 주위의 사악한 기운이 소멸되어지고 있으며, 사찰 내를 신령스러운 법력이 항상 감싸고 있게 되므로서 사천왕 병풍을 모시는 사찰마다 신비스러운 위신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신비한 위신력의 현상

(1) 매 법회때 마다 신도들이 50여명 정도 밖에 안나오는 사찰의 경우에서 사천왕병풍을 모시고 난뒤부터 신기하게도 동참하는 신도들이 점점 늘어나 지금은 법회에 80여명 이상의 신도가 나오고 있고 어느 때는 100여명 이상씩의 신도들이 동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2) 뜻하지 않은 큰 금액의 보시금을 내는 신도가 생기는가 하면 불전함의 보시금도 배로 늘어나 사찰의 어려운 형편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3) 스님들께서 볼사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우연히 마련되어지고 모든 일이 뜻한 바대로 순순히 풀려지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 상기 사례는 그동안 사천왕 병풍을 모신 사찰의 스님들과 대화하는 중에서 알게된 현상들을 종합해 본것 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사천왕 병풍에서 나오는 신비스러운 위신력의 작용 때문이라는 생각이들며 이제 그 위력이 하나둘씩 알게 모르게 발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 불자님들께서도 뜻을 모아 사천왕 병풍을 본인들이 다니시는 사찰에 시주(施主)하는 마음을 내어보십시오. 이보다 더 큰 공덕도 그리 많지는 않을 것 입니다.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334-9490, 334-9491 야간 : 031)706-3060



○'마니산정수사' 이호신作(60×88), 1999.

바위많고 氣운찬 마니산 수많은 생명들의 인연공동체



사찰생태연구소 · 현대불교신문이 함께하는

108사찰 생태기행

(4) 마니산 정수사

글 · 사진 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참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이야기이다. 사찰주변에서 자연생태계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들과 함께 왜 생명공동체인지, 생명공동체가 왜 인연공동체인지를 감동적으로 말해주는 일화이다.

함허동천 주인공은 함허대사

정수사 뒤로 마니산 줄기가 내려와 있다. 정수사 담장을 돌아가면 마니산 정상과 함허동천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이 있고, 그 갈림길에 소사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소사나무는 한국 특산이지만, 중부 이남의 해안 지방에서 자라기 때문에 마니산 북쪽에서는 관찰하기 어렵다. 그래서 마니산과 정수사의 대표수종으로 이의가 없다.

함허동천은 마니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을 지니고 있다. 계곡의 주인공인 함허대사 득통은 신진유생들이 날뛰던 여말선초에 〈유석질의론〉을 펴내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유불선 삼교회통(三敎會通) 사상을 펼친 당당한 선승이었다.

정수사에서 함허동천으로 내려가는 숲길은 소나무 졸참나무 · 소사나무 등이 우점하고 있지만, 고로쇠 · 피나무 · 쥐똥나무 · 굴참나무 · 생강나무 · 노각나무 · 산벚나무 · 서어나무 · 오리나무 등이 극상림을 만들어내고 있다.

마니산은 해발 468미터이지만, 주능선이 기암괴석과 암벽의 연속이어서 등산객들의 발길이 잦다. 이 암릉 코스에서 산부추의 연보랏빛 꽃을 만나는 일은 예사 인연이 아니다. 산부추는 백합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로서, 일명 '산구'라고도 한다.

요즘 강화에 가면 '마리산'이라는 새로운 지명이 간판이나 현수막 등에 돼나 많이 눈에 띈다. 강화에서 마니산에 대한 개명운동이 처음 일어난 것은 지난 90년대 초. 개명론자들에 따르면, 조선 초에는 '머리산(=머리산, 마리산)'이었는데, 조선 중기에 참성단 보수에 동원된 승병들이 지금의 '마니산'으로 부당하게 바꾸었으니 본래의 이름을 되찾자는 주장이었다.

그런데 마니산 이름 바꾸기 문제가 미묘한 뉘앙스를 갖게 된 것은 개명을 주장하는 이들이 거의 개신교측이라는 점이다. 보전과 개명 양측이 몇 년을 밀고 당기며 끌을 보지 못하자 국립지리원 지명위원회가 나서 '마니산'은 역사성 있는 지명이며, 이미 국제적으로도 공식화된 지명으로, 함부로 개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 길거리에는 '마리산'이라는 지명의 간판들이 수없이 걸려 있다.

사찰생태에서는 그 절이 앉은 산의 산세를 살펴보는 게 먼저 할 일이다. 바위가 많은 골산인지, 토양이 많은 육산인지, 골짜기는 어느 정도 발달해 있는지, 산의 경사도는 어떠하며, 산기슭은 어떤 형태로 펼쳐져 있는지.

대체로 바위가 많은 암산(骨山)은 흙으로 덮힌 육산(肉山)보다 기가 강하다고들 한다. 기가 강한 것을 '살(煞)'이라고 하는데, 살은 '친다' '때린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강화도 마니산도 바위가 많은 골산 가운데 하나이다. 언젠가 풍수하는 이들이 전국의 요지를 다니며 기(氣)가 센 생기처(生氣處)를 조사했는데, 놀랍게도 마니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한다.

선두포, 철새들의 극락

전등사가 있는 정족산을 돌아가면 선두포 넓은 들녘과 함께 마니산이 나타나고 들녘 한 가운데로 폭 넓은 물길이 지나간다. 마니산은 본래 강화와 떨어진 별개의 섬이었다고 한다. 마니산과 정족산을 이어주는 넓은 들녘은 조선 숙종 때 간척으로 생긴 땅이며, 물길은 그 옛날 배가 지나다니던 바닷길이다. 겨울이면 이 들녘은 철새들의 극락이 된다. 가을이 저물기 바쁘게 기러기, 황오리, 청둥오리 등이 시커멓게 내려앉는다. 점집 주변의 자연생태에서 이곳만큼 겨울철새들이 많이 내려앉는 곳도 드물다.

큰길에서 정수사까지는 10분. 정수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 회정대사가 창건하고 조선 세종 때 함허대사가 중창한 것으로 상량문에 나와 있다.

아스팔트 포장길만 아니라면 정수사 숲길도 걷는 재미가 쏠쏠하다. 여러 종류의 귀화식물들이 길가에 간간이 보이지만, 하늘말나리 · 원추리 · 이삭여뀌 · 참나리 · 까치수염 · 달개비 · 노루오줌꽃 · 사위질빵 · 엉겅퀴 등등의 우리 야생화도 청초하게 제 자리를 지키며 숲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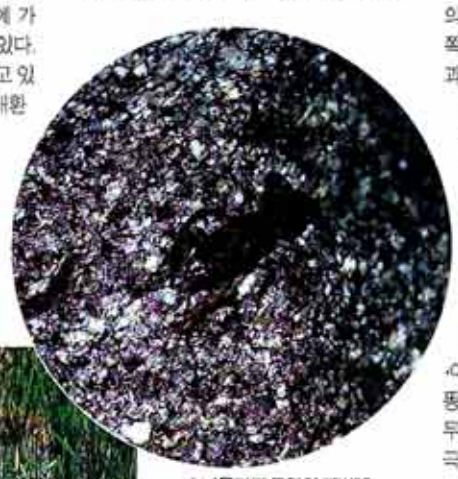
숲길 오른쪽으로 개울이 나 있다. 지난봄에 나온 새끼 가재들이 바위틈에서 나들



◇정수사 요사채 뒤켠에 왕원추리가 피어있다.



◇쇠물닭은 여름마다 마니산을 찾아오는 손님이다.



◇나뭇가지 모양의 자벌레.

'精水寺' 맑은 물 삶으로 증명하는 가재

왕원추리 · 자벌레 · 한국특산소나무 서식

삼성각 아래에 약수가 창건 초기의 이름이었던 '精修寺'를 '精水寺'로 고치게 했다. 요사채 뒷쪽 남새밭에는 보살이 심어놓았을 왕원추리가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왕원추리라는 이름 그대로 키가 크고 잎이 넓은 원추리이다.

자벌레 한 마리가 함허대사 부도로 가는 길가 괄배나무 가지에 걸쳐 있다. 자벌레는 본래 흑갈색이지만, 붙어있는 나무 껍질의 색깔에 따라 조금씩 변한다. 자벌레는 나뭇가지처럼 가늘고 길쭉하게 뻗어 있어 나뭇가지에 걸쳐 있으면 감쪽같다.

조선시대 설법 제1인자로 환성대사라는 분이 있었다. 설법을 얼마나 잘 했는지, 하루는 그 소문을 듣고 멀리서 신중이 법회를 찾아왔다. 법당 안을 들여다보던 신중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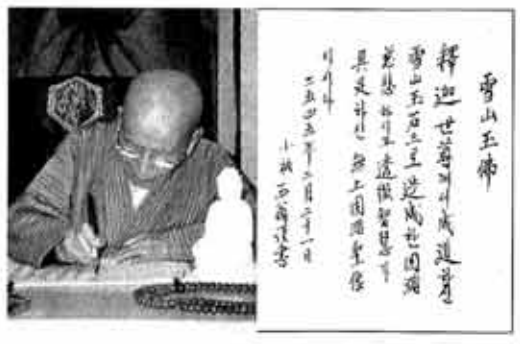
'큰스님이라 해서 누군가 했더니 영산회상 당시 자벌레였구만!'

한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게 한다. 꽃창살은 그대로가 부처님께 올리는 꽃공양이다.

경내에 단풍나무 · 오동나무 · 대추나무 · 배롱나무 · 사철나무 · 주목 · 영두 등소화 등이 보이지만, 전체적인 느낌은 '썰렁' 그 자체이다. 사람들은 별로 거들떠보지 않지만, 봄날이면 화려한 꽃을 늘어뜨리는 탑 앞의 수양벚나무와 여름이면 석벽에 덩굴을 늘어뜨려 자주색 꽃을 피우는 칡이 그래도 눈맛을 준다.

玉 조각작품으로
한불 한불 정성껏 조각하여 모십니다

雪山白玉佛



고불총림방장 서옹 큰 스님 / 추천서



우리부처님
코리아붓다
KOREA BUDDHA
http www.korea buddha co.kr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8동 1653-6 세한빌딩 401호
TEL : 서울 (02) 864-8834 부산 (051) 637-2333
FAX : 서울 (02) 839-2185 부산 (051) 637-6888

